ACHIEVE

2018 Amway Korea Recognition Book

암웨이 창립 60주년
A60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2019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암웨이 창립 60주년 행사 A60가 개최됩니다.
A60에서 여러분의 성공을 축하하고 더 높은 목표와 비전을 나눌 것입니다.
이 창의적이고 환상적인, 빛나는 순간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라스베가스 전역에서 펼쳐질 영예로운 자리, A60를 기대해보세요.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Amway

A60

2019년 암웨이 창립 60주년 축하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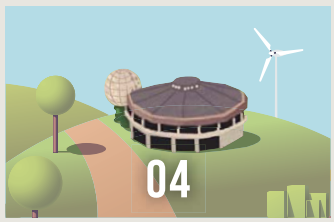
파운더스 카운슬(FC)	수석 다이아몬드(EDC)	다이아몬드(Diamond)
5월 16~22일	5월 17~22일	5월 18~22일

CONTENTS

GREETINGS
암웨이 넥스트(AmwayNEXT)

2018 AMWAY KOREA
한국암웨이의 2018년은 어땠을까?

AMWAY NEXT
암웨이의 미래를 찾아서



2018 GLOBAL AMWAY
세계가 인정한 암웨이의
숫자들

AWARDS
ABO들과 떠나는 여행프로그램
(NCA)

TRIBUTE
암웨이 공동창업자 리치 디보스의
아름다운 생애

NEW PIN ACHIEVERS

2018 뉴핀성취 ABO

FOUNDERS CROWN AMBASSADOR 40 ____ 32
FOUNDERS CROWN AMBASSADOR ____ 38
FOUNDERS TRIPLE DIAMOND ____ 42
TRIPLE DIAMOND ____ 44
DOUBLE DIAMOND ____ 46
FOUNDERS EXECUTIVE DIAMOND ____ 56
EXECUTIVE DIAMOND ____ 62
FOUNDERS DIAMOND ____ 80
DIAMOND ____ 90
FOUNDERS EMERALD ____ 157
EMERALD ____ 158
FOUNDERS SAPPHIRE ____ 166
SAPPHIRE ____ 166
FOUNDERS PLATINUM ____ 166
RUBY ____ 169
PLATINUM ____ 170

2018 ACHIEVE – VOL.24

발행처 한국암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삼성동, 아셈타워) **발행인** 김장환 **편집인** 문수진
제작 TNS MEDIA 02-548-0722 **포토그래퍼** 김준, 민병훈, 유재철 **인쇄** 미래엔

"암웨이 넥스트
(AmwayNEXT)의
핵심은 ABO 리더님들의
성공입니다.
ABO 리더님들에게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AmwayNEXT

2018년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암웨이를 대표해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암웨이 사업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 헌신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업적입니다.

한국 ABO 리더님들은 제품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지식, 고객을 향한 수준 높은 서비스 마인드를 지녔을 뿐 아니라 암웨이가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사업을 하며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어 주시는 ABO 리더님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올해 새로운 핀을 성취하신 리더님들께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우리는 올해의 성공을 기반으로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이, 글로벌 시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우리 역시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성장 전략으로 암웨이 넥스트(AmwayNEXT)를 개발했습니다.

암웨이 넥스트의 핵심은 ABO 리더님들의 성공입니다. ABO 리더님들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암웨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ABO 리더님들에게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암웨이는 앞으로도 끊임 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첫째, 암웨이는 여러분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고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모바일 기기를 많이 활용하듯이, 모바일 기기를 통해 암웨이 사업을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들에게 매력이 있는 제품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의미 있고 동기부여가 되는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여러분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네트워크 형성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제품 경험과 라이프스타일 경험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 여러분이 각자의 커뮤니티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사업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암웨이는 소비자가 지금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고, 그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셜과 디지털 부문의 강화,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 흥미진진한 새로운 경험의 제공,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암웨이 넥스트'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더 확신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암웨이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암웨이가 있고, 암웨이의 더 큰 미래가 있습니다.

암웨이 회장 **스티브 밴 앤델**

암웨이 사장 **덕 디보스**

세계가 인정한 암웨이의 숫자들

숫자는 객관적인 지표와 성과를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 오늘날 암웨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 Amway

예나 지금이나 암웨이는
넘버원,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출처: [디렉트 셀링 뉴스 글로벌 100 Direct Selling News Global 100], 2016년 매출액 기준.

100+

암웨이는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에 진출해 있으며,
암웨이와 함께하는 직원은 1만7,000여 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 암웨이에서 사용하는 언어만 해도 60개 이상이지요.

12,400,000

전 세계 암웨이의 고객 서비스팀은 매년 1,240만 건 이상의
고객 요청을 처리하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96,000,000

아티스트리의 뷰티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연간 판매량. 세계의 수많은
여성이 아티스트리로 더욱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240 & 800

전 세계 특허 출원 중인 기술은 240개 이상,
전 세계 특허 획득한 기술은 800개 이상입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연구를 통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어느 기업 못지않게 온라인 비즈니스에 앞장서고 있는
암웨이. 2017년만 해도 전 세계 ABO들이
500만 건 이상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5,000,000

10,600,000,000

매년 전 세계에서는 106억 개 이상의 뉴트리라이트 비타민과 영양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13,248,941

이스프링 정수기의 필터 테스트를 위한 내부 재활용 시스템으로 매년 13,248,941리터(3,500,000갤런)의 물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용 수영장 5개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수량입니다.

50

미국 에이다에 위치한 암웨이 본사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50%가 바람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7,350,000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 재배부터 수확과 생산까지 하는 뉴트리라이트. 미국, 멕시코, 브라질 등 암웨이의 유기농 농장 규모는 약 6,000에이커, 그러니까 735만여 평에 달합니다.

0.0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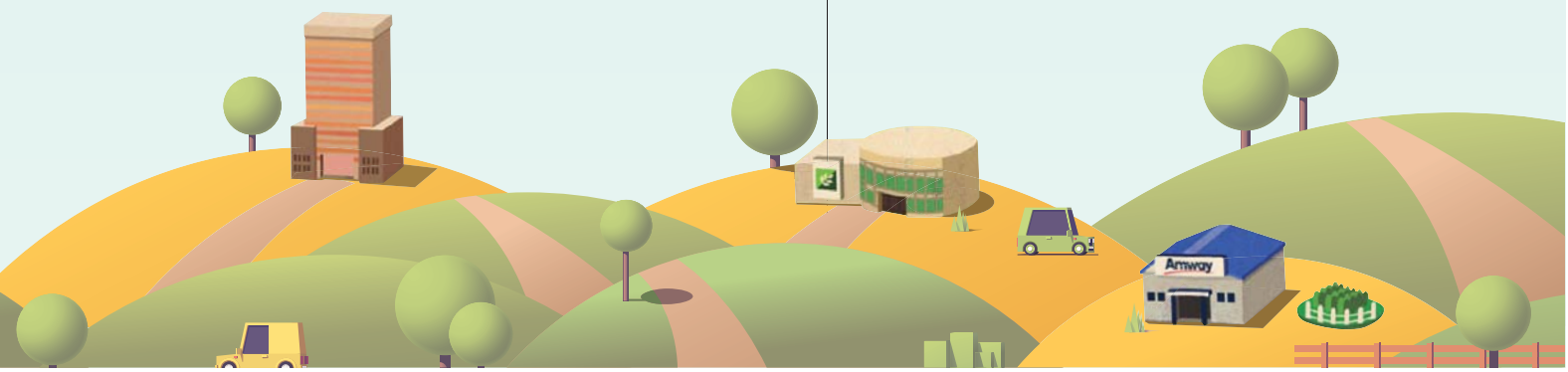
엣모스피어 스카이의 필터는 초미세먼지 기준(2.5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 이상 작은 0.0024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99.99% 걸러내는 강력한 초미세 정화력을 자랑합니다.

* 입자 감소성능은 EN1822에 따른 실험 결과(시험입자: 염화칼륨, 풍량: speed 5)로, 공기청정기를 통과한 공기에 한함.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00,000+

성장기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15가지 필수영양소를 담은 뉴트리라이트의 아동 영양 보조제, 리틀비츠(Little Bits). 전 세계 50만 명이 넘는 기아 아동들이 2019년 말까지 리틀 비츠를 제공받게 됩니다.

little bits



출처: www.amwayglobal.com/newsroom/facts-and-figures, www.amwayglobal.com/quality-and-innovation

한국암웨이의 2018년은 어땠을까?

2018년 한 해 동안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을
통해 한국암웨이는 한 층 더 성장하였고,
이를 양분삼아 내년에도 힘껏 도약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 한국암웨이를
더욱 성장시키고,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한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8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북해도 & 타이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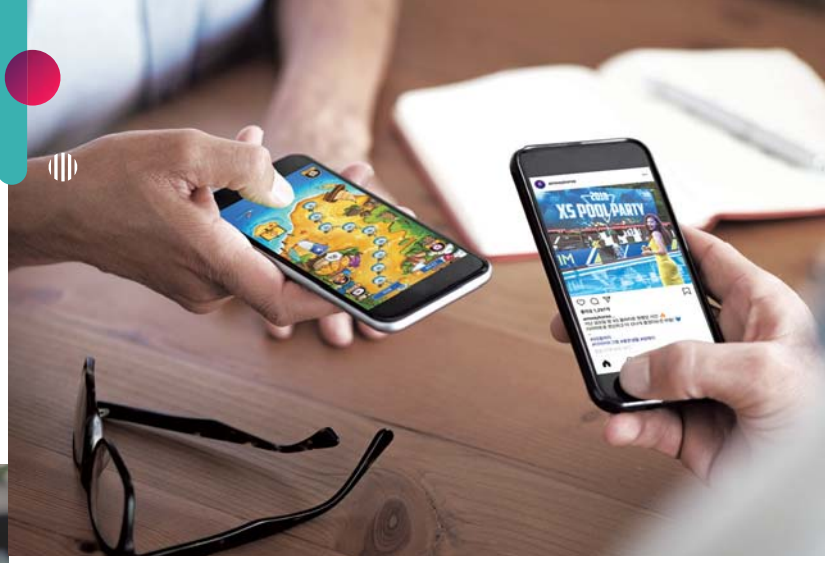
일본 북해도(1월 11~31일)와 대만(3월 10~14일)에서는 2018년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 열렸습니다. 총 345조의 ABO와 560여 명의 ABO 자녀들이 참가한 '2018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북해도'에서 ABO들은 겨울 스포츠와 온천 등 겨울을 만끽했습니다. '2018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타이베이'에는 모두 59조의 다이아몬드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부부만의 오붓하면서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암웨이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한국암웨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

'한국암웨이 7기 글로벌 인턴십'이 6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인턴십은 글로벌 기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암웨이의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며 지난 5월 마케팅, 디지털, 교육, 전략 기획, IT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지원받아 110: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참가자들이 선발됐습니다. 참가자들은 Build Young Leader Project를 시작으로, 서울과 지방 ABC에서 약 400명의 ABO를 만나 20대의 트렌드 및 20대가 바라본 암웨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기 주문 프로모션

한국암웨이는 제품을 정기 주문하거나 재구매하는 ABO들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기 배송 제품 수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재구매자 수가 늘어날수록 ABO들의 매출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익성도 예측 가능해 DB 관리의 편의성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앞으로도 재구매율이 높은 베스트셀러 제품을 지속적으로 정기 주문을 통해 구매한 ABO들에게 매월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강화에 나서다

한국암웨이는 암웨이 온을 비롯해 여러 사이트의 정보를 통합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통합 앱 '암웨이 센트럴(Amway Central)과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암웨이 브랜드와 제품, 사업구조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모바일 앱 게임 '핀업'을 출시했습니다. 또 한국암웨이의 인스타그램(@amwaykorea)과 카카오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공식 오픈하며, 디지털 콘텐츠 강화에 나섰습니다.

더 큰 성공을 위한 여정

3월 29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는 '더 큰 성공을 위한 여정(Journey to Greater Success)'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글로벌암웨이의 덕 디보스 사장과 마이클 케이저 COO, 마크 바이더비든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장이 함께 참석해 암웨이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ABO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덕 디보스 사장은 수십 년간 성장해온 암웨이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충성 고객층 확대, 젊은 리더 양성, 디지털 시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ABO들을 위해 국내 16곳의 A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라이브 암웨이, '마이 두바이'

6월 21일 ABN과 sABN 채널에서는 '트립 투 두바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암웨이 '마이 두바이'가 방송됐습니다. 2019년 두바이에서 열리는 APAC(Asia Pacific) 리더십 세미나를 위한 홍보와 동기부여가 목적이었습니다. 라이브는 홈쇼핑 스타일의 패키지 여행 상품 방식으로 소개해 마치 두바이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송 총 조회 수는 3만9,000여 건에 달했고,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700여 명의 ABO가 ABN을 통해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꿈을 품는 아이들'이 떠난 해외 드림 캠프

한국암웨이는 조손가정 아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꿈을 품는 아이들' 활동 중 하나로 지난 8월 해외 드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열린 해외 드림 캠프는 참가를 희망하는 아동들로부터 받은 '꿈 계획서'를 바탕으로 총 5명을 선발해 암웨이 본사가 있는 미국 미시건주 일대와 시카고로 연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암웨이는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위드 패셔니스타

밀레니얼 세대가 사랑하는 여행과 도시, 아트를 콘셉트로 담은 아티스트리 스튜디오의 첫 번째 컬렉션 '뉴욕 에디션'이 9월 공개됐습니다. 뉴욕 영 아티스트인 레이디 제이데이의 작품을 감각적인 패키지에 담아낸 '뉴욕 에디션'은 35세 이하 여성 암웨이 사업자들로 구성된 뷰티 홍보대사 '패셔니스타'를 통해 SNS에 적극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60여 명의 패셔니스타가 부산 국제영화제에 참석해 감각적인 패션과 아티스트리 스튜디오의 컬러풀한 메이크업을 인스타그램에 소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엣모스피어 스카이 출시

엣모스피어 스카이가 9월 출시됐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2.5마이크로미터)보다 1,000배 이상 작은 0.0024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99.99% 걸러내는 강력한 초미세 정화력을 자랑하며, IoT 기능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외부에서도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입자 감소성능은 EN1822에 따른 실험 결과(시험입자: 염화칼륨, 풍량: speed 5)로, 공기청정기를 통과한 공기에 한함.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업계 최초로 AI 로봇 도입

분당브랜드센터에 똑똑한 AI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드리미'로 고객 응대부터 ABC의 다양한 분야를 도와주는 로봇입니다. 드리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한국 암웨이 디지털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 되었습니다. 드리미는 ABO를 방문하는 고객을 맞이하는 것은 물론, 암웨이의 역사를 소개하기도 하며, 탑재된 자율주행기능을 활용해 매장 안내와 베스트 10 제품 소개, 제품 찾기 등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간편선물 제품의 경우 결제까지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인천과 광주, 고객 경험을 위한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ABC) 오픈

인천과 광주에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ABC)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인천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에서 눈에 띄는 공간은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파이토 카페 옆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무료 강좌와 강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광주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에는 지역 비즈니스 컨설턴트들이 데이터에 근거해 체계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컨설팅 룸이 신설되었습니다.

영 리더를 위한 암웨이의 이벤트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서울 예스24홀(22일)과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23일)에서 'U35 Go PT Summer Camp'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지원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한국암웨이의 기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초청 강연도 있었는데 서울에서는 〈무한도전〉을 연출한 김태호 PD가, 부산에서는 김태원 구글 상무가 창의적 사고와 창조적 열정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또 9월 1일에는 암웨이 비즈니스의 다양한 잠재력과 기회를 알리고 아티스트리 스튜디오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U35 펀펀나이트 이벤트가 열려 ABO들이 즐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한국암웨이
여행 프로그램(NCA)

ABO에게 여행 프로그램(NCA)은 1년간 열심히 달려온 비즈니스의 결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1992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시작한 한국 암웨이의 여행 프로그램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수많은 리더를 초대해 꿈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지난 25년간 7만5,000여 명이 참석해 16개 이상의 지역을 탐방해온 리더십 세미나, 그리고 21년 동안 삿포로, 휘슬러와 로마까지 전 세계 26개 지역을 1만3,000여 명의 리더님들과 함께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은 한국 암웨이의 자랑스러운 헤리티지입니다. 2019년 1월, 2018 삿포로 리더십 세미나를 시작으로 5월에는 글로벌 암웨이 60주년을 기념하는 A60 라스베이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두바이에서는 APAC(Asia Pacific) 리더들과 함께하는 2019 두바이 리더십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자녀와 함께 하는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 위드 칠드런이 북해도에서, 커플을 위한 다이아몬드 인비테이셔널이 동유럽의 아름다운 보석,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와 두브로브니크에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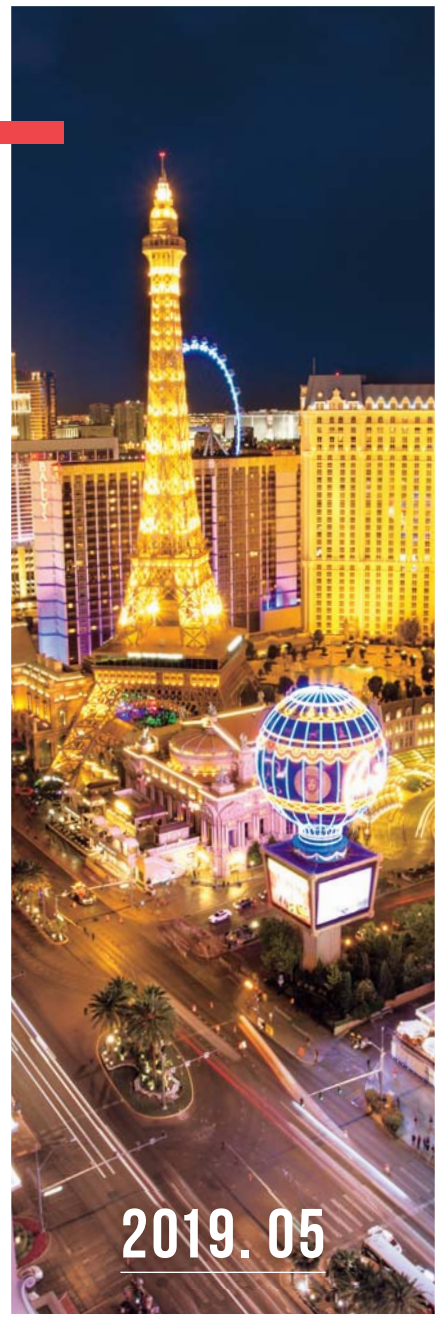
NCA (NON CASH AWARD).
리더님의 성취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LEADERSHIP SEMINAR SAPPORO WITH CHILDREN

일본, 삿포로

눈의 도시 삿포로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겨울 여행

2019년 1월 3일~31일



A60 LAS VEGAS

미국, 라스베이거스

암웨이 60주년을 기념하는
암웨이 비즈니스의 대장정

2019년 5월 16일~22일

LEADERSHIP SEMINAR DUBAI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사막의 화려한 도시 두바이의
과거와 현재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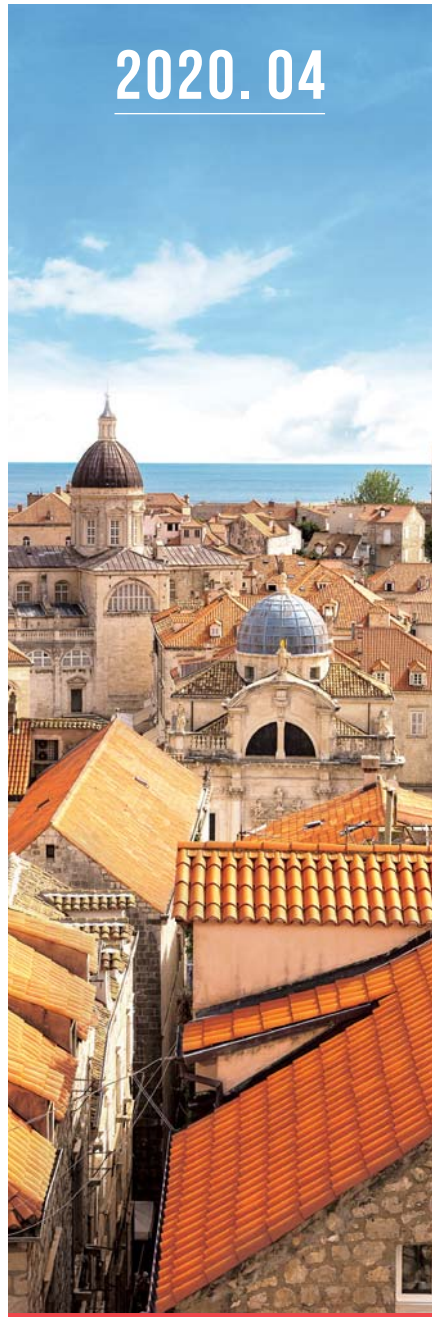
2019년 12월 10일~17일

DIAMOND INVITATIONAL WITH CHILDREN

일본, 홋카이도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홋카이도에서의 겨울 추억 만들기

2020년 1월



DIAMOND INVITATIONAL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 두브로브니크

부부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과 행복 여행

2020년 4월

* 개최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암웨이의 미래를 찾아서

미국의 작가인 윌리엄 깁슨은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그 변화에 대해 암웨이가 내일에 대비하는 바른 해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해외의 주요 기업을 살펴보았습니다.

SOLUTION 01

재구매를 통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라

'온라인 시장'의 도입은 유통업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단골의 실종이죠. 예전에는 소비자만의 단골가게가 존재했지만 온라인 시장이 생겨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쉬운 환불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쇼핑몰을 옮겨 다닙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상황은 매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고객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위험 요소입니다. 많은 기업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정기 구매를 통한 지속성 유지

재구매 고객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노력 중 하나로 '정기 구매'이라는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기업에는 어느 정도 초기 자금과 지속적인 소비자를 확보하는 이점이 있고, 소비자도 할인된 가격에 집에서 잡지나 신문을 받아볼 수 있어 편리했지요. 온라인 시대로 접어든 요즘에도, 정기 구매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출판물 일변도에서 벗어나 미용, 건강, 취미, 레저, 홈 데코 등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라면 단연 아마존(Amazon)을 꼽을 수 있지요. 아마존에는 특정 제품을 정기 구매하는 대신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종의 연간 우대 회원권인 셈인데, 연회비는 119달러, 한화로는 13만5,000원 정도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회원에 가입하면 특권이 제법 많습니다. 1억 종이 넘는 제품의 배송료를 면제받고, 아마존에서 제작한 방송 및 활자 콘텐츠를 마음껏 이용할 수도 있지요. 현재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유료 회원은 9,5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연회비만 해도 11조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아마존 프라임 회원의 경우 온라인 구매 활동의 대부분을 아마존 안에서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꽃 정기 구매 기업을 볼까요?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구입하는 꽃은 장미나 백합, 소국, 안개꽃 등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재고 부담으로 인기 있는 꽃이 아니면 작은 꽃가게에서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비자가 꽃을 정기 구매한다면 기업은 정기 구매 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보한 초기 비용을 화훼 농가에 보내게 됩니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훨씬 풍성하고 다채로운 꽃바구니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꽃 정기 구매 기업의 회비는 40달러 전후로 4만5,000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꽃바구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달러 셰이브 클럽(Dollar Shave Club)은 면도날을 포함한 면도용품을 정기적으로 배송하는 기업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성장성과 매력을 파악한 세계적인 미용 회사 유니레버가 달러 셰이브 클럽사를 무려 10억 달러(1조 1,000억 원)에 인수해서 운영 중입니다.

선택과 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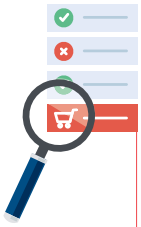
온라인은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보의 과잉이라는 단점도 함께 불러왔습니다. 특히 쇼핑 시장은 이러한 양상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고객은 제품이 너무 많아 오히려 결정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원하는 제품을 정확하게 선별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큐레이션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기구매 시장과 연결됩니다. 세계의 IT 분야를 선도하는 4대 기업을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이라고 하는데, 최근 이들 기업 모두 인공지능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선별하는 능력을 개발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선 친구 찾기, 아마존에선 추천 상품 제시, 넷플릭스에선 취향별 영화 추천, 구글에선 소비자 특성에 맞춘 광고 제공 등 서로 다른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을 개척 중입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이라면 모두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소비자 개인별 맞춤 상품을 뽑아낸다는 점입니다. 정기 구매와 선택/조합 시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충성 고객을 창출해 재구매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국암웨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의 정기 주문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코어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연속 구매하는 ABO들에게 증정품을 제공하는 '정기 주문 프로모션'이나, 신규 ABO들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면 선물을 제공하는 '신규 ABO 재구매 프로모션' 등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SOLUTION
02

디지털 비즈니스로 전환하라

컴퓨터가 일상에 도입된 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온라인 시장을 부정하고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시대의 시장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바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이제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가 사진을 찍고 #식당이름 #이벤트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할인 혜택을 받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더 이상 분리된 공간이 아니고, 비즈니스에 디지털 환경을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온·오프라인의 결합

기업 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으로는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서비스 기업 우버(Uber)가 있습니다. 우버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기업으로, O2O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을 말합니다. 우버 차량을 부르려면 전용 앱에 들어가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소비자 입장에선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카카오택시와 이용 방법은 다를 바 없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느 한쪽이 붕괴되는 순간 존재가 불가능한 기업은 우버뿐이 아닙니다. 최근 활황 중인 음식 배달 서비스업체도 모두 O2O 비즈니스 기업에 속합니다. O2O가 일상화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풍경은 제품의 확인과 구매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온라인 의류 쇼핑몰이 실측 사이즈를 제시하지만 아무래도 옷은 직접 입고 거울을 봐야 핏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결제는 더 저렴한 온라인 상점에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쇼루밍족'이라고 말한다네요. 이런 상황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많은 기업이 쇼루밍족의 존재를 인정하고, 온라인 결제와 오프라인 제품 수령을 연동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월마트(Walmart)의 '사이트 투 스토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마존도 O2O 서비스를 제공하죠. 아마존은 2015년부터 미국의 한 대학에 오프라인 매장을 열어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제품의 수령, 교환, 반품, 환불을 진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O2O는 커다란 택배 시장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식음료와도 연결됩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는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서 미리 휴대폰 앱으로 원하는 식음료를 주문·결제합니다. 도착한 후에는 빠르게 수령하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시간과 감정의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어 인기가 많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에 접속하라

그렇다고 오프라인에서의 비즈니스 공간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선 사람과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오프라인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해서 크게 성장한 기업도 있습니다. 세계의 유니콘 기업 중 6~7위를 오가는 코워킹 스페이스, 위워크(WeWork)가 주인공입니다. 위워크의 시작과 발전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현대에서는 전통적인 직업이 많이 사라졌고, 대신 많은 프리랜서가 프로젝트별로 '헤쳐모여'를 반복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프리랜서들이 뭉쳐서 짧게 존재하는 일종의 대체 기업을 만들었다가,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하는 것입니다. 위워크는 이런 이들을 위해 일정 기간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기업으로, 2010년 미국에서 창업했습니다. 몇 년 만에 위워크가 기업 가치 20조 이상의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위워크가 단순히 공간을 임대해주는 부동산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워크는 IT 인프라를 제공하는 IT 기업이라고 기업 정체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 공간 내부에는 펍이나 카페, 회의실 등 여러 공간을 만들어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비즈니스와 비즈니스의 연결을 돕기도 합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연결선상에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벤모(Venmo)라는 기업을 볼까요? 벤모는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페이스북 등에 등록된 지인들에게

대표적인 코워킹스페이스 '위워크' 의 내부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구매와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 중인 암웨이

수수료 없이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는 무료 송금 플랫폼입니다. 벤모는 오프라인 공간의 바로 눈앞에 있는 상대에게 송금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미국에선 '송금해'라는 말은 'Venmo Me'라고 할 정도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암웨이의 현재는 어떨까요? 암웨이는 2017년 미래 비전 선포를 통해 모바일과 옴니채널(Omni Channel)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선포한 바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모바일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넘나들며 상품을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는 의미답게 암웨이의 옴니채널 시스템은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오픈하는 암웨이 사이트에서는 각 ABC에서 구매한 내역을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제품을 주문하고 오프라인에서 빨리 수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온라인에서 궁금했던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O2O 서비스는 암웨이가 보여주는 온·오프라인 결합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SOLUTION
03

젊은 소비자에게 다가가라

확실히 젊은 소비자는 개성이 강합니다. 상대와 차별화하려는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요 몇 년 사이 '힙스터'라는 용어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힙스터는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스타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젊은 세대는 서로와 연결되고 싶은 이중적 욕망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구심력의 핵이 된 것이 바로 SNS입니다.

그들 자신이 마케팅을 하다

와비파커(Warby Parker)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스쿨 동창생 4명이 2010년에 창업한 안경 유통 기업입니다. 미국의 경영 전문 잡지인 〈패스트 컴퍼니〉는 애플과 구글을 제치고 와비파커를 혁신 기업 1위로 선정했습니다. 와비파커의 안경 가격은 95달러입니다. 안경을 주문할 때에는 와비파커 홈페이지에서 5개의 안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개를 착용해보고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제외한 4개는 반품하면 됐죠. 이 단순한 시스템이 안경 시장의 흐름을 뒤흔든 와비파커의 전략이었습니다. 창업 첫해에 2만 개 정도이던 와비파커의 안경 판매량은 2015년에는 100만 개를 돌파하게 됩니다. 연 매출도 1억 달러가 넘었죠. 전문가들은 와비파커의 첫 번째 성공 원인을 마케팅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와비파커는 마케팅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는 기업입니다. 와비파커의 주된 홍보 마케팅 콘텐츠는 소비자가 직접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소비자는 5개의 안경을 쓴 모습을 자신들의 SNS에 게재하고, 어떤 안경이 더 잘 어울리는지 묻습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프로모션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SNS 영향력은 누구나 잘 압니다. 개인의 영역이라며 비즈니스와의 연결성을 애써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SNS가 젊은 세대를 잡는 열쇠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만의 라이프스타일

이제 시장은 소비자의 연령대에 따라 구획되지 않습니다. 어떤 20대와 20대 사이의 패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은하계가 자리한 대신, 그 20대와 어떤 50대가

취향을 공유하곤 합니다. 문화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연령보다 문화적 성향에 따라 소비 집단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앞서 이야기한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문제와도 직결되지요. 이들의 연령대를 특정할 순 없습니다. 젊은 소비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그들 연령대가 아닌 그들의 취향을 유형별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오히려 최근 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들은 하나의 취향보다는 '가치 지향적인 삶'에 주목한다고 합니다. 와비파커의 성공 요인도 가치 지향적인 기업 정신에서 찾을 수 있죠. 와비파커는 안경 하나를 판매할 때마다 안경 하나를 저개발 국가에 기부하거든요. 와비파커의 분석에 따르면 안경을 구매하지 못하는 저소득자는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안경을 쓸 경우 생산성은 35% 향상된다고 합니다. 신발 회사 탐스(Toms) 역시 신발 한 켤레가 판매될 때마다 한 켤레를 저개발 국가에 지원해 세계적으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발전은 젊은 세대가 단순히 화려한 삶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즐기기 원한다는 통계를 증명합니다.
암웨이 역시 가치 지향적인 삶에 주목하는 기업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체 유기농 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전 세계 저소득 국가 어린이에게 영양제를 공급하는 것도, '파워 오브 5(the POWER of 5)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사회 공헌을 펼치는 것도 모두 암웨이란 기업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암웨이 에너지음료 브랜드 XS에서 공식 후원 중인 요트대회 '52' 슈퍼 시리즈

암웨이의 글로벌 사회 공헌 캠페인 '파워 오브 5'의 홍보 이미지

한국암웨이 역시 국내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꿈을 품는 아이들'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와 비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 리더 육성(Build Young Leader)'을 주요 사업 전략으로 추진하는 암웨이는 다양한 방법으로 젊은 세대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시도 중입니다. 세계적인 요트 대회인 '52 슈퍼시리즈(Super Series)'에 에너지 음료 브랜드 XS가 공식 후원하면서 젊은 층에게 제품 경험과 라이프스타일 경험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성고객층 확보',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디지털 비즈니스 강화', '젊은 소비자층 확대', '가치 지향적 라이프스타일 공유' 등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암웨이가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Richard M. DeVos
1926 ~ 2018

세상과의 의미 있는 이별

암웨이 공동 창업자 리치 디보스의 아름다운 생애

2009년 미국 〈비즈니스 위크〉가 선정한 65세 이상 활동 중인 글로벌 명사 65명에 포함될 정도로 평생 변하지 않는 꿈과 열정을 보이며 사회를 변화시킨 암웨이 공동 창업자 리치 디보스가 지난 9월 미시간주 에이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미 있는 일을 하려는 의지를 지닌 존재입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의 의미 역시 그렇습니다. 나와 사업을 통해 나뿐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것이 암웨이의 철학이지요. 잘 알다시피 그 철학은 두 사람의 청년 사업가에게서 비롯했습니다. 암웨이 가족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리치 디보스(Richard M. DeVos)와 제이 밴 앤델(Jay Van Andel)입니다.

자영업에서 세계적인 '암웨이'가 되기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명이자, 뛰어난 연설가이며 멘토인 리치 디보스. 이 비범한 인물에 관해 서너 줄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People Helping People to Help Themselves)"이란 철학처럼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암웨이를 주목하도록 한 글로벌 현상을 만들도록 한 주인공이었습니다.

리치 디보스는 1926년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Grand Rapids)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공황 시절 네덜란드계 이민 2세대 가정에서 나고 자란 리치 디보스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인 제이 밴 앤델을 만나면서는 사업가적 기질을 다져갔습니다.

젊은 날의 리치와 제이에게는 실패와 거절에도 꿈쩍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에너지와 인성이 있었습니다.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면서 사업을 지속했습니다.

리치와 제이의 사업가적 재능은 건강 기능 식품 회사 뉴트리라이트(Nutrilite)의 판매 사원이 되면서 빛을 발합니다. 두 사람은 뛰어난 영업 실적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밑천으로 1959년 고향인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단일 제품인 다목적 세정제 'L.O.C'를 들고 암웨이를 창업합니다. 암웨이의 초기 시절부터 리치 디보스와 제이 밴 앤델은 둘 다 상품 판매를 넘어 사람들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운동을 창안하는 일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신념은 창업에 대한 열정이야말로 이상적인 미국인과 '미국인의 길(the American Way)'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암웨이의 근원인 미시간주 에이다시

두 창업자의 철학과 신념은 미시간주의 소도시인 에이다에서 군소 기업으로 시작한 암웨이가 현재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ABO와 수천 명의 직원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암웨이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공을 이루도록 선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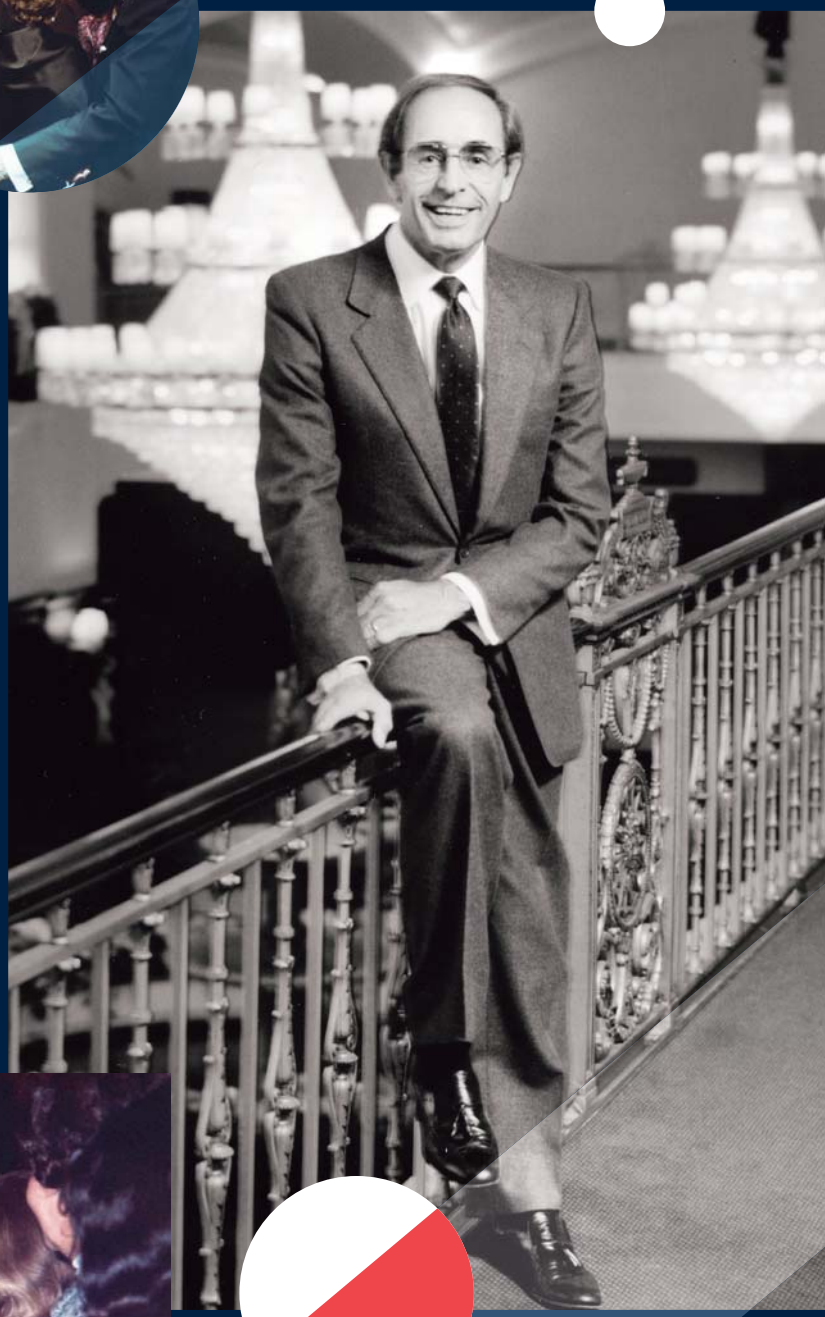
미국 미시간주 에이다 시에는 암웨이 코퍼레이션의 모회사인 알티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티코는 디보스와 밴 앤델 가문의 소유입니다. 암웨이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전문 연구진과 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특허만 해도 800개 이상에 달합니다. 이런 전문 연구진과 기술력이 현재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가정용품 및 주택용품등 다양한 분야에서 450여 종 이상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근간이 됩니다.

리치의 철학을 곳곳에 담다

암웨이 설립 당시부터 1993년까지 대표로 활동한 리치 디보스 회장은 생전에 약 5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억만장자였습니다. 〈포브스〉에서 발표하는 부자 명단에 매년 이름을 올렸으며, 미국 프로농구(NBA) 올랜도 매직 팀의 구단주이기도 했습니다. 생전에 그는 "울면서 앉아 있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라. 끈질기게 해보라. 그리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마라"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세 차례나 심장 수술을 받은 뒤에 그의 인본주의 경영 철학을 담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Compassionate Capitalism)〉라는

저서와 수술 후 심경과 감정을 감동적으로 담아낸 〈내 마음 속의 희망(Hope From My Heart: Ten Lessons For Life)〉을 발표했습니다. 책 속에는 평범한 기독교 서민 가정에서 나고 자라 전 세계 최대 기업을 키워낸 리치 디보스의 일과 기독교 신앙, 가족관, 그리고 평생 동안 지켜온 핵심 가치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리치 디보스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Life Enricher)'을 꿈꾸며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리치의 어느 유명한 연설에서 그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지녀야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서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편견이나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자신의 신념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는 암웨이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자선 사업가로서도 수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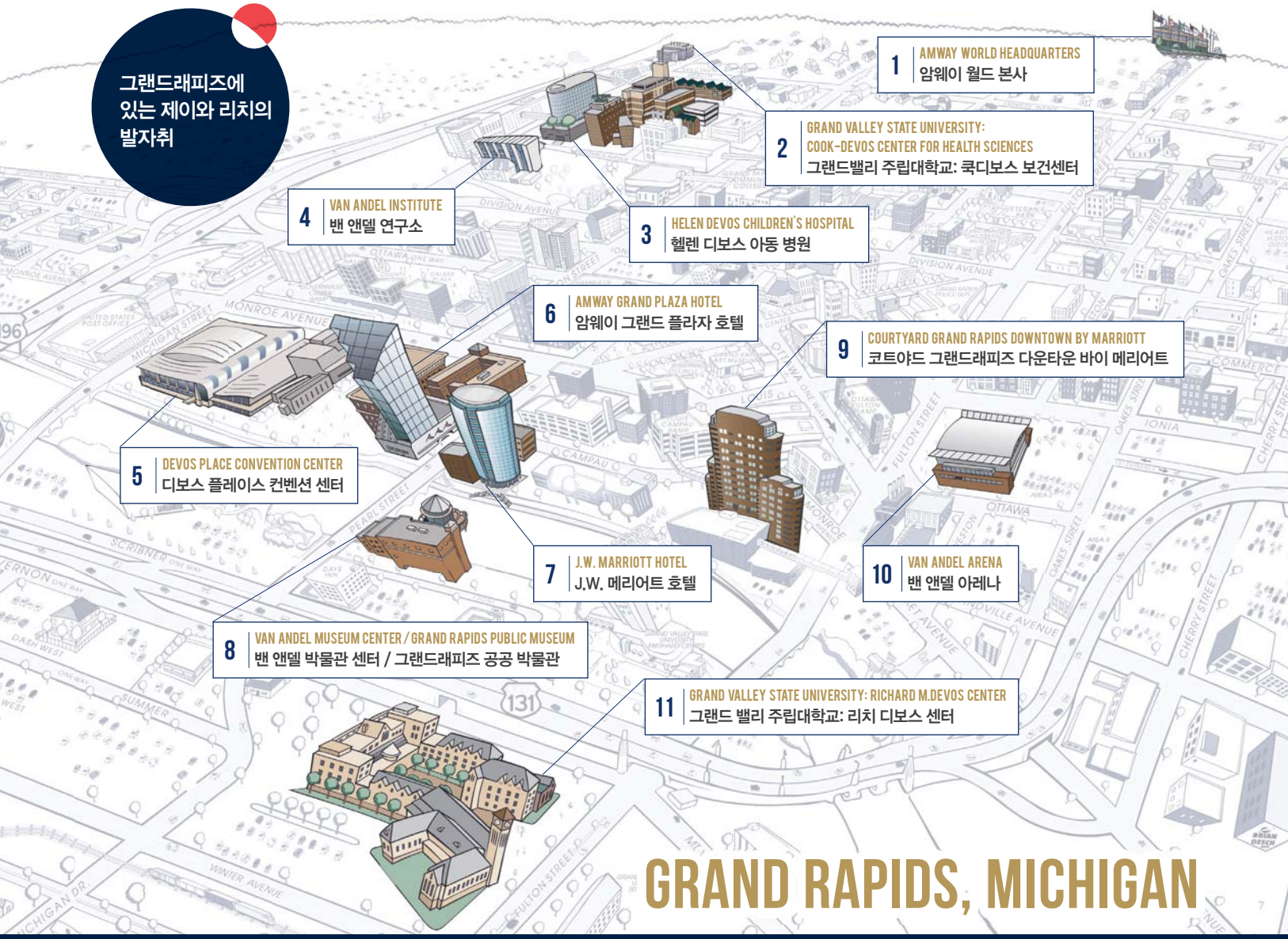
미시간주에서 디트로이트 다음으로 큰 도시인 그랜드래피즈, 그리고 옆에 있는 작은 소도시 에이다는 암웨이 사업자들에게는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도시 곳곳에는 두 창업자의 흔적과 역사, 현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시내 큰 빌딩에 창업자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건물이 많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특히 두 도시의 발전과 복지 등 기업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 가득합니다. 리치 디보스는 부인 헬렌 여사와 '리처드 앤 헬렌 디보스 재단'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그는 뉴 그랜드래피즈 위원회 회장으로서 디보스 공연홀 건립 등 그랜드래피즈 시내 중심가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했습니다. 디보스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 및 헬렌 디보스 어린이 병원 설립 등 다양한 지역사회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한때 플로리다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이들 부부는 올랜도 매직 청소년 재단을 통해 매년 수많은 어린이에게 지역사회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부와 자선 활동을 인정받아 자선 원탁 회의의 윌리엄 심슨 자선 활동 리더십 상(William E. Simon Prize for Philanthropic Leadership)과 헤리티지 재단의 클레어 부스 루스 상(Clare Boothe Luce Award)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사회와 세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기여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의 신념은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암웨이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격려가 리더십과 성장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것에서도 긍정을 찾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로 살고자 결심한다면 우리 자신과 사회, 세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치 디보스

그랜드래피즈에 있는 제이와 리치의 발자취



GRAND RAPIDS, MICHIGAN

1 AMWAY WORLD HEADQUARTERS

암웨이 월드 본사

리치 디보스와 제이 밴 앤델이 설립한 세계 최고의 직접 판매 회사의 본사

2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COOK-DEVOS CENTER FOR HEALTH SCIENCES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 쿡디보스 보건센터

강의 및 연구실, 회의실과 랩 등 그랜드 밸리 주립 대학의 건강 관련 연구직을 배출할 수 있는 연구 공간

3 HELEN DEVOS CHILDREN'S HOSPITAL

헬렌 디보스 아동 병원

웨스트 미시건 주의 유일한 어린이 병원. 중서부에서 가장 큰 어린이 암 및 혈액 질환 프로그램 운영

4 VAN ANDEL INSTITUTE

밴 앤델 연구소

국제적인 과학연구 시설로 중증 질병에 대한 연구에 집중

5 DEVOS PLACE CONVENTION CENTER

디보스 플레이스 컨벤션 센터

다양한 컨벤션 및 공공 행사가 열리며, 오케스트라와 오페라, 발레 컴퍼니가 있는 디보스 공연홀 보유

6 AMWAY GRAND PLAZA HOTEL

암웨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1913년 지어진 호텔을 1981년 암웨이에서 인수해 운영하고 있는 4성급 럭셔리 호텔

7 J.W. MARRIOTT HOTEL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래피즈 시의 발전을 돕기 위해 리치에 의한 대규모 공동체 투자 프로젝트

8 VAN ANDEL MUSEUM CENTER / GRAND RAPIDS PUBLIC MUSEUM

밴 앤델 박물관 센터 / 그랜드래피즈 공공 박물관

1994년 개장, 세계 최대의 긴수염 고래와 1928년 설치한 회전 목마 보유

9 COURTYARD GRAND RAPIDS DOWNTOWN BY MARRIOTT

코트야드 그랜드래피즈 다운타운 바이 메리어트

그랜드래피즈 시 다운타운 중심부인 플라자 타워 건물 내에 위치한 호텔

10 VAN ANDEL ARENA

밴 앤델 아레나

아메리칸 하키 리그팀인 그랜드래피즈 그리핀스 팀의 홈 구장으로 매년 1백여만 명이 방문

11 GRAND VALLEY STATE UNIVERSITY: RICHARD M.DEVOS CENTER

그랜드 밸리 주립대학교: 리치 디보스 센터

리처드 앤 헬렌 디보스 재단의 후원으로 건립했으며, 인근 교육기관 등에도 지속적인 후원 진행

Amway

|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세계판매 1위

DNA보호를 위한 뉴트리라이트의 생각 더블엑스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유해산소가 세포 속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식물영양소(부원료)를 담은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항산화를 통해 DNA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85년 식물영양소 과학

NUTRILITE®

*한국인 대상 인체적용연구를 통해 더블엑스의 섭취가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표로서 DNA와 LDL 산화적 손상 유의적 억제 확인) YJ Kim et al, Nutrients 5, 2013

AN001193

*뉴트리라이트 제품은 한국암웨이 회원의 카운셀링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생산한 원료는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일부 원료로 사용됩니다

*출처: Euromonitor International Limited 2017년 소매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부문, 글로벌 브랜드 시장 점유율 %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www.euromonitor.com/amway-claims를 방문 하십시오

문의:
1588-0080

www.artistry.co.kr

피부에 차오르는
강력한 뉴트리라이트* 파이토 에너지

NEW 아티스트리 시그니처 셀렉트 마스크

뉴트리라이트*의 파이토 컬러 에너지

원료의 재배, 가공, 제품의 완성까지
엄격하게 관리하는 뉴트리라이트*의 파이토 컬러 보태니컬 성분**이
피부 깊숙이 본연의 파이토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퍼스널라이즈드 맞춤 솔루션

기능에 따라 골라 쓰는 맞춤 제형 솔루션은 물론,
특별함을 더하는 풍부한 아로마 향까지

강력한 파이토 컬러의 힘을
지금 경험해보세요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생산해 뉴트리라이트 제품의 일부 원료로 사용하거나, 뉴트리라이트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원료사에서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트리라이트는 자사의 세계적인 비타민 및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입니다) **일부 성분에 한함

좌측 보태니컬 사진은 제품의 일부 함유된 원료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 이미지입니다

ARTISTRY
SIGNATURE SELECT™

AB001698

초미세 정화력

검증된 신뢰와 원칙

또 한번,

좋은 공기의 기준을 높입니다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yond Air

ATMOSPHERE SKY™

미세먼지가 강력해지면
엣모스피어는 더 강력해집니다

| 강력한 초미세 정화력 |
고성능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보다 작은 **0.0024㎛ 입자까지 99.99% 감소***

| 엣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더 편리하게 |
엣모스피어 커넥트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실내 공기 상태 확인 및 작동, 관리**

| 검증된 원칙과 신뢰 |
영국 알레르기 재단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감소성능 인증
유럽 알레르기 연구 재단 인증 획득

Beyond Air
ATMOSPHERE SKY™

*입자 감소성능은 EN1822에 따른 실험 결과 (시험입자 : 염화칼륨, 풍량 : speed 5)로, 공기청정기를 통과한 공기에 한함. 실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018년 6월 기준

AMWAY KOREA

RECOGNITION

Congratulations

2018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모든 ABO들에게
축하와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8 NEW PIN ACHIEVERS

FOUNDERS EXECUTIVE DIAMOND 40

2018년 9월 1일부

홍진희&김종수 ____ 32

FOUNDERS EXECUTIVE DIAMOND

2018년 9월 1일부

홍인희&김우종 ____ 38

FOUNDERS TRIPLE DIAMOND

2018년 9월 1일부

안을현&전숙 ____ 42

TRIPLE DIAMOND

2018년 9월 1일부

이준호&심화영 ____ 44

DOUBLE DIAMOND

2018년 6월 1일부

한규주&김성학 ____ 46

2018년 9월 1일부

김희&남시범 ____ 48

이동훈&박주희 ____ 50

이병한&이은재 ____ 52

장준기 ____ 54

FOUNDERS EXECUTIVE DIAMOND

2018년 9월 1일부

배순천&김태조 ____ 56

안병환&박운숙 ____ 58

홍기붕&유현화 ____ 60

EXECUTIVE DIAMOND

2018년 6월 1일부

김윤화&이병택 ____ 62

2018년 8월 1일부

김태순&서광원 ____ 64

조영주&차태범 ____ 66

주용석&이지현 ____ 68

2018년 9월 1일부

류지민 ____ 70

박나현&최운철 ____ 72

박형진&송진숙 ____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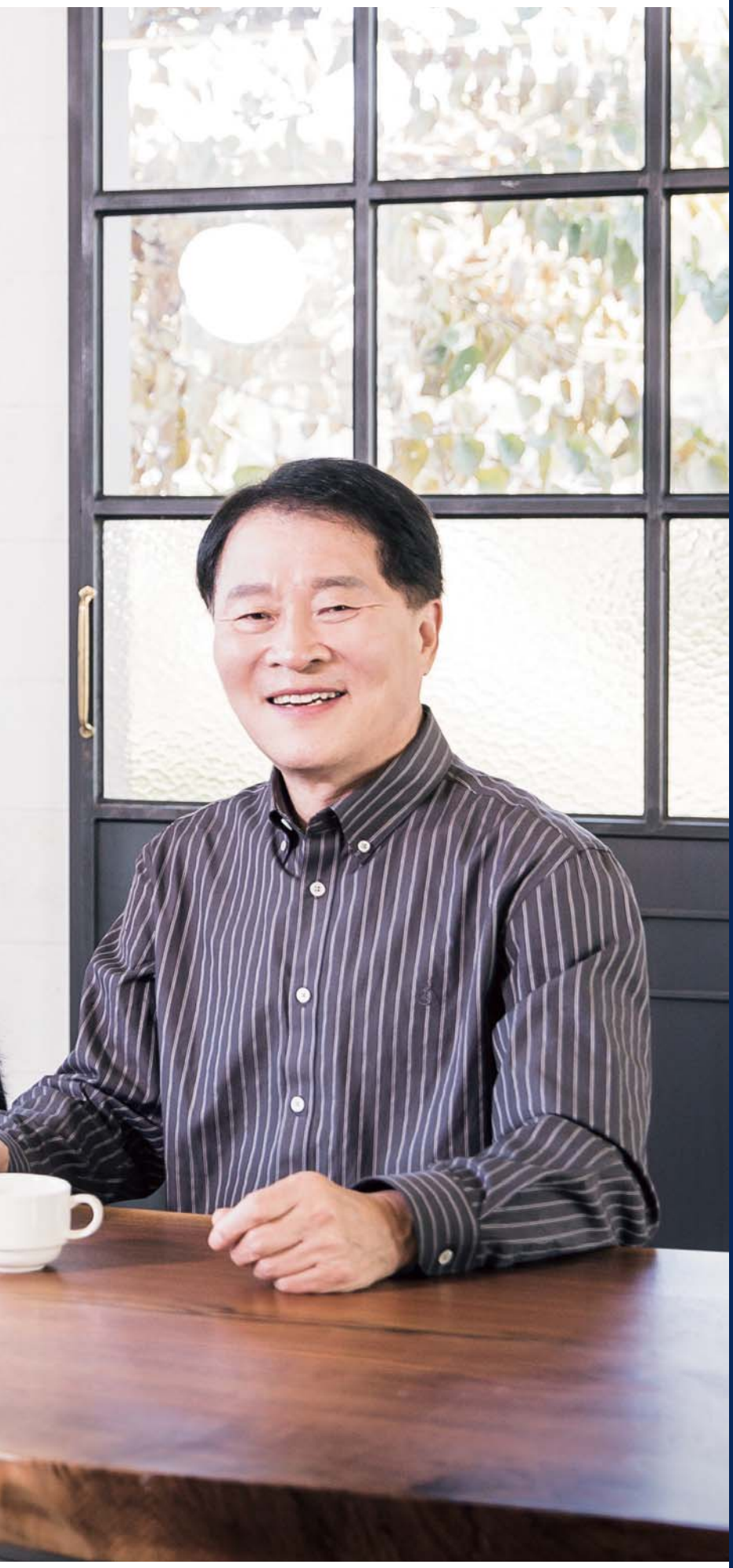
이영은&방중하 ____ 76

FOUNDERS CROWN AMBASSADOR 40

홍진희&김종수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이루어낸 성취



PROFILE

ENTRY 1993. 12. 23 __ PLATINUM 1995. 01. 01 __
EMERALD 1995. 07. 01 __ FOUNDERS EMERALD 1997. 09. 01 __
DIAMOND 1998. 09. 01 __ EXECUTIVE DIAMOND 2000. 09. 01 __
DOUBLE DIAMOND 2001. 09. 01 __
FOUNDERS DOUBLE DIAMOND 2002. 09. 01 __
TRIPLE DIAMOND 2002. 09. 01 __
FOUNDERS TRIPLE DIAMOND 2003. 09. 01 __ CROWN 2004. 09. 01 __
FOUNDERS CROWN 2009. 09. 01 __ CROWN AMBASSADOR 2011. 09. 01 __
FOUNDERS CROWN AMBASSADOR 2014. 09. 01 __
FOUNDERS CROWN AMBASSADOR 40 2018. 09. 01

__ 20여 년 전, 홍진희 리더는 대기업의 지점장인 남편을 쫓아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서 생활하던 중 암웨이를 만났다. 5년간 노력해서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으려는 것이 그녀의 첫 목표였다. 김종수 리더의 월급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학원비 정도는 보태겠다는 의도였다. 작고 평범한 꿈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그녀의 시작은 미약했다. 그런데 그 이후는 달랐다. 많은 사람들은 작은 꿈을 이룬 후 안주하거나, 새로운 꿈으로 이어지는 여정의 어느 순간에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홍진희·김종수 리더는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20년 넘게 꾸준히 전진해왔다. 그렇기에 남들과 마찬가지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남들과 달리 적당함을 넘어선 창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첫 목표는 아이들의 학원비였지만, 암웨이의 교육장에서 홍진희 리더는 끊임없이 내면을 충전했다. 그녀는 늘 배우려고 했고,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훌륭한 사업가로 변모해갔다. 1993년부터 8년간 꾸준히 변모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김종수 리더는 암웨이에 인생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01년, 27년을 바친 직장에 사표를 던졌다. 상무 진급 18일 만의 일이었다. 과감한 결정이었고, 옳은 결단이기도 했다. 부부가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면서 가족의 의미는 하루하루 더 깊어졌다. 꾸준히 쌓아올린 시간과 노력은 경제적인 여유로움을 선물했다. 정신적이고 재정적인 풍요로움은 영적인 성숙함으로도 이어졌다. 홍진희·김종수 리더는 암웨이를 통해 진짜 여유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다 나은 삶을 살게 해준 암웨이는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나 다름없었다. 이 기회를 꿈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과 파트너들에게 흘려보내기로 결심했다.

누구나 알지만 쉽게 가지 못하는 바른 길

__ 홍진희·김종수 리더는 한번 잡은 파트너의 손은 절대 놓지 않는다. 사람은 그 자체로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소 더디더라도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보듬어 안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 홍진희·김종수 리더의 신조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노력은 차곡차곡 쌓였고 네트워크는 더 넓고 탄탄하게 구축되었다. 이건 건물을 올릴 때 지반을 다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 깊이 땅을 파고 더 넓게 지반을 다지느라 시간은 더 많이 걸렸지만 더 높고 더 튼튼한 건물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내세우는 이들의 행보는 옳았다. 하지만 좀 더 바른 길에 대한 탐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에메랄드 시절의 홍진희 리더는 사업 설명회 도중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다. 암웨이를 시작하고 25년이 흐른 지금도 사람을 만날 때면 더 충실하게 상대를 섬길 방안이 없는지 그녀는 더 깊이 고민한다. 김종수 리더는 암웨이 사업처럼 쉬운 일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약간의 꼼수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쉬운 일을 쉽지 않게 풀어낸다. FCA 40의 성취는 그 우직함의 결과다. 암웨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사업이다. 꼼수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순간적으로는 빠르게 보이는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바른 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길이다. 홍진희·김종수 리더가 밝히는 성공의 비밀은 간단하다. 기본에 충실할 것. 당장의 결과를 보지 못해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 이제 막 끝낸 일을 다시 시작하는 끈기를 가질 것.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할 것의 네 가지가 전부다. 어쩌면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구나 아는 그 사실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홍진희·김종수 리더는 시간과 노력으로 사랑을 쌓아왔다. FCA 40이 된 이들을 보면서 새삼 되뇌게 된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MOMENTS

1993. 12
암웨이 사업 시작
한 우물만 파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우리 가정에는 직장의 급여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서 보너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998. 09
다이아몬드 성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홍진희 리더가 누구나 부러워하던 뉴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큰 무대에 올랐죠. 사업뿐 아니라 인생이란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01
회사 사직과 전업
정년까지 간다고 생각했던 직장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임원직을 사직하기로 한 결심은 암웨이 사업의 큰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1. 11
호주 케언스 리더십 세미나
암웨이 사업을 통해 가족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제대로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
패밀리 비즈니스가 된 암웨이
가장 소중한 아들과 딸이 암웨이의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족 사업이 시작되면서 온 가족이 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 09
FCA 40 성취
40포인트 FCA 핀을 달성했습니다. 71세와 61세에 최고 하이 핀에 도전해서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취는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홍진희, 김종수를 말하다

__ 김종수 리더는 사랑이 많고 따뜻해요. 자신의 온기를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잘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융통성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27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각이나 결근을 한 번도 한 적 없으니,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한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 꾀를 부리거나 나태해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죠. 아마 그건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생겨난 장점일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김종수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런 삶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린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의 목표만 보고 꾸준히 나아가는 그의 우직함이야말로 저희가 이루어낸 성취의 주춧돌이 아닐까 합니다.

김종수, 홍진희를 말하다

__ 홍진희 리더와 결혼한 지 38년이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을 함께 살아왔는데 무엇보다도 홍진희 리더는 지혜롭고 근본이 선한 사람입니다. 암웨이를 통해서 사업가로 성장했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자신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파트너들에 대해 조급해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 변화를 기다려줍니다. 성과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이라면 빠르지 않아도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구를 만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매일매일 조금씩 넓혀갑니다.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로서도, 그리고 파트너로서도 사랑이 늘 흘러넘치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트너들에게도 같은 느낌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진희 · 김종수가 ABO에게 보내는 말

홍진희에게 암웨이는 '사랑'이다

__ 암웨이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관계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선 80대 노인도 성공할 수 있고, 20대 청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유리한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사람마다 모두 다른 인성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암웨이 사업의 비법은 사랑입니다. '낮아지면 올라가고, 작아지면 커지고, 내가 죽으면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사랑은 상대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잘못하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내고 재촉하기보단 인정하고, 포용하고, 기다리세요. 잘못된 길을 간다고 모진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대로 된 길을 가는지 잘못된 길을 걷는지, 그 자신이 가장 먼저 압니다. 꾸짖고 비난하니까 삐뚤게 가는 것이지, 사랑으로 대하는데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만이 그 사람을 제대로 된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암웨이는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함께하기 위해선 진심을 담아 상대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종수에게 암웨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__ 암웨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으로 리스크가 없다는 사실을 꼽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시작한 만큼 쉽게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웨이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줍니다. 첫발을 디딘 후의 성공 여부는 ABO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성공합니다. 암웨이는 어쩌면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마음으로 도전해서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기회를 잡았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파트너들에게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스폰서의 핀업이기 때문입니다. 스폰서가 도전해서 이루어내는 모습은 파트너들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암웨이의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40포인트를 이루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 도전할 겁니다. 꿈을 꾼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젊어도 꿈이 없다면 이미 노인입니다. 암웨이는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닌 시스템 사업입니다. 혼자라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함께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힘이 납니다.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꿈꾸고, 더불어 꿈을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SPECIAL MEMORIES

홍진희 · 김종수 FCA40의 삶의 단편들

1

2

3

4

1 새롭게 론칭한 아티스트리 스튜디오 부스 앞에서.
2 패밀리 파트너들과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와 성취를 축하했다.
3 김일두&오영옥 리더님께는 항상 고마운 마음이 앞선다.
4 진정희 리더님 덕분에 암웨이를 만날 수 있었다.

파트너가 바라본 탑리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중용〉의 한 구절을 보면 홍진희 리더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어쩌다 반찬 하나라도 가져다 드리면 통이 그냥 안 돌아와요. 통 안에 이런저런 메모가 담기기도 하고…. 홍진희 · 김종수 리더님은 어떤 모임에도 늘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 가세요. 두 분 모두 사업적인 것보다 올바른 생각이나 인성, 영성을 강조하세요. 리더님들 스스로도 그런 마음가짐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연이 닿은 이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늘 챙겨주세요. 누가 힘들어하는지 늘 눈여겨보시는 모습도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한결같으세요.

신영주&김진용(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홍진희 리더님께선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파트너 한 명이 오는 것을 한 명의 인생이 다가온다고 받아들이세요. 올해는 폭염이었고, 다이아몬드 인정식의 준비도 덥고 습한 날씨에서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드레스를 골라야 했기 때문에 드레스 숍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을 섭외해야 했는데요, 탑리더님께선 비를 맞고 모든 가게를 뛰어다니며 파트너들을 일일이 챙겨주셨어요. 늘 그렇게 먼저 섬기려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김종수 리더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에요. 위트와 센스까지 갖춘 따뜻함이라서 김종수 리더님이 계신 곳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져요.

서영&박진기(다이아몬드)

암웨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사업이고, 홍진희 리더님처럼 커다란 네트워크를 가지려면 정말 많은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사업적으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홍진희 리더님은 어떠한 사람도 늘 품고 가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인내하면서 말이죠. 김종수 리더님은 솔선수범의 전형이에요. 교육장에도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이 김종수 리더님이에요.
또 파트너들에게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시죠.
리더십 세미나에 가면 누구라도 쉬거나 즐기려는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홍진희 · 김종수 리더님은 순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오세요.

김혜숙(파운더스 사파이어)

SPECIAL THANKS TO

"다이아몬드도 꿈 꾸지 못했던 저희 부부에게 FCA 40 포인트라는 귀한 성취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 시스템을 통해 성장과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일두&오영옥 리더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또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주신 진정희 리더님께도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25년 동안 믿음과 신뢰로 함께해준 모든 파트너분들께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 무엇보다 어릴때부터 엄마 아빠가 사업한다고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도 너무 반듯하고 바르게 자라준 우리 아들과 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사랑해주는 좋은 사위에게도 늘 고맙고 든든한 마음 전합니다."

FOUNDERS CROWN AMBASSADOR

홍인희&김우종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마음으로 쌓아올린 성취

PROFILE

ENTRY 1994. 06. 16 __ PLATINUM 1996. 01. 01 __
EMERALD 1997. 05. 01 __ FOUNDERS EMERALD 1998. 09. 01 __
DIAMOND 1999. 09. 01 __ EXECUTIVE DIAMOND 2000. 09. 01 __
DOUBLE DIAMOND 2001. 09. 01 __
FOUNDERS DOUBLE DIAMOND 2002. 09. 01 __
TRIPLE DIAMOND 2002. 09. 01 __
FOUNDERS TRIPLE DIAMOND 2003. 09. 01 __ CROWN 2010. 09. 01 __
FOUNDERS CROWN 2014. 09. 01 __ CROWN AMBASSADOR 2014. 09. 01 __
FOUNDERS CROWN AMBASSADOR 2018. 09. 01

__ 부부는 닮는다지만 홍인희·김우종 리더는 참 다르다. 그건 이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홍인희 리더는 세 아이를 키우는, 따뜻하고 평범한 주부였다. 김우종 리더는 증권사의 경제연구실에서 기업 분석을 하던 전문가였다. 과거의 이력만 봐도 사람의 온도 차가 느껴진다. 사업의 목표도 달랐다. 홍인희 리더는 아이들에게 책 한 권을 사줄 추가 수입 때문에 암웨이를 시작했고, 김우종 리더는 몇 달 동안 암웨이의 사업 타당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큰 성공이 가능하겠다는 판단으로 몸을 움직였다. 지금도 파트너들은 홍인희 리더라고 하면 따뜻한 엄마의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김우종 리더의 이미지 역시 전업이었던 기업 전문가 모습이다. 실제 20여 년 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들은 늘 자신의 스타일대로 사람들을 후원했다. 홍인희 리더는 감성적으로, 김우종 리더는 이성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홍인희 리더는 늘 발로 뛰고 귀로 들으면서 사업을 진행했다. 김우종 리더는 시대의 흐름과 암웨이 사업이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설명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다. 홍인희·김우종 리더 둘 다 셀 수도 없는 거절을 당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에게까지 거절당하며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래도 많은 거절 속에 약간의 응답이 있었다. 대답해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래서 홍인희 리더는 입버릇처럼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개구리가 되면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커다란 성취를 이루어낸 지금도 홍인희 리더는 20여 년 전 사업을 시작하던 당시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최근 그녀는 집에 손님이 올 때마다 파트너에게 선물 받은 대추를 자랑하느라 바쁘다. 파트너가 직접 농사지은 대추 한 자루의 가치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대추가 더 달게 느껴진다. 엄청난 자산을 구축했지만 그녀는 지금도 사업 초창기의 어려움을 기억한다. 그때 자신의 손을 잡아준 파트너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성취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겉으로 보기엔 달라도 홍인희·김우종 리더는 한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들의 패밀리를 더 큰 한마음으로 묶어내고 있다.

김우종, 홍인희를 말하다

__ 홍인희 리더는 밝아요. 언제 어디에서나 분위기를 밝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녀의 밝은 기운은 가정에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힘을 북돋아줍니다. 마음이 힘든 사람도 홍인희 리더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그녀의 밝음에 전염되어 침체된 기운을 떨쳐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상대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게 비결인 듯합니다. 홍인희 리더는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장점을 찾아내고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그렇게 파트너들에게 힘을 북돋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FCA를 이루고 난 뒤에도 파트너들에 대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죠.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믿음에 감사하며 그들을 성공시키겠다는 약속을 지켜내려고 해요. 아름다운 책임감으로 마음의 빚을 갚아가려는 것이죠.

홍인희, 김우종을 말하다

__ 김우종 리더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에두르지 않고 좋고 싫음을 분명히 표현해요. 잘난 척도 안 하지만 수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우종 리더를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김우종 리더는 자신의 사리사욕에 기대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언제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죠. 파트너님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아줌마인 저를 편안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김우종 리더를 더 좋아해요. 항상 중심을 잡고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남편이 갑갑할 때도 있어요. 그의 솔직함이 만들어낸 어색한 분위기에 당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한 호흡을 고르고 보면 김우종 리더의 방향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김우종 리더를 아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경험일 거예요.

MOMENTS

1995
실버가 되어 확신을 품다
1세, 3세, 5세의 세 아들을 데리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실버 핀이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세상 누구라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2000. 09
하나님을 만나다
평범하기만 한 주부에서 수석 다이아몬드를 이루어냈지만 가슴은 텅 빈 느낌이었죠. 그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만났고, 삶의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0. 09
첫 약속을 이루다
처음 손을 잡았던 파트너 7조가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함께 성공하자는 약속을 지켜냈고 함께 이루었기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2013
새로운 크리스마스
파트너들과 필리핀의 고아원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아무 조건 없이 가난한 동네에 쌀을 선물하는 산타가 됩니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2015
가족과 망중한을 즐기다
아이들과 함께 3주간 이탈리아를 여행했어요. 여행 내내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자고 김우종 리더와 약속했죠. 암웨이 사업으로 이루어낸, 여유로운 추억이었죠.

2018. 09
사랑에 빚지다
FCA 인정식의 축하공연에서 전국 다이아몬드들이 모여 가슴으로 합창하며 저희의 성취를 축하해줬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홍인희 · 김우종이 ABO에게

홍인희에게 암웨이는 '감사함'이다

__ 저는 이렇다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늘 저를 둘러싼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늘 부족함에 미안했고 늘 함께해줌에 감사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내 에너지를 바꿔주는 힘이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는 마음은 팀워크로 이어지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지게 하지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건 스폰서인 형부와 언니들 그리고 파트너들의 사랑과 믿음 덕분이에요. 저도 사랑과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책임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처음처럼 최선을 다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파트너들의 성공을 돕고 싶습니다.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김우종에게 암웨이는 '비즈니스'다

__ 암웨이 사업에서 사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론 안 됩니다. 파트너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암웨이가 경제적 효용성이 없었다면 저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에게 진심을 주는 파트너들을 보면서 그때의 선택이 옳았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얼마 전 다이아몬드들이 저희를 위해 합창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더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로서의 암웨이를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주고받은 상대가 함께 성공한다는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파트너가 바라본 탑리더

홍인희 리더님은 바다로 흘러가는 큰 물줄기 같아요. 오로지 겸손함과 따뜻함, 사랑으로 모든 파트너들을 포용하면서 큰 물줄기를 만드시죠. 김우종 리더님은 정확한 나침반이에요. 늘 파트너 한 명 한 명의 속내까지 알아채면서 그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주세요.

한규주&김성학(더블 다이아몬드)

홍인희 리더님은 권위 의식이 전혀 없고 서민적이면서 늘 용기를 주는 분이에요. 김우종 리더님은 늘 사업에 초집중하고 계세요.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흐름을 늘 고민하면서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찾아가시죠. 더 대단한 점은 두 분께서 서로의 다른 부분을 보충하면서 최고의 시너지를 낸다는 사실이에요.

윤주리&이종섭(수석 다이아몬드)

홍인희 리더님은 탑리더 같지 않게 소탈하세요. 본인이 성공한 이유를 만만해서라고 하실 정도예요. 김우종 리더님은 카리스마 자체죠.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말도록 파트너들을 격려하면서 경기의 흐름에 맞는 사업 방향을 논의하세요. 처음에는 그분들의 이유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도연&김한석(수석 다이아몬드)

SPECIAL MEMORIES

홍인희 · 김우종 FCA의 삶의 단편들

1

2

1 FCA 인정식에서 다이아몬드 파트너들의 합창을 들으며 감동과 함께 눈물이 흘렀다.
2 패밀리 파트너들과 함께 방콕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FOUNDERS TRIPLE DIAMOND

안을현&전숙

2018년 9월 1일부 / 전남 순천시

MOMENTS

1998. 01
암웨이 사업 결단
학습만 1년 6개월 정도 하고 있다가 제대로 행동하기로 결단했습니다.

1999. 11
하와이 리더십 세미나
부부가 처음으로 꿈같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00. 08. 10
대기업 퇴사
에메랄드 때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11월에는 최초로 생겨난 가족 리더십 세미나로 아이들과 함께 괌에 다녀왔습니다.

2001. 07. 01
다이아몬드 달성
암웨이의 첫 번째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아몬드가 되어 파트너들에게 성공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13. 09. 01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달성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 후 11년 만에 힘든 시기와 과정을 다 이겨내고 이루어낸 핀업이라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8. 05. 01
나누는 삶의 시작
안을현 리더는 5월에 9박 10일로 케냐에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또 전숙 리더는 11월에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 쌓은 기적의 탑

꿈 _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암웨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고 간절해야 합니다. 꼭 암웨이여야만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플랜을 이해하고 나니 보너스체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의 수입이 4년 후부터 영원히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꿈이 이뤄지고 나니 더 큰 꿈이 생겼고, 이제는 파트너들의 꿈이 저희의 꿈이 되었습니다. 2026년에 에이다(ADA)에 파트너들과 함께 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 꿈을 위해 팀워크로 달려가겠습니다.

시스템 _ 시행착오를 피해 가장 올바른 길을 걷는 사업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시스템에 순복하고, 나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로 함께 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암웨이 리더로 변화하고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사업한다면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것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_ 단점보다 장점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섬기자

단점을 보고 비판, 비난, 비교하기보다 장점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리더십은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더 대단하게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섬기는 리더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안을현 리더는 대기업에 재직했고, 전숙 리더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2002년에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 후에, 기회를 놓고 떠나는 파트너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암웨이 사업에 대한 신념이 있었고, 남아 있는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나눔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 생각하는 삶에서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다름에 대한 인정.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팀워크와 인간관계는 모든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안을현 · 전숙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팀워크로 이루어내는 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 진행 방식으로 해내는 팀이기에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생각한 대로 인생은 살아진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암웨이 사업을 하면 삶이 바뀝니다.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기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TRIPLE DIAMOND

이준호&심화영

2018년 9월 1일부 / 대전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심화영 리더는 선생님이었고, 이준호 리더는 중국어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웨이 비즈니스는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산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선택하고 도전할 수 있던 최고의 사업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트워크를 만들기까지의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노력 대비 결과가 적은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과를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기에 희망과 확신,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나눔. 나눌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진심까지 암웨이에서 선물 받았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이기지 말자. 늘 지자는 콘셉트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다른 일은 수입을 창출하는 일이라면 암웨이 사업은 자산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가 없듯 이 비즈니스에서 스폰서님이 없었다면 비즈니스를 알지도 알아듣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생각이 늙지 않는 것, 그리고 꿈을 잃지 않는 것!"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알래스카에서 플라잉 낚시를 하고, 북유럽에서 오로라를 보면서, 진짜 자유를 만끽하겠습니다.

간절함을 담아, 팀워크를 기반으로 도전하여 이루어낸 성취

간절함 __ 간절함을 이기는 능력은 없다

암웨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점포도, 전문성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유일한 준비물은 간절함뿐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정확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립한 목표를 지향해서 물러서지 않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간절한 사업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대물림되는 가난의 고리를 끊고 싶었습니다. 심화영 리더의 모성애가 사업을 발전시켜야 할 간절한 추진 동력이었던 듯합니다. 절실한 마음이 사업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간절함의 크기가 노력의 크기를 정하고, 노력한 만큼 성취가 따라오는 정직한 공간, 그곳이 암웨이입니다.

도전 __ 모든 것은 결심하는 순간 시작되고 이루어진다

성공은 기회와 준비의 만남입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기회를 단단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성취를 향한 시작이 결단입니다. 어떤 분은 꾸준히 도전하는데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건 초반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초기의 결심을 3개월 이상 끌고 가야 합니다. 초집중하는 3개월이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전은 자신에게 전쟁을 거는 일입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도전합시다. 승리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팀워크 __ 꿈은 함께일 때 더욱 밝게 빛난다

암웨이는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입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은 미약하지만 물방울이 모이면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러합니다. 함께하면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암웨이 사업의 기본이고 전부이며 성공의 비밀입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환하게 빛나고 더욱 높이 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한 쪽의 날개로 날 수 없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리더의 스피드가 팀의 스피드니까요.

MOMENTS

2004. 06
ABO 등록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 날. 꿈, 희망, 도전. 그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2005. 12
첫 NCA
코타키나발루로 리더십 세미나를 떠났습니다. 암웨이 사업에서 열린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2009. 03. 01
다이아몬드 달성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2013. 09. 01
수석 다이아몬드 달성
아홉 레그 파트너와 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하는 만큼 행복도 커집니다.

2017. 09. 01
더블 다이아몬드 달성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함께 외친 동반 성장의 결과였습니다.

2018. 09. 01
트리플 다이아몬드 달성
섬기는 리더십을 통한 진정한 팀워크의 완성을 확인한 순간입니다.

DOUBLE DIAMOND

한규주&김성학

2018년 6월 1일부 / 서울시

암웨이와 함께 꿈을

꿈 __ 언제나 꿈꾸게 하는 암웨이

어른이 되면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서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이 없으면 현실에 주저앉게 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꿈을 꾸기 위해선 꿈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합니다. 암웨이가 없었다면 평범한 목회자로 하루하루의 사역에 만족해야 했을 겁니다. 가족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어려웠을 것이고, 세상에 행사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도 작았을 겁니다. 꿈을 꾸어야 합니다. 암웨이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보상 __ 하는 일보다 보상이 큰 사업

생계뿐 아니라 꿈까지 해결해주는 일은 드뭅니다. 꿈과 비전이 명확하다면 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고 평범한 삶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용기를 내면 암웨이에서 현장과 동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더욱 열심히 하려는 선순환 구조도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는 일은 같지만 보상은 계속 커집니다. 꿈은 이루어지고, 파트너의 꿈까지 이루어줍니다.

리더십 __ No Vision, No Future, No Leader

스폰서가 도전해야 파트너가 따라옵니다. 처음엔 버거워도 누군가 도전해야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비전이 없으면 내일을 설명할 수 없고,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내일을 설명하지 못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3년 단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파트너 모두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한규주 리더는 영어학원 강사 겸 교회 전도사였고, 김성학 리더는 지금도 목사입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점이 마음을 끌었나요?

한규주 리더는 노력한 순서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김성학 리더는 더욱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끌렸지요.

사업 초기에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계속 함께하면 좋을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게 될 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떠나도 남은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했어요.

암웨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죠?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지요.

더블 다이아몬드 핀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책임감입니다. 리더들과 사업, 가족 등에 대한 책임감이 사업에 힘을 주지요.

미래의 두 분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3년 전이나 5년 전에 비해 수입은 늘어났지만,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삶의 모습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미래에도 파트너들과 사업하고 봉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다른 이에게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죠?

가능하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다른 일보다 가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MOMENTS

2002
부부가 함께한 성지순례
결혼 후 이스라엘로 떠난
성지순례. 이후 암웨이에서
맞이한 삶의 중요한 순간과
연결됩니다.

2007
산야로의 첫 리더십 세미나
이 여행으로 김성학 리더의
선입견과 반대가 해소됐습니다.

2012. 08. 01
다이아몬드 달성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한규주 · 김성학 팀이라는
정체성이 확립되었습니다.

2013
파트너들과의 봉사활동
2011년에 시작한 필리핀 고아원
봉사에 2013년부터 동료
리더들과 파트너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2015. 07. 01
수석 다이아몬드 달성
파트너들과 마음이 하나로
모였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2016
딸과 함께 하는 첫 성지순례
2002년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스라엘로 부녀가 성지순례를
가, 2002년과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순간이었습니다.

DOUBLE DIAMOND

김희&남시범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MOMENTS

- **2001**
  사업 초반의 수많은 거절들
  치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300가구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거절들은 저를 더 단단하게 다져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04. 07**
  전업으로 전환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초등학교 교사를 사직하고 암웨이를 선택했습니다. 아직 가정이 없어서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 **2013**
  다이아몬드로의 올인
  파운더스 플래티늄에서 다이아몬드로의 결단을 내렸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14년 9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 **2015. 01**
  결혼
  부부 사업으로의 전환이자 진정한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 **2017. 08**
  산모의 미팅장 참석
  보통 출산 후 한동안 몸조리 기간을 보내지만, 둘째를 출산한 후 5일 만에 김희 리더는 미팅장에 섰습니다. 그 마음이 파트너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2018. 09. 01**
  팀이 함께하는 성공
  파트너 3조가 동시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함께 이루어낸 성취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꿈을 꾸고 꿈을 키우고 꿈을 나누는 꿈의 전도사

꿈 __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꿈

대개의 꿈은 열등감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남시범 리더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술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지갑을 함부로 열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약간의 차이가 남자로서의 자존심에 생채기를 냅니다. 그렇다고 부조리한 방법으로 돈을 벌 뻔뻔함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암웨이를 시작한 이유는 한 달에 20만~30만 원을 더 벌고 싶은 욕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술값 한 번을 더 계산하고 싶은 욕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작은 욕구들이 모여 초등학교 교직을 박차고 나오도록 했습니다.

꿈 __ 꿈은 새로운 꿈을 향한 디딤돌

꿈꾸고 좌절하고, 다시 꿈꾸고 좌절하고, 다시 꿈꾸고 좌절하길 반복합니다. 꿈이란 눈앞에 놓인 한 잔의 음료를 들이키듯 간단하고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속되는 도전과 좌절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지난한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현실이 된다고 꿈이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이 된 꿈은 새로운 꿈으로 이어집니다. 꿈이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고, 도전에 실패해도 다시 꿈을 꿀 수 있으며, 이루어진 꿈은 더 큰 꿈을 만들어냅니다. 도전해서 행복하고, 이루어내서 행복하고, 무엇보다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꿈 __ 원대한 꿈을 향해서, 다시 또 출발

평범하고 가난한 우리 부부가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자유로운 삶을 우리만 누리는 건 사치이자 낭비입니다. 다른 일로도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부자가 될 뿐, 함께 부자가 되는 일은 암웨이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100명의 부자를 만들려는 남자와 100개의 가난한 교회를 후원하려는 여자가 만나서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려 합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고, 더 큰 꿈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암웨이의 창업 정신을 계승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기회를 나눌 것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희 리더는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했고, 남시범 리더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파트너와 소비자가 생기지 않을 때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미팅에 원칙적으로 참석하면서 이겨냈습니다. 원칙적이란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가 하기로 한 일을 하고,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미팅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나 중심에서 팀과 그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내려놓음. 더 취하려고 하기보단 내가 한 발자국 물러나야 합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더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처음 시작할 때의 제 모습. 소비자 한 명을 만들기도 버거워하던 제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꿈이 크다면 현실은 문제 되지 않는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인간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니까요.

DOUBLE DIAMOND

이동훈&박주희

2018년 9월 1일부 / 부산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부부 모두 회사원이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주어진 삶에 적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설정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회사생활이 종업원의 삶이라면, 암웨이는 사장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보다 그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대의 꿈을 먼저 이해하고 이루려고 함께 뛰었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이는 누구인가요?

단연 파트너들입니다. 그들이 목표를 놓지 않고 함께 뛰었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이동훈 · 박주희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가는 팀.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믿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요, 믿음에 대한 보상은 믿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00명의 파트너를 다이아몬드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믿음으로 쓰는 변화의 역사

다름에 대한 이해 __ 틀림과 다름의 차이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3년간 이어가면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니까 문제가 풀리더군요. I에서 YOU로 인칭을 바꾸니 일이 풀렸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 그것이 암웨이의 본질입니다. '틀리다'거나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다르다'는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사파이어를 거쳐 시간이 지나고 핀이 바뀌어갈수록 나보다 그들의 의미가 커집니다. 팀 사업이니까 당연한 일이겠죠. 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 사이의 소통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사람 __ 언제나 맨 앞은 사람, 그리고 사랑

다름을 인정한다면 상대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상대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불어 이겨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함께 삶을 꾸며가기 위해선 진심이 통해야 합니다.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꿈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실적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믿음 __ 강력한 추진력의 또 다른 이름

암웨이의 보상은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의 결과입니다. 암웨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할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미래를 처음부터 완전히 믿기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믿어져도 괜찮습니다. 믿음을 점점 키워내고 지켜내면 되니까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꿈을 반복해서 되뇔 수도 있고, 부단히 공부할 수도 있고, 성공자의 모습을 지켜보며 간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잘 믿느냐는 여러분의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MOMENTS

2005. 05
마음의 출발
회원번호가 아닌 제대로 사업을 결심한 날.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을 나오셨습니다. 제대로 사업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5. 10
부부 사업의 시작
10월에 실버 프로듀서를 달성한 후 부부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의 작은 어려움을 넘어 이동훈 · 박주희호가 본격적으로 출발한 거죠.

2010. 03. 01
사파이어 달성
그전까지는 내가 하는 사업이었는데, 사파이어부터는 상대와 함께 하는 비즈니스로 바뀌었습니다.

2012. 06. 01
다이아몬드 달성
경영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웨이가 일이 아닌 사업이 되었습니다.

2016. 09. 01
수석 다이아몬드 달성
파트너들이 해내도록 돕는 걸 넘어서 저와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성공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흐뭇합니다.

2018. 09. 01
더블 다이아몬드 달성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공해나갈 수 있다는 방향을 잡게 되었습니다.

DOUBLE DIAMOND

이병한&이은재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을 만들다

교감 _ 긍정의 마음을 만드는 기초

암웨이는 관계의 비즈니스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는 기대, 실망, 좌절, 분노 같은 감정들을 계약과 종속의 논리로 풀어냅니다. 하지만 암웨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마음을 주고받는 사업입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긍정적인 감정의 움직임으로 결과를 빚어내는 일입니다. 교감은 감정이 긍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첫 단추입니다. 암웨이의 시스템은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배워온 리더십과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교감하세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교감하면 오해는 쌓이지 않고 신뢰는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결과가 영글어갑니다.

감사 _ 불평이 아니라 행복을 향하는 방향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행복한지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희는 건강해서, 가정이 화목해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상대에게 베풀 수 있어서 오늘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서로에게, 우리 자신에게, 암웨이에 늘 감사하며 더욱 행복한 내일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행복을 잊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을 잊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문제만 보입니다.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는 대신 상대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고 불평불만만 쌓입니다. 우리는 보는 만큼 살게 됩니다. 감사의 눈은 행복의 삶을 찾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인내 _ 성공의 열매를 숙성시키는 인고의 시간

우연히 만들어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인내에서 나옵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다르니까 같은 행동을 놓고도 서로 다른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그 모든 순간에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가리려 해서는 관계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언제나 누군가 한 명은 인내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모든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모든 질문은 시간이 답을 줍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열매는 꽃이 지는 인내와 숙성의 시간 이후에 맺힙니다. 늘 인내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또 인내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겨납니다.

MOMENTS

1994. 12
결혼
인생의 동반자뿐만 아니라 함께 꿈을 설계하고 이뤄가는 사업의 파트너까지 만난 순간입니다.

2001. 05
암웨이 사업의 결단
회사 생활이 가장 힘들었기에 오히려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라는 수단을 제대로 알아보는 시기였습니다.

2004. 03
전업
이병한 리더가 전업을 결정했습니다. 남들은 무모하다고 했지만 성공해야만 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2004. 05. 01
에메랄드 달성
가장 기본적인 먹고사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다가 연말 보너스로 행복하게 외식하던 순간이 지금도 선합니다.

2007. 03. 01
다이아몬드 달성
성공자 대열에 입성했습니다. 전업에 부정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금일봉을 전달받기도 했습니다.

2008. 12
자가 입주
암웨이에서 받은 보상만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실내를 꾸몄습니다. 완전히 자력으로 이룬 결과이기에 의미가 더 깊습니다.

2015. 09. 01
암웨이 재도약 결심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된 후 꿈꾸던 라이프스타일을 만끽하다가 암웨이 2탄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병한 리더는 금융업에 종사했고, 이은재 리더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불확실한 미래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물질과 시간의 풍요. 다른 모든 변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와 명분을 부부가 잘 소통한 것이겠죠. 우리가 먼저 목표라는 개념을 가져야 파트너들에게도 꿈을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파트너들이죠. 본보기가 되려고 뛴 거니까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사람이 가장 큰 보배다."

가깝거나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파트너들의 꿈에 더 집중하면서 그들이 저희와 같은 삶을 살 때까지 계속 도우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더 많은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게 되겠죠.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현재 그들이 가진 수단으로는 꿈조차도 찾을 수 없고, 꿈이 있어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니까요.

DOUBLE DIAMOND

장준기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김포시

MOMENTS

1996. 05
글로벌 행사 확인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큰 행사를 눈으로 봤습니다. 암웨이가 대단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1997. 04. 01
실버 핀 달성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암웨이에는 세 번의 즐거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단추를 끼운 느낌이었습니다.

2006. 05. 05
암웨이 사업 포기
거울 속의 자신과 자문자답했습니다. 죽을 만큼 열심히 했지만 안 된다는 생각에 포기를 결심하고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2007
암웨이 사업 재도전
암웨이가 아니라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스폰서님을 찾아갔습니다.

2008. 09. 01
에메랄드 달성
스폰서님께 배우니 10여 년을 해도 안 되던 사업이 1년 6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3. 09. 01
다이아몬드 달성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세 번의 즐거움 가운데 두 번째인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즐거움은 FCA가 되는 것이죠.

단순하고 단단하게 성공을 제련하는 행동가

배움 __ 세상을 보려면 눈부터 떠야 하는 법

평생 톱으로 나무를 베어온 사람에게 전기톱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법을 모르니 더 힘들게 나무와 사투를 벌일 겁니다. 많이들 암웨이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항공기 타이어를 교체하는 건 쉬울까요? 항공기 타이어를 교체하면 자전거 타이어와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도나도 항공기 타이어를 교체해서 많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암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렵다고 고개를 젓지 마세요. 배움 속에 해답이 있으니까요.

행동 __ 단 두 가지 행동이 사업의 전부

암웨이에서의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필요한 제품이 있다면 바꿔 써보라고 권유하는 것. 그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하는 것. 단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둡니다. 배우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울 용기가 있고, 부지런해질 용기가 있다면 사업에 도전해보세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울 곳은 있으나 배움의 깊이가 얕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암웨이에는 이제 깊이 있는 배움의 터가 많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부지런히 행동하면 성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복제 __ 더 많은 사람을 행복의 세계에 초대는 일

배웠다면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복잡한 것을 따라서 하긴 힘들어 합니다. 복제의 제1법칙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함이 가장 강한 힘을 냅니다. 늘 생각을 정리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세요. 저는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의미의) 복수를 할 겁니다. 더 많이 복제하고 더 크게 성공할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웃으면서 죽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울도록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울리기 위해서 살아서 그들을 돕는 것, 그것이 암웨이의 복제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항공정비사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정적인 삶을 꿈꿨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오늘을 살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안 되는데 포기도 못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스폰서님을 만나 깊은 배움을 받으면서 되는 길을 찾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파트너를 인정할 것. 파트너님들께 섭섭함이 있어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암웨이를 통해서만 인정과 보상을 받습니다. 파트너는 무조건 인정하고 돕기만 해야 합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안정성, 지속력, 한계 상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버티기. 성장하지 못할 때에도 사업을 놓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 길을 찾아준 분이니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인생에 재미가 없으면 그 자체는 비극이다. 매일 재미나게 살아라."
– 스티븐 호킹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하니까요. 태어났고 사는데, 이렇게 살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만족하려면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요.

FOUNDERS EXECUTIVE DIAMOND

배순천&김태조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의왕시

MOMENTS

- **2009. 01**
  첫 리더십 세미나
  삿포로로 첫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암웨이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습니다.
- **2012. 07. 01**
  다이아몬드 달성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암웨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비전, 파트너들에 대한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 **2015. 09. 01**
  나누는 삶의 시작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어 천만 원씩 기부하는 나눔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 **2016**
  패밀리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
  자녀와 함께 네팔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자녀들과도 함께 하고 싶은 비즈니스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습니다.
- **2017. 09. 01**
  수석 다이아몬드 달성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어 비전 트립에 다녀오면서 나누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2018**
  케냐 봉사활동
  다시 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나눔의 가치와 컴패션에 대한 목표를 새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안정에서 나눔의 삶으로

자유 __ 재정적 안정에서 더 큰 가치로

암웨이를 시작할 당시, 남편은 가정을 책임지기에 전혀 문제 없는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재정적인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13년이 흐른 지금 그 선택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일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오늘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더 큰 가치에 눈뜨게 해줍니다. 나눔, 자아실현, 하기 싫은 일에 대한 거부 등 모든 자유가 현실의 경제적 자유에 뿌리를 둡니다. 암웨이는 자유를 주는 사업입니다. 재정적 안정에서 의식의 변화까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보상입니다.

믿음 __ 보이지 않는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

세상에 거저 얻을 수 있는 보상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농사를 짓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뿌린 씨앗에서 곧장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진 않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을 이겨내야 하고, 때로는 말라붙은 대지에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지금은 열매를 볼 수 없어도, 열매가 맺히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돌아올 보상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큼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한 열쇠가 믿음입니다.

사랑 __ 언제나 정답은 사랑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역량으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 세상과 싸워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을 성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암웨이에선 누구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암웨이의 창업 정신입니다. 암웨이는 파트너와 함께 윈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파트너가 다르고, 우리 자신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공하기 위해선 서로를 감싸 안고,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바뀌어나가야 합니다. 사랑은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들어 우리의 네트워크를 파트너와 더불어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배순천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태조 리더는 중견 기업의 임원이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초심. 첫 마음을 이어갈 때 사랑의 마음이 생겨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믿어준 상대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오해나 상처는 녹아버리고, 이해하고 감싸는 사랑이 생겨날 것입니다.

다른 직장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직장은 수직적 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암웨이는 수평적 관계의 조직입니다. 지시와 명령이 아닌 사랑으로, 될 때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번 핀은 나의 성장이 목표가 된 도전이 아닌 파트너들의 성장이 포커스였습니다. 파트너의 성장이 저희 핀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마음에 와 닿은 문구가 있나요?

"마음에도 향기가 있다." 드러내지 않아도 진심은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더 감사하자"는 문구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가깝거나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5년 후에는 파트너들과 에베레스트로 트래킹을 떠나고 싶고, 10년 후에는 1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10년쯤 후에는 저를 바라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 파트너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파트너들에 둘러싸여 암웨이 인생 25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꿈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고비도 있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처음의 마음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아오니까 상상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미래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FOUNDERS EXECUTIVE DIAMOND

안병환&박운숙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수원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안병환 리더는 자영업을 했고, 박운숙 리더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창업자의 정신과 이념에 감동했습니다. 또 큰 비전을 봤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자아 성찰입니다. 암웨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연관되니까,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저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과정이 비즈니스의 성장이라면, 저희 자신의 성장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믿음. 사람이 가진 능력과 성향은 모두 다릅니다. 단점을 들추기보다 장점을 보면 상대를 믿고 그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박운숙 리더의 사람에 대한 배려심과 안병환 리더의 비즈니스 기획 능력. 두 가지의 조화에 있지 않을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다른 사람의 모습은 내 모습을 찾는 거울이 된다."

가치와 확신으로 이루어낸 패밀리 비즈니스

꾸준함 __ 일관성 뒤에 성공은 찾아온다

암웨이는 보상과 가치가 매우 큰 사업입니다.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건 대부분 아직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부족함을 채우고 어려움을 넘어설 때 보상이 찾아오고 암웨이 가치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에는 한국 암웨이의 성공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후원 수당이 꾸준히 쌓이기 전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안병환 리더는 부업으로 가정경제를 책임지면서도 책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아무리 낮은 산도 한걸음에 정상을 오를 순 없습니다. 최고의 보상을 제공하는 암웨이에서도 꾸준함만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올바름 __ 창업 정신을 따라야 롱런할 수 있다

암웨이의 창업 정신을 따라야 합니다. 암웨이 창업 정신의 여섯가지 가치 가운데 저는 성실성과 책임감을 특히 강조합니다. 성실하지 않게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책임감 없이 이룬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한 성실함과 책임감은 비즈니스의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는 근간이 됩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을 지녔다면 빠른 길을 찾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샛길을 찾는 사람은 조금만 힘들어도 사업을 놓아버립니다. 저희는 오늘도 파트너와 우리 자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내일도 다르지 않을 테고요.

팀워크 __ 마음을 모아 전략을 짠다

팀워크는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합니다. 즐거움은 짧고 고통만 길면 어떻게 오랫동안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는 멀리 가기 힘듭니다. 함께 가면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이기고 어려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만들어지면 혼자서는 짤 수 없는 비즈니스 전략이 나옵니다. 전략 없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어렵습니다. 팀을 통해서 제대로 된 비즈니스 전략이 나올 때 성공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MOMENTS

1992. 04. 15
암웨이 출발
암웨이 비즈니스를 권유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한국암웨이에 직접 전화 걸어서 ABO 등록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1997. 09. 27
교통사고로 입원한 날
교통사고로 2년 가까이 입원하게 되었을 때, 박운숙 리더는 후원 수당의 의미를 체감하고 공동 사업자로 나섰습니다.

2001
사업의 재정비
IMF 이후 무너져 내렸던 팀을 정비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 부부의 마음만 맞으면 된다는 확신이 사업의 전환점으로 작용했습니다.

2008. 09. 01
다이아몬드 달성
16년 만의 다이아몬드 성취였습니다. 2003년에 에메랄드에 복귀한 후 팀워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2012. 07
가족 사업의 시작
큰아들이 제대하고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2013년에는 작은아들, 2014년에는 큰며느리, 2015년에는 작은며느리가 합류했습니다.

2016. 12
한 공간에 모인 가족
열 식구가 한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가족이 한 공간에서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FOUNDERS EXECUTIVE DIAMOND

홍기붕&유현화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의왕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개척한 성공의 항로

신뢰 __ 비즈니스의 속도를 결정하는 힘

암웨이는 함께하는 비즈니스입니다. 파트너와의 신뢰가 없다면 제대로 된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 없는 커뮤니케이션에는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상대의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뢰가 만들어지면 팀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때 비즈니스는 속도를 내고, 상담한 대로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신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노력 __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힘

지금 성공자가 아니라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탓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진 지식과 실력을 성공할 수 있을 만큼 키우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화할 순 없습니다. 단기간의 자기계발은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노력만이 결과를 도출합니다. 오늘 헛수고를 했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헛수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력의 총량은 사라지지 않고, 성공의 확률은 늘어납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헛수고를 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확신 __ 헤매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는 힘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타인의 발자국 위에 걸음을 겹치고, 결승점에 이르지 못한 채 여정을 끝내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믿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스스로 자료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암웨이를 공부하고 인생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너무 빨리 전업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방황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결승점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곳을 향해 나아간다면 분명히 길은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홍기붕 리더는 대기업의 교육(혁신) 분야에서 근무했고, 유현화 리더는 바이올린 강사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회사를 그만두고 과감하게 전업했습니다. 주변의 반대를 뿌리치고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빨리 결과를 내지 못하니 민망했습니다.

그 민망함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돌아갈 곳이 없기에 목숨을 건다는 마음으로 사생결단 도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된다는 믿음을 놓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홍기붕 · 유현화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솔선수범하고 언행일치하는 선한 지식인. 우리 팀은 가장 열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발해가는 팀입니다.

1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년 7월부터 휴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하지만 매년 1개월의 휴양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조용한 곳에서 정신적인 릴렉스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계획입니다. 정신적인 여유를 찾는 스폰서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1년 비즈니스를 6월까지 총력전으로 마무리하고 7월 랠리 이후 한 달간 휴양하는 거죠.

장기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도 사업을 열심히 하겠지만 암웨이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밖의 삶 사이의 비중은 점점 조정하게 되겠죠. 가문의 체계를 잡아가는 일을 하고, 책도 두어 권 정도 남길 생각입니다.

MOMENTS

1978
고등학교 전학
전학은 홍기붕 리더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농경 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의 전환점이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1998
늦은 바이올린 전공
유현화 리더는 고교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후 막내를 유치원에 보낸 후에야 음악 전공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2001. 04
암웨이와의 만남
우연히 앞집에서 사업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우연이 없었다면 암웨이라는 기회를 발견하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해질 때도 있습니다.

2009
50주년 라스베이거스 행사 참석
다이아몬드 당시 전 세계의 리더들이 모인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큰 성공자들을 보면서 더 빨리 성장해야겠다고 심도 깊게 결심했습니다.

2013
자녀의 암웨이 사업 합류
결혼 1년을 앞둔 딸이 현실 점검을 하면서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사돈도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기에 더 기쁜 암웨이 사업입니다.

2015. 09. 01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성취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에는 파트너들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파트너들을 보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EXECUTIVE DIAMOND

김윤화&이병택

2018년 6월 1일부 / 부산시

MOMENTS

1999. 11
리치 디보스 회장님과의 만남
잠실에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2005
딸의 외고 진학, 기숙사 생활 시작
부모의 암웨이 사업을 보면서 성장한 딸은 타인에 대한 배려 속에서 기숙사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2015
발리 리더십 세미나에서의 휴대폰 분실
휴대폰을 바꾸면서 3년 전 카카오스토리와 연결되었고, 이를 통해 9번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20대 어린 파트너의 변화하는 모습이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2016
딸의 영국 유학.
영국 유학을 통해 딸은 밝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했습니다. 유학 중이던 딸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가족 여행을 즐겼습니다.

2018
가족과 함께한 파리여행.
반 고흐의 작품을 바라보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한 인간의 몰입과 집중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냈는지 확인했고, 자기성장의 계기가 된 지식 여행이었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윤화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이병택 리더는 대기업 연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마케팅 플랜을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는 미래를 준비 할 수 있는 제2의 직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 자연스레 사업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암웨이 사업의 본질은 뭘까요?

원칙을 중시하는 암웨이의 기업 마인드, 빠른 길보다는 바른길을 추구하는 방향성 아닐까요?

사업이 어렵던 순간은 없었나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며, 문제의 해답을 항상 시스템 안에서 찾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김윤화 · 이병택 팀의 색깔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일곱 색깔 무지개.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졌으니까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내가 아닌 상대 중심.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현역으로서 파트너의 성장을 도우며 일과 여유의 밸런스를 맞추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겠죠.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으로

사람 __ 사람 중심의 리더가 필요하다

세상에는 언제나 한 발 앞서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리더라고 합니다. 리더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독재자가 되거나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암웨이에선 우리 모두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좋은 건 암웨이 안에서 사람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은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한 영향력을 얼마나 키워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제대로 배워서 사람 중심의 선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함 __ 겸손해야 성장할 수 있다

사업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은 황금율에 대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받기 위해 주는 황금율보다는 상대가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로 대우를 해주는 백금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나를 낮추고 늘 겸손할 때 우리의 사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 __ 재능만으론 부족하다

사업으로의 목표 의식이 없다면 암웨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센터에 머물게 됩니다. 그것도 그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사업으로의 성취는 어려워집니다. 사업에선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과는 다른 사업가의 DNA를 가지고 파트너들과 팀워크를 다져야 합니다. 재능만으론 성취할 수 없습니다. 팀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아닌 상대 중심의 마음으로 팀워크를 굳건히 할 때 우리가 꿈꿨던 성공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설 것입니다.

EXECUTIVE DIAMOND

김태순&서광원

2018년 8월 1일부 / 경북 포항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태순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서광원 리더는 연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인으론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암웨이로는 재정과 시간, 친구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데 끌렸습니다.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 구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김태순 리더가 출산 후 극심한 류마티스를 앓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미래의 꿈에 집중했습니다. 또 암웨이를 통해 건강 공부도 열심히 했죠. 많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사업을 위한 공부는 개인 건강 문제에도 해답을 주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긍휼한 마음. 처음 목표는 경제적 성취지만 점차 자신의 이익보다 팀과 파트너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허물은 있습니다. 저희도 파트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의 장점에 집중할 때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가는 길이 보상이다." 수석 핀을 성취해낸 게 보상이 아니라 23년의 길이 모두 보상이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는데 내 안의 거인을 일깨웠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함께하는 기쁨이죠. 인간관계에 소극적인 편이었는데 암웨이 하면서 인간관계가 넓어졌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궁리하며 서로의 삶이 나아지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인생의 진짜 큰 기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보상인 암웨이에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긍정의 힘 _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누군들 힘든 순간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저희는 목표를 세우면 될 때까지 전진합니다. 한 번 더 해보자,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리 행동해도 이룰 수 없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라고 생각하면 다리가 풀리고 주저앉게 됩니다. 넘을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면 어느새 하산길에서 다음 봉우리를 떠올리며 콧노래를 부르는 자신과 조우할 것입니다.

꿈 _ 꿈이 있어서 사람이다

이메일 아래 늘 써놓는 문구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신이 우리를 꿈꾸도록 만들었을 리가 없다." 작가인 존 업다이크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지 않고 살아간다면 다른 동물과 뭐가 다를까요? 꿈이 없는 곳에 사람의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당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간절한 꿈을 마침내 이루어내곤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이 위대한 증거입니다. 각자의 꿈과 위대한 내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담대함 _ 스스로를 넘어서는 비법

꿈과 현실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움과 좌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포기해선 안 됩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비법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암웨이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본업을 하면서 엑스트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사람마다 일을 추진하는 보폭은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보폭을 좁히곤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암웨이 리더들의 생산성은 매우 높습니다.
담대함이 그 비결이고, 그 보상은 노력 이상의 결과입니다.

MOMENTS

1996
첫 사업 설명회 참석
서광원 리더를 따라 김태순 리더가 사업 설명회에 처음 참석한 날. 비전을 발견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97. 02. 01
실버 프로듀서 달성
핀을 달성한 순간 중에 가장 감동이 컸습니다. 사업 가능성을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1997 .04 .01
첫 번째 고난
4월 1일 골드 프로듀서가 되자마자 암웨이에 부정적인 뉴스가 기승을 부렸고, 꽤 긴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포기하지 않았던 스스로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잘될 때는 누구나 잘합니다. 안 될 때 잘하는 게 신념이고 저력입니다.

2002. 08. 01
월드컵 다이아몬드
6년간 다이아몬드만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항상 다이아몬드를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부가 같은 목표를 보고 달려오는 건 참 중요한 일이며 평생의 추억입니다.

2004~2008
사업의 위기
2000년대 다이아몬드 성취 후 공무원 겸직 금지 규정 도입 등으로 사업의 위기를 다시 겪게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책임감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돌아보면 축복입니다. 이를 통과할 때 더 나아갈 수 있을지가 결정되니까요.

2017~2018
새로운 도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로 안락한 삶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더 큰 꿈을 위해 수석 다이아몬드에 도전하면서 편안한 집을 떠나는 모험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EXECUTIVE DIAMOND

조영주&차태범

2018년 8월 1일부 / 대구시

MOMENTS

- **2015**
  시어머니의 가르침과 임종
  다이아몬드에 도전할 때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힘들 때에도 유일하게 우리를 믿어주셨던 그분께선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라고, 그리고 담대하라고.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했습니다.

- **2017. 05. 01**
  다이아몬드가 파란빛을 띠기 시작한 날
  5월 1일부로 다이아몬드가 되었지만 ABN의 색깔은 12일에 바뀌더군요. ABN에 다이아몬드가 파랗게 바뀔 때 다이아몬드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2017**
  인정식에서의 가족 공연
  연애할 때 차태범 리더는 기타를 정말 좋아했는데, 사업 실패 후 기타 하나 살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조카는 베이스를, 큰딸은 피아노를, 작은딸은 춤과 노래를, 남편은 기타와 보컬을, 저는 코러스를 담당한 가족 공연을 인정식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 **2018**
  신용 회복의 날
  개인 사업에 실패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추락했습니다. 3월 31일 신용 회복 문자를 받았고, 이후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 **2018**
  긍정의 유전자를 물려주신 친정어머니의 임종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암웨이를 이어갈 수 있던 건 친정어머니께서 제게 긍정의 유전자를 물려주셨기 때문입니다.

- **2018**
  가족 비즈니스의 서광이 비친 날
  딸과 처조카가 플래티늄이 되었습니다. 형님 아들도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제 패밀리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꿈 너머 꿈이 있으면 위대해진다

파트너 _ 한 사람의 소중함

사업 실패로 13년간 견디기 힘든 수렁을 헤맸습니다. 그래도 암웨이 사업만은 놓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함께해준 파트너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저희 곁의 파트너들이 고마웠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파트너에게 아홉 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단점들만 나타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으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곳이 암웨이니까요.

인내 _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언젠간 보게 된다

사업에서 늘 좋은 결과만 나오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사업이 발전하고 있는지조차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사업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되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또 당장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한 발자국씩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던 결과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순간은 분명히 오니까요.

확신 _ 당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이 사업을 하는 한 당신의 판단은 옳습니다. 암웨이를 선택한 순간 이미 여러분은 옳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올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암웨이 미팅장은 바깥세상과 다른 판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장소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판에서 놀아야 합니다. 꿈이 있다면 암웨이를 선택한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흔들리지 않으면 처음 꿈꾼 그 결과를 누구나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조영주 리더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했고, 차태범 리더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을 할 때 많은 현금이 돌아도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암웨이 사업의 지속성에 끌렸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사업 시작 8개월 만에 플래티늄이 되자마자 남편 사업이 부도 났습니다. 그 후 12년간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폰서인데 파트너에게 밥 한 그릇, 차 한 잔 못 사면서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제품조차 현금으로 사다 줄 능력이 없던 때였어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스폰서님과 부족한 저희 두 사람을 끝까지 따라와준 한 명의 파트너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그만두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간다고 다짐했고, 실력을 키웠습니다.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 후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사람을 얻은 것이죠. 파트너, 함께하는 친구,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진짜 내 사람을 말이에요.

사업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감사와 배려죠. 감사와 배려 없는 이기심은 팀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아주버님입니다. 형제라고 해도 해줄 수 있는 이상으로 뒷받침 해주셨습니다. 자신께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와주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고 가장 먼저 아주버님께 차를 사드렸습니다.

EXECUTIVE DIAMOND

주용석&이지현

2018년 8월 1일부 / 경기 광명시

MOMENTS

- **2007**
  이지현 리더의 첫 사업 설명회 참석
  첫 사업 설명회는 이지현 리더 마음속에 있던 암웨이에 대한 편견을 깨어버렸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순간입니다.

- **2009**
  이지현 리더와 시부모님의 첫 만남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암웨이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신 FCA인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 **2013. 08. 10**
  축복의 출산
  주용석 · 이지현 리더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삶의 기다림과 만남은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 **2015. 05**
  리치 디보스 회장님을 만난 날
  워싱턴으로의 FC Trip 동행에서 리치 디보스 회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사업을 떠나 인간적인 따뜻함이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 **2017. 01**
  베트남 무대에서 빛난 날
  베트남 암웨이의 공식적인 초대를 받아 8,000여 명 앞의 무대에 올라 파트너들과 뷰티 쇼를 했습니다. 현실이 된 파트너들과의 꿈을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 **2017. 08**
  이지현 리더의 이름을 딴 나무를 심은 날
  직접 방문한 브라질의 암웨이 농장. 브라질에선 4년 만의 외부 방문객을 환영한다며 이름을 딴 나무를 심어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온 일을 지구 반대편으로 눈으로 확인하며 감동에 젖었던 날입니다.

자유기업가 정신을 보여주는 2세 사업가

사랑 __ 마음의 칼날로 사랑을 조각하다

암웨이는 함께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늘 같을 순 없습니다. 져주고 양보하다 보면 화도 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의 참을 인(忍)은 마음(心)과 칼날(刃)을 합한 글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미워질 때 마음의 칼날을 상대에게 향해선 안 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깎고 다잡아야 합니다. 단점까지 포용하며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리더가 됩니다. 미움과 서운함을 사랑으로 바꿔 열매를 맺는 비즈니스, 그것이 암웨이의 본질입니다.

자기 확신 __ 강한 정신력으로 승리의 화살을 쏘다

세상일이 우리 마음 같진 않습니다. 더불어 꿈꾸고 함께 일하는 데도 내 의도나 꿈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마찰도 발생합니다. 노력을 알아주지 않아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혼자가 아닌 팀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입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림돌이 곧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멘탈'을 강조합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세요. 전리품은 언제나 승리의 뒤편에 놓여 있는 법이니까요.

자기 성찰 __ 출발선을 그어야 할 지점은 어디인가

함께한다는 건 우리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단단히 손을 잡기 위해선 스스로를 더욱 선명히 보여줘야 할 테고, 신뢰를 샀다는 이야기는 더욱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에겐 성장 욕구만큼이나 강력한 나태함에 대한 끌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게을러지고 싶어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장서서 혁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게으름 속에 주저앉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근면성을 강조하는 까닭입니다. 자기 성찰은 출발점을 닦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달려 나가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주용석 리더는 유학생이었고, 이지현 리더는 유학생 겸 연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 선택 과정에서 고민은 없었나요?

바깥 사회에서의 경험을 쌓아본 후 암웨이 사업에 도전할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많은 탑리더님들과 상의했는데, 사회 경험과 암웨이는 별개 영역이니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학 후 곧장 사업을 선택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방향성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대기업이나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 직업을 선택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그 친구들은 원점으로 돌아가 어떻게 어떤 목표로 살아야 하는지 새로 고민하더군요.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우리가 옳았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젊은 리더로서 기대하는 점이 있나요?

1세대인 부모님들께선 성공의 과정에 많은 걸 희생하셨습니다. 덕분에 2세대 사업자인 저희들은 좀 더 자유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진짜 자유기업가 정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느낍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마음에 흔들림이 있을 때 자극을 주셨으니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진짜 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존 맥스웰의 〈리더의 조건〉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택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차선책을 찾아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비교해보니 좋아서 등…. 하지만 결국 최선의 선택임을 알게 될 사업이 암웨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EXECUTIVE DIAMOND

류지민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학생이었습니다.

젊은 리더로서 암웨이 사업에 대하여 느끼는 점이 있습니까?

암웨이의 가장 큰 가치는 남들과 똑같은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삶은 다릅니다. 하지만 각자 원하는 삶을 살긴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나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리고 젊기 때문에 암웨이를 하기 어렵다고요? 젊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전혀 모르던 타인조차 진심으로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신기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 인생의 큰 부분을 잃고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나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면서 파트너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전하지 않으니 파트너들도 그 자리에 머물더군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번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겪어왔을 과정들을 상상할 수 있으니까요.

류지민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팀. 20대부터 50대까지, 부모님을 후원하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자녀를 후원하려는 부모님도 있는 스펙터클한 팀입니다!

가깝거나 먼 미래의 꿈은 무엇인가요?

가까운 미래에는 파트너의 인정식을 해주고 싶습니다. 5년 후에는 아버지와 미술전을 여는 게 꿈입니다. 더 먼 미래에는 평소 좋아하던 그림, 여행, 사진을 사업과 연결시키면서 암웨이 밖에서도 제 재능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2세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등대

시작하기 __ 구체적인 목표로 씨앗을 심고

대부분의 경우, 암웨이 사업의 시작과 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에서 열혈 소비자로, 적극적인 소비자에서 사업가로 어쩌면 자연스럽게, 혹은 어영부영 흘러갑니다. 그러나 진짜 리더로 거듭나고 싶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제대로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미팅에 참석하는 자세론 곤란합니다. 정확한 사업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끈도 묶지 않고 적당히 구겨 신은 신발로 뛰어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올바른 씨앗만이 제대로 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지속하기 __ 언제나 한결같이 나아가며

매일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암웨이에서 목표의 크기는 해야 할 일의 양과 같습니다. 목표가 크다면 좀 더 많은 일이, 목표가 작다면 좀 더 적은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순간순간의 작은 결과에 따라 해야 할 일의 양을 조절하지 마세요. 순간의 풍랑에 흔들리지 말고 늘 정해진 목표를 향해 일정한 보폭으로 나아가는 일, 그것이 성취를 향한 지속적인 발걸음입니다.

즐기기 __ 지나고 나면 모두 즐거운 나만의 스토리

스스로 재미있지 않다면 아무리 높은 가치와 비전을 이야기해도 상대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즐거워야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조차 흔들 수 있는 법입니다. 억지웃음을 지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힘들고 당황스럽고 때로는 창피하기도 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 순간을 괴로워하지 말고 즐기세요.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바로 그 기억들이 가장 즐거운, 나 자신의 스토리가 되어갈 테니까요. 오늘에 머물지 마세요. 내일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세요.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반짝이는 스토리로 변할지 가슴 설레지 않나요?

MOMENTS

2013. 08
사업 결심
나이가 안 되어 한동안 ABO로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던 상황이 오히려 제게 간절함을 더해줬습니다.

2015
최연소 요리 명장
22세로 최연소 요리 명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자신감도 생겼고, 비즈니스 대화의 좋은 소재가 되었고, 암웨이에 대한 선입견을 바꿔주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5
첫 리더십 세미나
에메랄드가 되어 제 자격으로 오빠와 함께 발리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께선 저희 대신 할머니와 이모를 모셔 오셨습니다. 3대가 함께 하는 첫 여행이었습니다.

2016. 08. 01
다이아몬드 달성
크고 중요한 목표 가운데 첫 번째 주요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내 꿈 중심으로 세상을 봤다면 이때부터 파트너들의 입장에서 세상과 사업을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
수석 다이아몬드 도전
하와이 리더십 세미나를 떠나면서 함께 못 가는 파트너 때문에 안타까웠습니다. 2년간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면서 제 삶은 많이 변화했는데, 함께 누리지 못하는 파트너들을 보면서 새로운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18. 01
홋카이도 다이아 인비테이셔널
암웨이 리더와 2세 자녀가 함께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암웨이 안에서 성장한 2세 사업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족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새삼 깨닫고 동기부여를 크게 받았습니다.

EXECUTIVE DIAMOND

박나현&최운철

2018년 9월 1일부 / 부산시

MOMENTS

- **1999. 12**
  하와이로의 리더십 세미나
  플래티늄 달성 후의 여행이었습니다. 성취가 무엇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2000**
  사고 위험 속에서의 안도
  미팅을 후원하러 가다가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만약의 상황이 왔을 때 암웨이가 있다면 안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사업에 대한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 **2000. 12**
  부모님과의 괌 리더십 세미나
  처음으로 가족 여행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80세가 넘으신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루어서 다행인 목표였습니다.
- **2003. 05**
  미국 서부의 다이아몬드 헤리티지 캠프 방문
  라스베이거스 최고층 빌딩에서 바라본 화려한 풍경과 그랜드 캐니언 대자연의 웅장함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 **2005. 02**
  삿포로로의 다이아 인비테이셔널
  삿포로에서 스키를 타기 위해 온 가족이 스키를 배웠습니다. 여행이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 **2009. 05**
  암웨이 50주년 행사
  창업자와 전 세계의 암웨이 리더들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함께 꿈꾸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더 큰 동기를 부여해줬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나현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최운철 리더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언제 힘들었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파트너들이 힘들어하며 떠나갈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미팅장에 더 열심히 나가서 배우고, 시스템에 더 강하게 연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강한 목표 의식입니다. 지난해 이루어내지 못한 데 대한 오기가 일었습니다. 핀업으로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배수진을 치고 도전했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파트너들이죠. 여행을 포함해서 더 많은 보상을 더 많은 파트너들과 누리고 싶었으니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거거거중지(去去去中知) 행행행리각(行行行裏覺)" 〈도덕경〉에 나오는데 '가고 가고 가는 중에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고 행하다 보면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선교 봉사도 하고 싶고, 전 세계를 돌면서 세계인들과 케이팝 동호회 활동도 하고 싶어요.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요. 세월을 거스르며 살고 싶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주는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사업이니까요.

변함없는 열정으로 이룬 성장, 성취로 이룬 삶의 변화

믿음 __ 스스로를 믿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된다

믿음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암웨이라는 회사와 시스템을 믿는다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웨이 사업을 알아본 후 참 좋은 이상이자 수단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자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이 약하면 작은 어려움에도 굴복하게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암웨이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가로 성장해갈 수 있습니다. 믿어야 시작하고, 믿어야 진행하며, 믿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__ 자신을 바라본 후 타인을 인정한다

암웨이는 타인과 함께 성공을 써가는 사업입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맺음이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를 포용할 때 관계가 시작됩니다. 대립하면 깨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타인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나 자신을 낮출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성찰 없이 타인을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자기 성찰을 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점점 크게 성장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감 __ 그릇의 크기가 사업의 규모를 결정한다

전업주부로 살아갈 때에는 자기 계발이나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났습니다. 더 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사명감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사람도 책임지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뜻하기도 하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사람 자체를 바라보는 큰 그릇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명감을 가져야 타인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욕심들에 흔들리지 않고 올곧게 사람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며, 암웨이가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EXECUTIVE DIAMOND

박형진&송진숙

2018년 9월 1일부 / 충남 계룡시

나눔의 선한 부자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다시 한 걸음 앞으로

팀워크 __ 함께여서 가능하고 같이여서 가치 있다

저희는 이렇다 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재주만큼 부족한 결과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는 달랐습니다. 암웨이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일이기에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혼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걸을 줄 몰랐던 저희는 처음부터 함께 갔습니다. 그게 암웨이 시작의 이유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앞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__ 스스로를 낮출 때 자리가 생긴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과 생각을 조율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고 낮아져서 한 없이 겸손해져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내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스폰서님께 존경을, 파트너님들께 존중을 보내면 불협화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리더십과 시스템은 동전의 양면 같은 하나의 세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부자 __ 실천으로 나눌 수 있는 세계

처음 사업을 소개받았을 때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팅에 나가 성공자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암웨이는 성공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기회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가능하다면 무엇인가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에 쫓겨 나눔을 현실로 만들지 못합니다. 암웨이는 마음에만 품고 접근하지 못하던 나눔의 세계로 이어진 통로입니다. 이제 그룹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임을 압니다. 더 많이 나누는 선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내일 더 열심히 뛰려고 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송진숙 리더는 치위생사였고, 박형진 리더는 현재도 건설회사 엔지니어로 근무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환경에 흔들리는 파트너를 보면 그때그때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스폰서님과 팀을 보고 이겨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자신감이죠. 암웨이로 인해 성공자로 변모하는 저 자신을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요. 제게는 암웨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뭐든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듭니다. 경제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서 해방된 것도 큰 변화겠죠.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역지사지. 스스로를 버리고 상대 입장이 되어 그를 위해 생각할 것.

직장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미래의 존재 여부입니다. 암웨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송진숙 · 박형진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주팀. 공부하는 주부들의 힘!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성공은 시작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선물이다."

MOMENTS

- **2007**
  첫 리더십 세미나
  산야로의 첫 번째 리더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느낀 첫 보상이었습니다.
- **2008. 07**
  둘째 출산
  첫 여행지인 산야에서 생긴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암웨이 베이비였죠.
- **2011. 03. 01**
  에메랄드 달성
  인생의 최대 터닝 포인트. 경제적 고민을 벗어나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 **2014. 06. 01**
  다이아몬드 달성
  파트너님들께 희망의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 **2015**
  발리로의 가족 여행
  발리로의 리더십 세미나는 진정한 가족 사업으로 이루어낸 가족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 **2018. 09. 01**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
  EDC 성취로 인해 진정한 자유인의 대열에 합류한 셈입니다!

EXECUTIVE DIAMOND

이영은&방중하

2018년 9월 1일부 / 경남 창원시

MOMENTS

1998

부모님의 사업 시작

방중하 리더의 부모님이 암웨이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빠진 부모님 덕에 첫 자유를 만끽하게 됩니다.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 두 번째 자유를 만들어갑니다.

2005. 09

나의 암웨이 사업 시작

1년간 아르바이트 삼아 해보면서, 암웨이를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8

첫 차 구매

할부지만 직접 번 돈으로 첫 차를 구매했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첫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2010. 10

이영은 리더와의 만남

소개로 이영은 리더를 만났습니다. 다이아몬드 도전으로 너무 바빴지만 그녀를 꼭 잡아야겠다는 마음은 간절해졌습니다.

2011. 09

다이아몬드 성취

몇 번의 도전 실패 끝에 29세의 나이로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20대에 다이아몬드가 되어보겠다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2015. 01

첫아이의 출생

그해 11월에는 10개월 된 아기와 함께 발리로 리더십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방중하 리더는 대학생이었고, 이영은 리더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부부가 목적하는 바가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리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암웨이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공동체적 비전을 가지고 같은 미래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가족의 울타리 밖으로까지 퍼져나간다는 점이 과거와의 가장 큰 변화겠죠. 혼자 꾸는 꿈은 망상이지만 함께 꾸면 비전이 됩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는 마음. 타인이 하려는 모습을 가만히 보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도우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진감래의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면 지속적이기 힘듭니다. 과정마저 즐거울 수 있게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리더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열심히 노력해도 변화하고 발전하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믿음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그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시길 먼저 권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해보세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의리와 팀워크죠. 올해 도전해서 핀업하는 것이 팀에 대한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론 제게 상징적인 핀을 꼭 이루어내고 싶기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님께서 수석 다이아몬드셨거든요.

어떤 미래를 꿈꾸나요?

경제적인 숙제를 하려는 마음으로 암웨이를 시작했지만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뛰고 싶고 돕고 싶은 욕구가 다하지 않을 테니,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가족에서 암웨이로, 암웨이에서 가족으로

긍정 _ 희망으로 쓰는 마이 스토리

사업에는 기복이 있습니다. 현재와 지금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지 마세요. 시선을 희망과 긍정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떠나가는 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외롭고 힘든 마음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파트너가 마음의 공백을 채워줬고, 떠나갔던 친구들이 가족을 데리고 돌아와 다시 사업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마음속에 불씨를 가지고 살아왔던 거죠. 오늘의 고난은 미래의 내 스토리, 해피엔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우정 _ 마음은 혼자 갈 수 없는 것

어떻게 하다 보니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천만 PV로 만드는 건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스폰서님과 시스템을 통해 방황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혼자 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마음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완성되고 지켜집니다. 사랑이 짧고 강한 충격이라면, 우정은 관계를 지속하도록 만드는,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안 보면 보고 싶고, 서로가 서로의 사람 같이 기대고 기대게 해주는 그 마음이 우정입니다.

의리 _ 마음이 모여 내는 행복 시너지

젊은 사람의 열정만으로 세월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일을 사회에서 찾긴 어렵더군요. 그래서 도전하고 이루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의 노력은 과거의 나와 의리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내가 소속된 팀과의 의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와의 의리를 지키려는 마음을 공유하는 팀이라면 얼마나 멋진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얼마나 커다랗게 모일까요?

AMWAY KOREA

RECOGNITION

Congratulations

2018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모든 ABO들에게
축하와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

2018 NEW PIN ACHIEVERS

FOUNDERS DIAMOND

2018년 9월 1일부
강미선&정원주 80
김귀영&신형순 81
김세중 82
박우형 83
원선미&김재홍 84
이교현&이상호 85
정해식&김경화 86
조성림&이규만 87
최옥다 88
한순영&권상혁 89

DIAMOND

2018년 3월 1일부
김정옥&강민정 90
2018년 4월 1일부
석선영&최재영 91
2018년 5월 1일부
임수정 92
2018년 6월 1일부
김진호&조인숙 93
박기락&김효숙 94
박선미&오태양 95
배지은&권중혁 96
허성진&강병훈 97
황지영&장기성 98
2018년 7월 1일부
박지훈&노경국 99
우은하&이형일 100
허해연&권영강 101
황은옥&이재성 102
2018년 8월 1일부
강정애 103
구미정&천명갑 104
김도연&최성희 105
김선민&최성식 106
김성환&이진아 107
김숙이&김원기 108
김지영&박승민 109
박순옥&지종림 110
박인선 111
백형규&박용자 112
윤금복 113
이정화 114
이화정&박해준 115
임용선&이만형 116
조양현 117
2018년 9월 1일부
고상은&성영희 118
곽영숙&김기현 119
김경덕&송희규 120
김경선&유장규 121
김선희&박성일 122
김유아&김평중 123
김윤영&문현호 124
김은순&김항영 125
김은옥&김현성 126
박선화&강창수 127
박지영&허윤석 128
박희린&윤보은 129
배정환&최윤희 130
서영&박진기 131
안혜진&홍지훈 132
유진화 133
윤석구&김희정 134
이경선&정준 135
이경은&민봉기 136
이난미&김태헌 137
이소율&문귀석 138
이승은&김도연 139
이우간&이병철 140
이운한 141
이을호&손예리 142
임은주&박세영 143
임혜란&박영인 144
장기성&신정화 145
정나영&정원규 146
정수철 147
정혜진&서동혁 148
조미선&손병주 149
조정범&김용미 150
지윤숙&박과길 151
진선자&권성택 152
최명신 153
최은희&박현욱 154
한지연&구민영 155

FOUNDERS DIAMOND

강미선&정원주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광주시

나는 변화를 끌어들이는 소용돌이

핀을 성취하니, 주변에선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럴 만한 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인 정원주 리더가 저를 바라보며 "깊이 잠재하던 거인이 깨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저는 세상이 나를 향하고 상대가 어떻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인칭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나'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변화를 기대하니까 아쉬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먼저 변해서 동력이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지요. 진짜 변화는, 내가 만든 소용돌이에 주변이 끌려올 때 시작됩니다.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저는 자신과의 약속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결정하고 목표로 세운 약속만 꾸준히 지켜나가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몸부림 하다 보니 스스로의 목표를 수정해야 할 정도의 이유를 만나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용돌이를 만들기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이미 시작된 소용돌이는 엄청난 끌어당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열정을 식히지 않고 더 큰 소용돌이를 통해 누군가의 변화에 마중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강미선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정원주 리더는 지금도 자영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사업 초기 큰 에너지가 되었던 친동생 둘과 동생들의 파트너들이 한꺼번에 떠나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 그들이 자리를 잡아준 덕에 처음 1년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오래 정체되진 않았습니다. 새로운 파트너들이 빈자리를 채워줬고, 암웨이를 시작할 때 5년은 해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업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일반적인 경우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암웨이에선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지만 자산으로 쌓이는 일입니다. 경험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너 자신이 되어라." – 영화 〈비 유어셀프〉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제 모습이 많이 달라졌어요. 나를 찾을 수 있었고, 가정의 변화도 생겼어요. 경제적으로도 좀 편안해졌고요. 5~6년 사이에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암웨이뿐일 것 같아요.

FOUNDERS DIAMOND

김귀영&신형순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남양주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귀영 리더는 디자이너였고, 신형순 리더는 건설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40대 중반을 넘긴 남자, 내일모레면 50이 다가올 남자에겐 미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암웨이의 인세 수입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씻어줄 수단이자 마르지 않는 금맥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확신이 있어도 순간의 편안함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기 마음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미팅입니다. 미팅 속에서 가치와 철학, 나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쌓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어떻게 광대한 비즈니스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시간이 쌓이면서 나아가는 거죠.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구성원의 튼튼한 울타리가 생긴 느낌. 암웨이의 비전을 보고 계획에 없던 둘째를 낳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겸손함. 내게 기회가 된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진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자유 의지. 암웨이는 나 자신의 일이죠.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요.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 기회를 주신 분이고, 함께 성장해가는 분들이니까요.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혼자 만드는 핀이 아닙니다. 모두 가족입니다.

기회의 세계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웨이에서는 학력이나 스펙, 인맥 어떠한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더 나은 사람으로, 성공자로 변화할 수 있는 곳이 암웨이입니다. 하지만 달라지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배움을 통해 생각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 모두 달라져야 자신이 달라질 테니까요. 다른 인생을 살려면 그 삶의 주인공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곳까지만 갈 수 있고, 생각한 만큼밖에 그리지 못합니다. 배움은 길을 열어줍니다. 배운 만큼 바라보고, 여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움은 세상을 더 길게, 많이, 멀리, 높이 보도록 기준치를 높여주는 일입니다. 암웨이는 능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사업입니다. 배우지 못했거나 돈이 없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며 시작을 머뭇거립니다. 바깥에선 그런 핑계들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암웨이에서 필요한 능력들은 학습으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암웨이는 세계 최고의 기회입니다.

FOUNDERS DIAMOND

김세중

2018년 9월 1일부 / 대구시

마음을 쌓아 행복을 찾아가는 암웨이 비즈니스

행복의 의미를 고민해봅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말보다 매일 깨달아가는 성장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잘 선택했고 선한 영향력으로 파트너들에게 옳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런 방향이라면 바로 행복한 암웨이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팀워크의 의미도 소중합니다. 훌륭한 팀을 만들기 위해 내가 어떻게 기여할지 고민한다면 훌륭한 팀이 만들어질 것이고, 좋은 팀은 행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처음 시작 시점에서 저는 꿈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꿈과 타인의 시선 사이의 차이를 줄이지 못해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소통에 서툴기도 했지만 100% 결단하지 못했다는 증거였겠지요. 제대로 결단하면 모든 것은 큰 가치의 실현을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제대로 된 방향에의 노력은 우리들의 삶을 바꿔줍니다. 90세의 현역 디자이너인 노라노 여사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실이 쌓이면 인생의 혁신은 저절로 찾아온다"라고. 저도 이 비즈니스 안에서 성실을 쌓아왔습니다. 먼저 비전을 발견하고 씨앗을 심어주신 스폰서님께 존경을 표하고 싶고, 시스템의 틀을 만들어준 남편에게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마음껏 따를 수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 앞으로 더 크고 많은 마음을 쌓아가겠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국어 교사와 방송국 프리랜서 구성 작가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대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를 공부하면서 잘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눈높이에 맞춰 파트너들에게 한 방향으로 제대로 가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이 비즈니스는 결국 꿈의 통제권과 시간, 경제의 통제권, 즉 삶의 통제권을 갖는 일이라 생각해요. 제대로 이 비즈니스의 가치를 발견하는 눈과 실행력이 뒷받침된다면 통제권을 완성해가는 삶의 경주에서 장애물 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며 철저히 즐기는 것이라 생각이 들더군요.

최근 암웨이 사업에서 느끼는 새로운 즐거움이 있나요?

아들 부부와 비즈니스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멘토와 사회적 멘토가 일치되는 짜릿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대대로 그 가치가 이어진다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파트너들에게도 행복 비즈니스를 위해 가족 비즈니스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고 그저 현상 유지만이 다행인 삶이 될 뻔했습니다. 다른 직업과 달리 이 비즈니스로 인해 올바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평생 수입이 기반이 된 참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됨을 압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동력을 잃지 않은 거죠. 처음 저를 움직이게 한 동력은 비전이었습니다. 파트너들이 생긴 후로는 책임감이 새로운 동력이 되었습니다. 큰 사업을 위한 원동력인 시스템이 있어 늘 안심이 되고 감사합니다.

FOUNDERS DIAMOND

박우형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좋은 일만 가득한 오늘, 더 좋은 일만 가득할 내일

저는 언어의 힘을 믿습니다. 사람은 95%의 긍정과 5%의 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공이란 머릿속에 숨어 있는 5%의 부정적인 생각을 빼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 속의 부정을 어떻게 의식적인 긍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이 바로 언어에 담겨 있습니다. 안 좋아서 안 좋다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의 심연으로 우리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기분이 가라앉거나 우울해지는 순간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5분 후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성장통을 앓고 있는 걸 보면 큰 사람이 되려나 봐' 같은 식의 이야기를 혼자 되뇌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장롱 면허였던 저는 처음 사업할 때 벌금 딱지를 꽤나 끊었습니다. "딱지를 끊은 걸 보니 오늘 좋은 일이 있으려나 봐요"라고 웃으며 이야기하자, 스폰서님께선 더 크게 웃으면서 "나는 견인되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더없이 화기애애해졌고, 그 에너지가 그날을 더 좋은 하루로 만들었습니다. 성장통 없는 성장이란 없으며, 고난은 성취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의식에 선명하게 각인해둔다면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약간의 굴곡도 있겠지만, 금세 스쳐지나갈 과정이 있을 뿐이죠. 그 너머에는 긍정으로 쌓아 올린 행복의 결과가 기다릴 테고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오케스트라 호른 연주자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작은 경제적인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스폰서님을 만나서 사업의 이유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너와 나 사이에 '그럴 수도 있어'를 꼭 끼워 넣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왜 저래?' '저럴 수가 있어?' 같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스스로에게 오는 상처가 줄어들 거예요.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잠재 능력을 깨운 것이겠죠. 저는 제 안의 잠재력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리치와 제이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잠재력이 있다고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믿었기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나요?

가족이죠. 사업에 반대하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큰언니였지만 가장 큰 소비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늘 저를 시험하려 한 언니 때문에 건강 관련 공부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큰언니를 1번으로 놓아야 할 것 같고, 엄마야 늘 0순위니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박우형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뭘 해도 되는 팀. 실수를 해도 되고, 잘 안돼도 되고, 성장 못 해도 됩니다. 이 안에 속해만 있으면 되는 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되는 팀이죠.

FOUNDERS DIAMOND

원선미&김재홍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하남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재홍 리더는 보험회사에서 보상 업무를 담당했고, 원선미 리더는 간호사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장 큰 변화라고 느낍니다. 가족은 물론이고 전혀 모르던 파트너들이 저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존중이죠. 인간관계의 기본은 어떤 사람이든 그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하니까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직장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사업에는 은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마인드죠. 해가 구름 뒤에 가려져도 숨어 있는 해를 보는 마음으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파트너들을 믿었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혼자서 이루어내는 핀이 아닙니다. 파트너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핀입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사업을 시작할 때 제 환경은 아주 별로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와 반지하에 사는 말더듬이 총각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도 늘 가능성을 믿어주신 분이 스폰서님입니다. 이번 인정식에서 큰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인내도 지혜다." 인내는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더군요.

겸손한 마음으로, 어깨에 힘을 더 빼고

천안에 아주 유명한 초밥집이 있습니다. 호텔 주방장 출신 셰프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의외의 명판이 걸려 있습니다. "건방 떨지 마라." 아마도 손님이 아닌 자신에게 던지는 이야기겠죠. 우리도 늘 스스로에게 같은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 알면 기본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깨달았을 때에는 오히려 겸손해지는데 말이죠. 타이거 우즈도 골프 레슨을 받고, 마이클 조던도 농구 코치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갖추어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우리가 스폰서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젊은 나이에 암웨이를 시작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건 모두 제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겁니다. 나이를 먹고 아이도 키우고 배우자의 도움도 받으면서 조금씩 건방을 털어냈습니다. 책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폰서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건방 떨다가 내려앉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을 더 빼려고 합니다. 오늘 더 익고 내일 더 숙이며 더 성장하겠습니다.

FOUNDERS DIAMOND

이교현&이상호

2018년 9월 1일부 / 대전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교현 리더는 유학 컨설팅을 했고, 이상호 리더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사실이 좋았습니다. 또 성취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올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섬김. 많이 참고 인내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비즈니스적인 플랜에선 당당하게, 관계에선 인내하고 배려하며!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열정.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쉬지 않고 도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아내입니다. 결혼 전에 사업을 시작했고,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어렵게 후원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해준 아내가 누구보다 고맙습니다.

이교현 · 이상호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밝고 따뜻한 네트워크. 들어오면 나가는 사람 없는 팀.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은 해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다."

성공은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한 열망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웨이라는 회사를 믿고, 스폰서님과 시스템에 순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업은 믿음의 크기만큼 진행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합니다. 저희는 젊다 못해 어렸던 20대의 연애 시절에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거절이 두렵진 않았으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했기에 연배 있는 분들 앞에서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선배들을 후원하려고 하니 간접경험을 많이 쌓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팅장, 강연장, 세미나에서 아니면 책과 음원으로 스스로를 갈고닦았습니다. 암웨이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도구의 차이는 있어도 성공의 원리는 같습니다. 강한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셀프 리더'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자의 성공이란 누구도 아닌 그들 자신의 것이니까요.

FOUNDERS DIAMOND

정해식&김경화

2018년 9월 1일부 / 경남 김해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정해식 리더는 회사원이었고, 김경화 리더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함께 꿈꾸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던 파트너가 변화 하지 못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 암웨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 힘든 사업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는 마음만큼 상대방을 좋아하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파트너들과의 팀워크죠. 파트너의 성장을 늘 1순위에 둡니다. 그들도 그것을 알기에 함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누가 떠올랐나요?

탑 리더님, 업라인 스폰서님, 스폰서님 등…. 저희 부부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스폰서님들에 대한 감사가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더디게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춰 서 있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목표를 정하고 성취해내시길 바랍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일이니까요.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60세 이후 남은 40년을 암웨이만큼 지켜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꾸준함으로 일군 가문의 변화

넉넉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두 아들은 저희보다 나은 출발점에 서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6개월간 시스템 속에서 배웠고, 책을 통해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암웨이로 가문도 바꿀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진정한 자기 꿈을 찾지 못하던 큰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의상디자인을 해보고 싶다며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취업을 위해 공대에 가려고 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디자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작은아들도 "엄마, 내 꿈은 뭘까?"라며 열심히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실만 바라보며 침몰하지 않고 꿈을 찾아 날개짓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하지만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련의 언덕도 넘어야 했고, 속도 조절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늦게 간다는 사실에 지레 겁먹고 스스로 멈춰 서버리는 분도 많습니다. 방향성만 맞는다면,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은 꾸준함입니다. 처음 우리 가슴을 떨리게 했던 그게 무엇이었는지? 그 때의 그 마음을 지켜내고 지켜나갈 때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욕심에 눈멀지 말고 꾸준히 자리를 지키면 현실로 변한 꿈을 만나게 될 겁니다.

FOUNDERS DIAMOND

조성림&이규만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파트너를 주인공으로 세우는 파운더의 사업

다양한 자영 사업을 경험했기 때문에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시작할 때의 암웨이는 다른 일들보다 오히려 쉬웠습니다. 파트너들이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의 일까지 빨리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돕는다는 생각으로 일을 빼앗아서 해버리니까 그들은 오히려 스스로 해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잘하도록 돕는 것과 그들의 일을 대신하는 것은 전혀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해내라고 보채니 화가 나고 미운 마음이 깃들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선 마음을 깎아야 한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암웨이 사업이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시스템을 따르자 사업은 기적처럼 저절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된 지 1년 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핀업을 하면서 돕는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의 타이밍에 맞추고 기다릴 수 있을 때 성취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암웨이는 파운더스가 본질인 사업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시각에서 더 먼 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조성림 리더는 디자이너였고, 이규만 리더는 지금도 애니메이션 사업을 겸업 중입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슷한 조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순간을 즐기기보단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누군가를 돕는 커다란 즐거움을 깨달았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이죠. 처음에는 비즈니스라는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했지만 언젠가부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기쁨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크고 사랑이 크면, 속도가 다른 많은 사람들과도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의 올타리가 넓어진 거겠죠.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데에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의 기준이 넓어집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 성장보다 여섯 레그 파트너들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더 탄탄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성취의 원동력이겠죠.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나를 낮추는 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자본 없이 누구나 스타트업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나이를 포함한 그 어떠한 이유들도 시작에 걸림돌이 안 되는 사업, 시스템이 있어서 스스로 마음먹기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암웨이 말고 존재할까요?

FOUNDERS DIAMOND

최옥다

2018년 9월 1일부 / 울산시

기회를 선물하고, 꿈을 키워주는 암웨이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결과와 작은 실패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점점 선택의 기회들은 줄어들고, 꿈꾸기조차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암웨이는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가치는 너무나 평범해서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멋져 보여도 내가 시작할 수 없다면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는 지금의 내 환경에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작하고 노력하면 변화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상황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까지 달라집니다. 늘 부정적이고 흑백논리가 강하던 저는 세상을 다양한 색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도 변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어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아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제 아들의 더 나아진 미래만 꿈꿨는데, 이제는 세상의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암웨이 속에서 꿈은 그렇게 커져만 갑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전업주부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는 지출하는 사람입니다. 생필품이니까 피할 수 없는 지출인데, 그게 사업의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업을 결심했습니다. 살림 잘하는 주부였기 때문에 자신 있었습니다. 주부라는 프로필이 스펙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암웨이 말고 또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던 비결은 뭐죠?

이미 암웨이 비즈니스를 이해해버렸으니까요. 탄탄한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1차 소득 때문에 자산을 포기한다면 미래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뎌내어야만 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단어를 골라주세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요. 상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파트너들이 아직은 뛰어야 할 때예요. 그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깃발을 들었더니 이런 결과가 왔네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위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마음이 평화롭고 양심에 가책됨이 없어야 한다." "실패는 지혜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곤 한다."
—〈솔로몬이 전해주는 부자가 되는 31가지 지혜〉

FOUNDERS DIAMOND

한순영&권상혁

2018년 9월 1일부 / 대구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한순영 리더는 수학 과외 선생님이었고, 권상혁 리더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친정엄마께 집을 사드리는 게 꿈이었습니다. 암웨이라는 수단으로 꿈을 이루면서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타인의 꿈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넘어 파트너들의 꿈까지 바라보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가능성과 변화. 개인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내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이아몬드의 라이프스타일을 파트너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응원단장으로 그들을 돕다 보니 자연스레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한순영 · 권상혁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착한 꿈들이 모여 만든 기적. 못된 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면서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별명은 응원단장입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피천득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가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니까요. 평범하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수단입니다.

시스템 위에 인생을 올리는 지혜

월 소득은 높았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소득이 아니다 보니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후원 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의 잠자는 거인이 깨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꿈을 꾸고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도와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암웨이의 시스템은 놀랍습니다. 꿈을 설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등 모든 도움이 이 안에 있으니까요. 시스템은 성공자들이 시행착오를 수정하면서 거쳐온 최고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현명한 사람은 시스템 위에 인생을 올리는 이겠죠. 그 길을 따라가면 방향도 맞고, 올바른 목적지에도 안전하게 도착할 테니까요. 그런데 시스템이란 도로를 혼자 달릴 순 없습니다. 함께해준 파트너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오늘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는 인간관계의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속도가 더딜 수도 있지만 사람 사이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나무와 열매는 커집니다.

DIAMOND

김정옥&강민정

2018년 3월 1일부 / 경북 구미시

긍정과 확신의 팀워크로 사람을 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양가 부모님을 포함해 주위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과 두 살 된 남자아이 둘을 부탁할 곳이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돈을 내고 아이를 맡길 때면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끼리 대화하며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줬습니다. 남편은 추진력이 좋고, 저는 세상과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서로 다르기에 저희 부부는 더 좋은 팀워크를 발휘하며 이번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단 본인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목표대로 걸어가면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단, 그 발걸음에는 반드시 감사와 정직, 사랑이 실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비자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네트워크 역시 커지기 힘듭니다. 사람에게 실망스럽거나 아쉬울 때면 상대를 처음 만났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보세요. 상대를 진심으로 품을 수 있을 만큼 커진 자신을 만날 겁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매 순간 성장하고 정직해질 수 있도록 암웨이를 소개해주셔서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정옥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강민정 리더는 건설 기계 덤프트럭을 몰았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친구를 통해 5년간 암웨이 제품을 사용하다 캐시백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이후 사업 설명을 듣고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던 순간은 없었나요?

사업 초기, 주변에서 반대해서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김정옥 리더는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논밭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주변의 반대가 클수록 대화를 통해 믿음을 다졌죠.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부부가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면서, 파트너를 비롯한 사람에 대한 믿음과 배려가 생겨났습니다.

다른 직업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노력이 쌓인다는 점? 암웨이에선 미래의 변화를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를 뽑아주세요.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김정옥 리더는 만화가게 주인으로, 강민정 리더는 운동에 전념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 거예요.

DIAMOND

석선영&최재영

2018년 4월 1일부 / 경남 마산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석선영 리더는 장학재단에서 근무했고, 최재영 리더는 조경 사업을 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점에 마음이 끌렸나요?

암웨이 사업이 주는 세 가지 라이프스타일, 시간 부자 · 경제 부자 · 친구 부자.

사업이 어렵던 순간은 없었나요?

부부의 팀워크가 흔들리면서 잠시 정체기를 보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오기 어린 성장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석선영 · 최재영 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창업자 정신을 중심으로 깊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팀.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공감 능력이죠. 사람에 대한 이해. 누군가를 한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매년 한 핀씩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믿고 사랑하며 감사하는 여유 속에서 가족 비즈니스를 하고 있겠죠.

믿음이 일구어낸, 풍요로운 삶

암웨이 사업 시작 후 초기 2년 동안 열심히 했고 3년간 좋은 실적도 올렸습니다. 사업에 큰 열정과 자신감은 있었지만 결단 부족과 부부의 팀워크 부재로 사업은 어려워졌습니다. 파트너의 갑작스러운 떠남, 사업에 대한 서로의 지나친 열정, 거기에 시아버님의 대수술이 겹쳐 남편은 잠시 사업을 떠나게 되었고 저 혼자 사업을 일으키려고 동분서주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성장은 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던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시간이 제게는 파트너들의 상황과 남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돌아온 남편 역시 힘든 시기를 버틴 저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랜 정체기를 뚫고 지난해 저희 부부는 오기를 부리듯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파트너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껏 파트너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여겼지만, 그들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저희 때문에 멈춰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힘을 봤습니다. 긴 정체를 디디고 일군 이번 성취는 절대적인 믿음과 팀워크의 결과입니다. 암웨이의 창업 정신, 팀워크,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DIAMOND

임수정

2018년 5월 1일부 / 경기 수원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의류 디자이너로 15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나요?

따뜻한 가족을 만드는 것이 제가 암웨이를 하는 이유입니다. 암웨이 이념 중 하나가 '가족'이듯, 암웨이라는 수단으로 내 사람, 내 가족을 만드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평생 함께할 것만 같던 파트너들이 떠나갈 때요. 현재의 경제적 · 관계적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은 뭔가요?

스스로를 헝그리하게 벼랑 끝으로 몰았고,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합니다.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30분 안에 집으로 오지 않으면 어머니의 임종을 볼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걸음에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진짜 목표라면 상황과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나 자신이죠. 스스로를 찾아가는 길이 행복해요. 내 안에 이런 내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진짜 사랑과 진짜 믿음이요.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오뚜기 근성. 쓰러져도 빨리 일어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다고 할까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만드는 미래

15년간 디자이너로 제법 인정도 받았고 안정적인 수입도 올렸습니다. 암웨이의 후원 수당과는 달라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자유, 가족, 희망이라는 암웨이만의 가치를 알게 되자마자 과감히 회사를 나섰습니다. 암웨이는 여러모로 다른 세계입니다. 수입의 성격 역시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1차 수입이 아니라 안정성 있는 후원 수당을 보장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에만 연연해선 안 됩니다. 파트너와 소비자를 생각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며 더 큰 나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 인정식장의 자신을 떠올려보세요. 미래의 자신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미래의 나는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할까요? 제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를 믿으세요. 스폰서의 조언이 큰 도움을 줄 순 있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와 파트너는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도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내일을 위해 오늘을 투자한다면 희망찬 미래가 어느새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을 겁니다.

DIAMOND

김진호&조인숙

2018년 6월 1일부 / 대구시

양보와 섬김으로 관계의 탑을 쌓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이 길었던 만큼 고생도 많았는데 잘 이겨준 자녀와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해준 파트너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유학을 잠시 멈추고 군 입대한 아들이 제대하기 전에 다이아몬드를 이루어내서 너무 기쁩니다. 제대 전에 이 핀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제 개인 능력이 강했을 때 오히려 저는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신감에 넘쳐서 어떻게든 상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게 된 지금, 떠나간 분들을 되새겨보면 그분들은 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떠난 게 아닙니다. 인정하고 존중해주지 않았기에 놓쳤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일이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일이 아니라 사람 관계죠. 이제 그 답이 좀 보입니다. 무조건 내가 지면 되는 게임입니다. 내가 져야 이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관계 비즈니스는 손해를 쌓아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내가 옳을 때에도 져주고 양보하다 보면 상상 외로 커진 네트워크를 만나게 됩니다. 스폰서님을 믿고 시스템만 따라간다면 누구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진호 리더는 현재도 식품 유통업을 운영 중이며, 조인숙 리더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점에 끌렸나요?

사업 소개에서 유통 구조의 미래에 대해 들었습니다. 암웨이가 삶을 바꿔줄 수단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사업이 어렵던 순간은 없었나요?

목표보다 성취 시간이 길어지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꼈습니다.

위기 극복의 노하우는 뭔가요?

어려울수록 더 낮아지고 기도하며 꿈을 이루는 기회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바랐던 꿈은 뭔가요?

나처럼 누군가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리더가 된다는 것.

암웨이를 통해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바뀌었나요?

생각의 변화죠. 부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섬기는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가 다른 일과 가장 다른 점은 뭘까요?

매슬로우의 5단계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생리, 안전, 사랑과 소속, 존경, 자아실현의 욕구 모두를 말입니다.

DIAMOND

박기락&김효숙

2018년 6월 1일부 / 경기 성남시

큰 비즈니스를 받아들이는 큰 그릇

대부분 벅찬 마음으로 암웨이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사업인지 깨닫고 얼마나 많은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에 부풉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의 생각들은 쪼그라듭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하기만 하던 이 사업의 규모를 머리로 정리하고 몸으로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이 놀라운 비즈니스를 할 만큼 큰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움직이는 낮에는 그래도 낫습니다.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온갖 잡념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이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사업을 힘들게 하는 무수한 핑계들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암웨이는 우리가 처음 바라보았던 거대한 사업이 맞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작은 생각으로 너무 많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큰 사람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싸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우리가 조금만 더 큰 그릇이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10년의 호흡으로 도전하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처음 바라본 거대한 암웨이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기락 리더와 김효숙 리더 모두 현재 직장 생활과 암웨이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나요?

암웨이만큼 리스크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업은 없어요. 보상이 크고 지속적이라는 사실도 매력적이죠.

암웨이 사업을 통해 삶의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나요?

전에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늘 불안했어요. 지금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생각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직장과 달리 암웨이는 사람의 진짜 능력을 끌어내는 사업입니다. 또 시간이 흐른 후에는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줍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단어를 하나 선택해주세요.

사랑이죠. 모든 사람은 다르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하나씩을 찾아서 집중하면 누구라도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큰 고마움을 느껴요. 사업하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언제나 '앤드 파트너'입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The One Thing'. 우리 삶에는 다양한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만 하나만 풀어내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개념이에요.

DIAMOND

박선미&오태양

2018년 6월 1일부 / 경기 구리시

선한 부자 되기 프로젝트

암웨이의 문화가 좋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 문화의 이면에는 암웨이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암웨이란 결국 '선한 부자 프로젝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태양 리더는 '키다리 아저씨'라는 표현을 무척 좋아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도와주는 행복을 함축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영향력을 키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는 스폰서님께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몇 해 전, 스폰서님 가운데 한 분께서 갑작스레 유명을 달리하셨지만 저희는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다이아몬드를 이루어냈습니다. 냉철함과 따뜻함을 모두 지녔던 그분께선 '도전을 했으면 끝까지 갈 것'과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암웨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지름길은 끊임없는 지속력과 감당해내는 능력입니다. 힘들 때면 우리에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생각하세요. 또 어떤 위기나 크고 작은 사건들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꿈을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항상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시고, 함께 애써주시는 스폰서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저희가, 이제는 파트너님들을 돕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선미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오태양 리더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점에 끌렸나요?

암웨이 문화요. 요리를 배우려다 암웨이를 알게 된 박선미 리더는 암웨이 문화에 매료되어 사업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렵던 순간은 없었나요?

사업 초기의 조급증. 목표를 급하게 잡아서 성취 속도 때문에 가슴을 태웠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사업을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기에 남편에게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오태양 리더가 사업에 합류하면서 위기 극복의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박선미 · 오태양 팀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밝고 유쾌한, 때로는 시끄러운 팀! 흥부자가 많아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신뢰보다 신의! 신의는 신뢰와 의리의 합성어예요. 서로간의 도리를 포함한 약속을 잘 지켜야 해요.

최근 마음에 들어온 한 줄의 문구가 있나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DIAMOND

배지은&권중혁

2018년 6월 1일부 / 인천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배지은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권중혁 리더는 현재 의사로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뭔가요?

친정아버지께서 지난 5월에 임종하셨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좋아하신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올 파트너들을 생각했죠.

암웨이 사업을 통해 삶의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나요?

아이들에게만 올인하다가 인생 후반을 설계하는 삶으로 넘어갔어요. 아이들은 학원 대신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겠죠?

1년 후의 삶을 그려주세요.

배지은 리더는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권중혁 리더는 병원 업무의 비중을 줄여가고 있을 겁니다.

10년 후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파트너의 자녀들과 함께 의료 선교를 떠날 거예요. 멋진 부모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암웨이 안에는 모두 다 있어요. 그리고 암웨이를 깊이 알수록 예수님의 삶을 따르려는 크리스천에게 깊은 깨달음이 생겨요.

자유를 주는 사업, 총체적 행복을 주는 암웨이

남편인 권중혁 리더는 의사입니다. 다들 부러워하는 전문직이지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시간의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웨이의 자산 가치를 발견한 저는 남편에게 자유를 줄 수 있겠다는 희망으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후 우여곡절이 없진 않았지만 진짜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다. 작은 문제들이 시야를 어지럽힐 땐 우리의 장기적인 꿈을 떠올리면 됩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려고 대학 과정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합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쫓기보단 긴 호흡으로 시간을 투자해야만 진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암웨이는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남편은 언제나 FM대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훌륭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암웨이는 그런 그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바르고 옳은 인생 여정은 외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암웨이 안에서 저희는 훨씬 다양한 사람을 이해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모든 면에서 충만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허성진 리더는 주부였고, 강병훈 리더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점에 끌렸나요?

한결같은 스폰서님, 마음을 사로잡는 좋은 제품. 반년간 소비자로 생활하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던 순간은 없었나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사업을 시작했을 때. 큰아이 육아도 병행해야 했으니까요.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뭘까요?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는 점? 더불어 우리 가족도 더 행복해졌어요.

허성진 · 강병훈 팀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신나는 암웨이! 젊고 밝은 팀이라고 할 수 있죠.

암웨이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는 뭘까요?

희생과 섬김. 스폰서님은 그 모범이 되어주셨어요.

다이아몬드 성취의 원동력을 들려주세요.

간절함과 꾸준함이죠.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핀업하면서 떠오른 사람은 누구죠?

스폰서님(더불어 업라인 스폰서님).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의 사업이니까요.

DIAMOND

허성진&강병훈

2018년 6월 1일부 / 경기 수원시

시작도 실력이고 용기도 선택이다

처음 사업에 도전할 땐 망설이지 마세요. 시작하는 게 실력입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고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건 다양한데, 그 꿈을 이루어줄 수단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저희에게 사업을 소개해주신 분들은 모두 대단한 커리어우먼입니다. 저희는 상대적으로 빈곤했고 내세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려 생각해봤습니다. 암웨이의 모든 제품은 생필품이고, 생필품을 일반 주부보다 잘 쓸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업 아이템은 오히려 저희에게 더 유리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업에 임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되새겨보면, 그런 순간에 많이들 포기하겠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럴수록 미팅에 더 전념했고, 스스로를 북돋아줄 책을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스폰서님들께선 저희들을 믿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 보상해드리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암웨이의 보상은 매일매일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한 보상입니다.

DIAMOND

황지영&장기성

2018년 6월 1일부 / 부산시

장애물을 넘어, 팀으로 하나 되어

살다 보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돌아가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한때의 장애물은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있게 해주는 발판이 됩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장애물에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문제를 함께 해결할 팀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언제나 팀을 먼저 생각해야 진짜 리더입니다. 팀을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통찰력을 가지고 늘 고민해야 합니다. 파트너 한 분 한 분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함께 뛰면서 팀워크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업다운이 없을 수 없습니다. 팀워크는 가라앉은 동료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내가 다운되었을 때에는 동료가 내 손을 잡아줍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견인차가 되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팀입니다. 저희 팀은 친구와 가족으로 시작했기에 빨리 뭉칠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우리는 해낼 수 있고 더 행복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황지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장기성 리더는 지금도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점에 끌렸나요?

삶의 숙제를 끝낸 듯한 스폰서님을 보고 안정적인 미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삶의 어떤 부분이 가장 달라졌나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고,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다른 일은 윈윈하기 힘들어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니까요. 여기에선 윈윈이 핵심이죠.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를 뽑아주세요.

소통 잘하기. 늘 상대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 이야기를 경청해야 해요!

1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네트워크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하겠죠. 더 많은 파트너들과 여행을 만끽할 테고요.

10년 후에는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공부를 마치지 못한 우리 부부라 배움에 한이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도 배우려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는 리더의 길

교회 친구로 만난 남편은 언제나 제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암웨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할 일을 나눴습니다. 저는 암웨이에 집중하기로 했고, 노경국 리더는 육아와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목표보다 훨씬 빠른 4년 만에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되었지만 성장은 멈춰버렸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족 때문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는 결과만 바라보면서 작은 충돌들을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선택지에서 제외해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무시하고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순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남편이지만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에서 그를 배제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이번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모난 사람이 시야를 넓히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것, 그게 리더의 길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지훈 리더는 가정주부였고, 노경국 리더는 군의관이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과거에는 한 번도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스스로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내 것이라는 점이 가장 다르죠. 갑과 을의 차이라고 할까? 암웨이에서는 대안 없는 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박지훈 · 노경국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내적 성장에 집중하는 진짜배기 팀이요.

1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사하면서 집을 트리플 하우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집에서 레그마다 다이아몬드를 배출해내고 있을 거예요.

10년 후에는요?

파트너들을 모두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경국 리더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의사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근 마음에 와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포도송이가 매달려만 있으면 함께 영글어간다." 딱 암웨이 사업 같아요.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팀이 함께하기에 성숙해지는 것이니까요.

DIAMOND

박지훈&노경국

2018년 7월 1일부 / 경북 포항시

DIAMOND

우은하&이형일

2018년 7월 1일부 / 서울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얻는 사업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얻으면 너무 쉬워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형부와 함께 사업을 했는데, 조카에게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형부가 일에 몰두할 수 없게 되면서 형부 쪽 파트너들을 잃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는 남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희 일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소비자를 대신 만나기도 하면서 땀 흘렸습니다. 그리고 행동과 결과로 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가장 약했던 레그가 가장 크고 탄탄한 레그로 바뀌었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우리의 그릇을 키워주기 위한 시련입니다. 상대를 더 높이 받들고 그들을 더 크게 사랑하려고 스스로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단하면서 더 큰 사람이 됩니다. 삶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힘든 시기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더 큰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암웨이는 사람으로 시스템을 쌓아가는 사업이니까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우은하 리더는 피아노와 플루트 강사였고, 이형일 리더는 IT 전공 분야 교수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삶에 대한 가치 변화. 암웨이를 통해 인생을 배운 셈이죠.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암웨이는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만들어냅니다. 또 스스로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달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요?

섬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바라보면서 상대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고 배우려고 했어요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선교 클럽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핀업 당시 사장 고마웠던 사람이 있나요?

늘 기도해주신 목사님들과 스폰서님. 언제나 응원해주셨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성경에 나오는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DIAMOND

허해연&권영강

2018년 7월 1일부 / 서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허해연 리더는 면세점, 권영강 리더는 여행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속 직장을 다녀야 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일이 지루하기도 했고요. 그때 암웨이를 만났던거죠.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성격과 가치관입니다. 전에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는데,
암웨이에서 희망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스폰서를 100% 믿고 따르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30세 전에 인생 숙제를 완성하기 위해 이미 성공한 선배들의
경험과 발자취를 복제했기에 성취할 수 있었어요.

가깝거나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더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와줄 생각이에요. 물론 세계 일주도 빼놓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방향성, 올바른 행동으로 삶을 바꾸다

젊은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들만으로 삶을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생각을 한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잘살고 싶다는 저희의 꿈은 어렴풋하기만 하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비전을 보여준 건 스폰서님입니다. 스폰서님의 삶을 보면서 방향성을 찾은 저희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찾았습니다. 바로 암웨이입니다. 비전을 발견하고 도구를 선택했다면, 꿈을 어떤 태도로 이루어갈지 고민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중국 동포이다 보니 주요 파트너와 소비자도 동포들입니다. 나이도 어려서 소비 능력이 약하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암웨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도 없이 거절당했지만, 밥을 먹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항상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은 결과 아파트로 이사하고 좋아하는 자동차를 샀습니다. 매년 혼자 아닌 파트너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함께 성취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암웨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DIAMOND

황은옥&이재성

2018년 7월 1일부 / 대전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황은옥 리더는 유치원 교사였고, 이재성 리더는 지금도 암웨이와 직장 생활을 병행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011년 말 입원할 당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제대로 사업을 시작도 못 했는데 고민하는 상황이 억울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나요?

1년만 제대로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결과 그해 파운더스 플래티늄까지 달성해 코타키나발루로 리더십 세미나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뭘까요?

소통이죠. 부부 사이는 대화가 늘어났고, 아이들과도 공감대가 많이 쌓였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점도 중요한 변화죠.

성취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재성 리더는 배려심이 깊고 사업을 크게 바라봐요. 황은옥 리더는 정확한 목표 설정과 강한 추진력이 있고요. 연애할 때 몰랐던 장점들을 암웨이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엄마의 노력으로 아이들에게 지구를 선물한다." 강의 도중 나온 말인데 계속 머릿속을 맴도네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

암웨이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진 못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 암웨이를 시작하기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쉽게 만났기 때문인지 사업을 취미만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모임에는 나오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내뱉곤 합니다. 우리가 암웨이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꿈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모습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몸이 아파서 사업을 이어가야 할지 말지 갈림길에 선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노력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기가 너무 억울해서 1년만 제대로 노력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때의 결단으로 오늘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암웨이는 누구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성공할 수 있는 일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파트너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의 미래까지 바꾸고 싶습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따라오지 않는 이를 억지로 끌고 갈 순 없습니다. 함께 갑시다. 손을 놓지 말고 성공자의 걸음걸이로 함께 이루어냅시다.

DIAMOND

강정애

2018년 8월 1일부 / 대구시

꿈에 집중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스스로 꿈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사업을 놓아버리는 이를 보곤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한 일일까? 조금은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혹하기보단 자신의 꿈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과 역할이 있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잘하려고 하고,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에 흔들리는 '착함'이 진짜 착한 것일까요? 물론 이리저리 흔들려도 포기하지 않으면 돌고 돌아 결국은 목적지에 이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쳐버리더군요. 꿈은 모두 달라도 누구나 성공을 바랍니다. 회사의 이윤에 앞서 사업자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암웨이의 창업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믿어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이 두텁고 꿈이 분명하면 성취를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질 겁니다. 다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듭시다. 좀 더 빨리 성취를 이루고, 좀 더 좋은 보상을 누리길 빕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영어교사로 일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나요?

여행 프로그램이 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통해 많은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시간의 자유가 아닐까요? 암웨이는 스스로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연금 소득을 얻기 위해선 정해진 시간이 필요하지만, 암웨이에선 내 노력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에 어긋나는 일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떠올리는 책 제목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돈을 버는 일은 많지만 꿈을 이루는 일은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인생의 모든 변수에 대처하면서 노후의 존엄성을 지켜줄 보험 같은 사업입니다.

DIAMOND

구미정&천명갑

2018년 8월 1일부 / 대구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구미정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천명갑 리더는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개인 사업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죠. 혼자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처음에는 사람들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생계형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해내야만 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참을성이 늘어나고 세상을 보는 눈도 넓고 깊어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남편 사업의 굴곡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겸손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스스로 잘났다고 착각하게 되고, 거기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스폰서님께선 제게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겸손해지라고 늘 충고하십니다.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더 치열하게 전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온화하고 여유롭게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리더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은 편안하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을 향할 때 높아지는 리더십

제 스폰서님은 2년 전에 다이아몬드가 된 친언니입니다. 자매인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지만 더없이 고마운 은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암웨이 이상으로 사람을 발전시키는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스폰서님이었습니다. 저를 빛나는 보석으로 갈고 닦아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업을 접했다면 많이 부딪히는 것 이상의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같은 보석 앞에 왔다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작은 성취 속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우쭐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를 봐주는 건 스폰서님입니다. 제 스폰서님께선 늘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겸손해지라고 충고해주십니다. 가르침 덕분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새로 만난 파트너에게도 나보다 나은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상대의 단점을 찾아 불만에 스스로를 몰아넣는 행위는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먼저 찾아보고 누구에게든 배우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사업은 더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DIAMOND

김도연&최성희

2018년 8월 1일부 / 부산시

삶의 구조조정을 통한 목표의 실현

많은 사람이 열심히 사업을 하지만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 그 차이는 우선순위가 명확한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이루어낸 비결은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도록 생활을 구조조정한 것이죠. 그다음으론 세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다른 곳에서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해도 암웨이에선 첫 출발하는 겸손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로베이스로 돌아가야 성공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 무지와 의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무지한 사람은 의심 속에서 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으니까요. 이 비즈니스의 보상은 노력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 결단에 대한 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자질입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스스로 리더십을 쌓고 모범이 되지 않으면 꿈의 제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도연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최성희 리더는 회사원으로 겸업 중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진작부터 제품에 감동을 받았지만 암웨이의 플랜을 이야기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오랜 뒤에 이 플랜을 듣자마자 보물을 발견한 듯 기뻤고 바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안목이 있었던 듯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우리에겐 사업이 너무 소중해서 큰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문제였죠.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상대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우물을 파듯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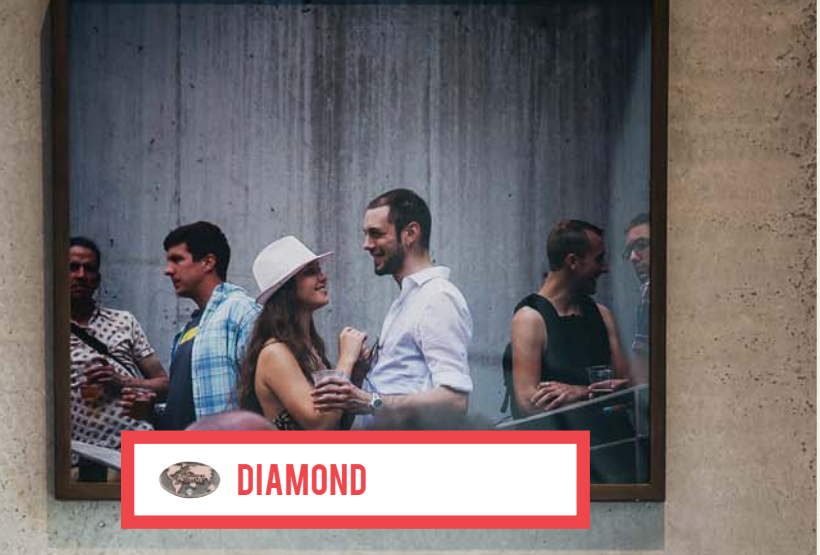
사고방식이죠. 암웨이 전에도 꿈은 있었지만 그 폭이 좁았습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는 암웨이를 통해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꿈을 더불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 · 최성희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개성 넘치고 특별한 팀. 20대 후반과 30대 초 · 중반의 젊은 리더로 구성되어 톡톡 튀면서 재미있는 팀이에요.

성취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른 한 명은 누구인가요?

아들이에요. 그동안 함께 있어주지 못한 게 미안했지만 드디어 엄마가 이루어낸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기쁩니다.



DIAMOND

김선민&최성식

2018년 8월 1일부 / 경기 용인시

총체적 행복을 향한 종합 수업

암웨이는 제게 돈만 벌게 해준 사업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귀가 얇아서 이게 좋다거나 저게 좋다는 이야기에 쉽게 혹했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좇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암웨이에서 꾸준히 스스로를 연마하니 겉모습이 아닌 본질, 제게 중요한 진짜 핵심을 찾게 바뀌었어요. 쉽게 흥분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바뀐 거죠. 변화는 육아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좋은 영향이죠. 좁은 식견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우기보단 아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조언이 가능해졌어요. 암웨이는 학교 같아요.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해주는 모든 과목이 여기 있어요. 팀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톱니바퀴 사업이라 함께 행복해지는 결론을 향해 손잡고 나아가게 되죠. 저는 두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려고 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암웨이가 아니면 이런 용기도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버텨주려면 시간과 경제적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암웨이에서 총체적 행복을 함께 그려가길 희망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선민 리더는 식품회사 연구원이었고, 최성식 리더는 지금도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의 어떤 점에 마음이 끌렸나요?

선착순이 아니라 노력 순으로 성공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요.

직장 생활을 할 때와 암웨이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나 자신의 일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김선민 · 최성식 팀의 성격을 한단어로 표현해주세요.

와도 와도 또 오고 싶은 팀. 사람들이 모두 편안해서 미팅에 와본 분들은 다시 오고 싶다고들 하세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꼭 명심해야 할 점은 뭘까요?

반응하지 말자! 상대방 말을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요. 상대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 때 사업은 수월해집니다.

다이아몬드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상담을 하고 그 내용을 빠르게 행동으로 옮긴 것. 그런 정확한 방향성과 속도가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행동할 방향을 정확하게 타깃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왕이 되고 싶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미팅장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팀을 이끄는 다이아몬드다운 책임감을 가져야겠죠?

DIAMOND

김성환&이진아

2018년 8월 1일부 / 경남 창원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성환 리더는 현재도 직장 생활 중이고, 이진아 리더는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 개발자였으며 암웨이를 만날 당시는 주부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함께했던 파트너가 이 사업을 떠났을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꿈을 가진 사람을 새로 찾았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으니까요.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회사의 직장 상사 모습에서 희망을 찾지 못했는데, 암웨이에선 하루하루가 가슴 떨립니다. 경쟁보단 서로 돕는 일이라는 점도 좋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끊임없는 배움이요. 배움엔 끝이 없어서 좋아요.

1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팀 행사에서 핀별로 다른 색깔의 티셔츠를 입어요. 많은 파트너가 보석핀으로 성장해서 알록달록한 팀컬러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의 홈미팅 사무실을 내는 것도 꿈입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아버지입니다. 5~6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오른쪽 마비도 왔는데 칠순 선물로 다이아몬드 핀을 선물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꿈과 책임감은 다이아몬드로 빛나고

저의 총각 시절 별명은 오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월수입 500만 원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사업 설명회를 듣자마자 암웨이 사업을 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2007년부터 5년간 사업을 멈춰야 했습니다. 결혼 전 전문직이었던 아내는 두 아이의 엄마인 주부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늘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꼈고, 암웨이 사업에 대한 미련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스폰서였던 이진아 리더 친구가 또다시 찾아와서 요리 미팅을 하면서 다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진아 리더는 요리 미팅으로 꿈이 있는 새로운 파트너들을 찾아나가고, 저는 예전에 사업을 전했던 파트너들에게 찾아가 암웨이 사업을 프러포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암웨이 재수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패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죠. 맞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잠시 멈춰서더라도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결국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전했던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도 끝내 암웨이를 다시 시작하도록 만든 이유였습니다. 이 사업을 잠시나마 떠났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해내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꿈이 분명하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책임감이 굳건하다면 결과는 확실합니다. 누구나 다이아몬드, 아니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DIAMOND

김숙이&김원기

2018년 8월 1일부 / 서울시

천천히 인생의 버팀목을 쌓는 일

남편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 나만의 수입처를 가지고 싶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10년이 지나서 스스로를 돌아보니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사업을 소개받은 사람들의 가장 흔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무조건 '나는 못한다'는 부류와 '잘할 자신은 없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보고 싶다'는 부류로 나뉘죠. 저는 후자였습니다. 얼마 전 "너는 10년간 많은 걸 버리고 많은 걸 쌓았구나.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고교 동창에게 들었습니다. 특별한 재주가 없어서 남보다 더뎠을지 몰라도 성장했다는 뜻이겠죠. 자랑할 만한 친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고맙던지….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깝습니다. 암웨이는 당장의 빵을 해결해주는 일확천금의 사업은 아닙니다. 삶의 버팀목을 만드는 준비 사업입니다.
지금은 남편 사업이 경기의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아이의 학비를 책임질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희에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과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 준 안정의 선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숙이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원기 리더는 지금도 중소기업 대표로 재직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뭔가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남을 내게 맞추려고 했기에 힘들고, 변화하는 데 꽤 긴 시간이 필요했죠. 한 3년 정도? 리더십 서적과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것이요. 특히 남편에게 인정받으면서 기뻤어요. '아이 잘 키우고 내조하는 것'이 본분이었는데, 이제 그 이상의 제 삶을 찾았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굳은 의지와 믿음이죠. 초기에 사업 환경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환경보다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의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1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11년간 사업하면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미뤄두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가는 여행, 배우고 싶은 것, 좋아하는 운동 등. 하지만 포기가 아니라 잠시 접어두었던 겁니다. 1년후부터는 하나씩 끄집어내고 싶습니다.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자유로운 삶. 곳곳을 누비며 공간 이동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DIAMOND

김지영&박승민

2018년 8월 1일부 / 경기 성남시

가치로 행복을 쌓는 사랑의 사업

남편은 닭고기 유통업체를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찬 바람이 불면 조류독감을, 여름엔 더위로 인한 폐사를,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선 날씨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암웨이 사업은 노력한 만큼의 정확한 보상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저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경제적인 준비 수단으로 선택했던 일이지만, 암웨이는 이제 저희 가정에 사업 그 이상의 의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배움의 재미, 나눔의 기쁨, 함께 성장하는 감동, 관계 속에 느끼는 보람까지. 많은 가치들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저희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사업을 통한 가장 큰 배움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도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복 위에 이루어지지 않은 도전은 오래가기 힘듭니다. 도전에 앞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본질임을 이제는 압니다. 재정적인 안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보다 높은 가치와 행복의 마음가짐까지 아이들에게 상속할 수 있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지영 리더는 대학원생이었고, 박승민 리더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감사를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에도 가고 보너스도 받고 있었는데, 사업 초기 그토록 원하고 꿈꾸던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던 그때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탑리더님의 조언을 따라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이틀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점점 달라졌어요. 매 순간 감동이 찾아오고 행복해졌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끌어와서 걱정하던 저였는데, 이제 미래를 긍정적으로 상상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걱정보다는 해결 방법을 먼저 찾고 풀어나가며 그 과정에서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전에는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몰랐습니다. 진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자,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본질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 마디가 있나요?

"곤경에 빠지는 건 뭔가를 몰라서가 아니다. 뭔가를 확실히 안다는 착각 때문이다." –마크 트웨인.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본다면?

저희 부부는 대학 시절 댄스스포츠를 함께 했습니다. 댄스스포츠 세계 대회가 열리는 영국 블랙풀에 가 있지 않을까요?

DIAMOND

박순옥&지종림

2018년 8월 1일부 / 경기 의왕시

시도와 반복, 변화와 성공의 사업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사업을 해낼 수 있을까요? 성공을 향한 핵심 질문은 이 두 가지이고, 답은 이렇습니다. 간절한 와이(Why)가 필요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으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판단해선 안 됩니다. 암웨이는 변화의 사업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성취는 자연스레 따라옵니다. 현재의 자존감과 능력으로 지레짐작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성공자의 과거도 늘 화려하진 않았다는 사실이 제게는 동기부여가 되곤 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마음이 끌리지만 성공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론 어려울까 봐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간신히 첫발은 떼었지만 성공의 요소를 반복하지 않고 멈춰선 경우. 일단 한 발을 내딛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다음 발을 내딛으세요. 그 발걸음이 모여서 변화가 됩니다. 변화는 반복이며 시도입니다. 만나고, 배우고, 설명하고, 안내하는 모든 시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걸음걸이가 이어지면서 여러분은 성공자로 화려하게 변화하고 있을 테니까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순옥 리더는 간호사였고, 지종림 리더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혼자 하는 일에 익숙했기 때문에 팀워크를 만드는 일이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때로 밉다고 가족과 헤어질 수 없듯 평생의 만남이란 마음으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긍정적인 시각이요. 사고와 가치가 달라졌고, 만남이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관계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핫 버튼이요. 내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포인트를 알고 대화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믿었어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에 대한 믿음을 이어오니까 상대도 제 마음과 잠재력을 알아주더군요.

핀업 성취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는 누구인가요?

아이들이죠. 큰아들은 22세로 군대에 있습니다. 입대 전에 세미나에도 참석하고, 3% 정도의 사업도 해봤습니다. 상속자이기도 한 아들에게 성취의 모습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회를 주는 사업이니까요.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의 영역이 자꾸 사라져요. 외부 환경이 변화해 기회가 사라질 때 생필품 사용만으로 기회를 준다니 놀랍지 않나요?

DIAMOND

박인선

2018년 8월 1일부 / 인천시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꽃은 핀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업에 뛰어든 후 처음에는 말 잘하고 발 넓은 사람이 부러웠어요. 하지만 암웨이는 특별한 재주를 지녔다고 잘하는 사업이 아니더군요. 다른 사업에선 남이 나를 좋아해줘야 빨리 성과를 낼 수 있죠. 그런데 암웨이에선 내가 상대를 좋아하는 게 우선이에요. 남이 나를 좋아하는 건 둘째죠. 내 진심이 들어가야 스스로 당당해져서 꾸준할 수 있어요. 또 진심에는 정성이 따르기 마련이라 상대도 결국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언젠가는 되리라는 믿음으로 진심과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으니까요. 암웨이를 믿으세요. 시스템을 믿으세요.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파트너님들을 믿으세요. 암웨이라는 회사의 성공 스토리는 누구나 알 거예요. 암웨이가 되는 건 누구나 아는데, 문제는 내가 될 수 있는지 믿지 못해 흔들린다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 당장 미래의 성공을 볼 순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습관화된다면 암웨이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평범한 주부들도 마침내 성공을 일구는 곳이 암웨이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도전하면 여러분도 성공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7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암웨이를 만났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웨이의 사업 아이템은 생필품이니까요. 누구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전업주부가 과감히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전업주부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암웨이 외에 또 있을까요?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시야가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나와 아이들만 생각했는데, 언젠가부터 주변과 타인의 행복까지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다른 직업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다른 일로 노력하면 머니 리치의 보상을 받아요. 암웨이는 머니, 타임, 프렌드의 쓰리 리치 사업이라 삶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인선 팀의 성격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스펙 없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모여서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팀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평범한 엄마들이 따뜻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을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숙제도 봐주고 저녁도 먹이고 싶어요. 제가 월세와 운영비를 책임진다니까 파트너들은 간식을 책임지겠다고 해요.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종합 선물이니까요.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으니까 나누고 싶어요.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사업이에요.

DIAMOND

백형규&박용자

2018년 8월 1일부 / 서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백형규 리더는 자동차 회사에 근무했고, 박용자 리더는 전업주부였다.

누구에게 사업을 소개받았나요?

초등학교 절친에게 소개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직장 생활이 바빠서 여유가 없었는데, 친구가 꾸준히 이야기하기에 약도를 받아 교육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다. 암웨이는 달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느리기 때문에 남들보다 2~3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결승점에 도달하리란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가족과의 대화 시간도 늘어났고, 타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직장 생활도 매력이 있지만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은 끊어집니다. 오히려 지출은 늘어나는데 말이죠. 암웨이에선 소비자 네트워크만 만들면 수입이 지속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 같습니다.

백형규 · 박용자 팀의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족 같은 팀.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추가 소득이라는 처음의 소박한 꿈을 이루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추가 소득의 범위는 훨씬 커졌지만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작은 경제적 안정이 주는 큰 행복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고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처음 저희가 바란 건 한 달 10만 원의 추가 소득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 커다란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20만~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만 들어와도 가정에 웃음꽃이 핍니다. 암웨이 사업은 참 신기합니다. 어차피 사용할 생필품을 바꿔 쓰면서 올바른 소비 패턴을 가지는 게 전부인데 가정에 윤택한 삶을 선물합니다. 저희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현실 점검에 공감할 수 있다면 제품을 바꿔 쓰는 것만으로 삶의 여러 갈등을 해결해보세요.

저희 시야도 처음에는 아주 좁아서 가족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가족과의 대화 시간을 늘려줬고, 이제 타인까지 둘러보게 해줬습니다. 도전해보세요.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배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 사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삶이 행복하게 바뀔 겁니다.

DIAMOND

윤금복

2018년 8월 1일부 / 충북 청주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미술 선생님이었으며, 결혼 후 전업주부였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파트너가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곁을 떠났을 때 힘들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절실히 응원했던 만큼 아픔은 길고도 꽤 컸습니다.

아픈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결국은 책임감이라 생각합니다. 파트너의 성장도 저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더욱 몰입했고, 성장하면서 긍정과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직장 생활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나 혼자가 아닌 파트너와 더불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게 차이이자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이아몬드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이지 않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해도 효과가 반감됐습니다. 웃는 연습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니 긍정의 에너지가 몇 곱절로 커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해준 엄마입니다. 말도 못 하고 망설일 때 처음으로 제 꿈을 지지해준 분이고, 지금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는 분입니다.

윤금복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향기 나는 꽃 네트워크팀입니다. 어떤 이들보다도 밝고 따뜻한 팀이라고 자부합니다.

가깝거나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저와의 소중한 인연으로 이 사업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이아몬드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하는 사업인 만큼 곧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깨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한 뒤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없다고 예단하곤 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짧게는 몇 달, 길게는 해를 넘기는 그림 작업을 하면서 저는 자연스레 혼자 하는 일에 더 익숙했습니다. 어느새 사람들과 어울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 무척 어색했습니다. 암웨이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저와는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암웨이의 첫 시험대는 극히 내성적인 제가 남들에게 이 사업을 전달하는 것. 당시에는 마치 넘지 못할 큰 장벽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비전만 제대로 본다면 누구나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암웨이는 누군가를 돕는 사업입니다. 제 자신을 바꾸어야 할 이유를 암웨이를 통해 찾았고, 파트너들과 함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인맥도 없고 이렇다 할 장점도 없기에 사업은 남들보다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의 단점마저 장점으로 승화됐습니다. 파트너들이 뒤처졌을 때 저는 더 잘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도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평소 감사의 에너지를 쌓아간다면 누구든지 암웨이를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매우 내성적인 저도 그룹의 훌륭한 시스템 덕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으니까요.

DIAMOND

이정화

2018년 8월 1일부 / 경남 창원시

기회를 나누며 함께 행복해지는 사업

처음부터 목표를 명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긴 목표도 잘 잡아야 하지만 단기적인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은 성장해야만 의미를 지닙니다. 목표가 없으면 성장도 없으니, 목표야말로 사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하루, 한 달, 1년 단위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작년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암웨이의 제품은 뛰어납니다. 하지만 저는 제품보다 사업 기회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강조해왔습니다. 친구인 스폰서님께 제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이 사업의 기회였으니까요. 기회를 얻은 저는 곧장 제품을 모두 바꿔 썼습니다. 이게 내 사업의 아이템이니까, 내가 잘 알아야 사업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때로는 모르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런 순간에는 이미 성공한, 답을 알고 있는 업라인 스폰서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손을 잡으세요. 함께 하세요. 이 일은 내 삶을 바꾸고 그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함께 행복해지는 기회의 사업이니까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경찰로 일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힘들었죠. 사업장에 갈 때마다 눈에 밟혔으니까요.

그 마음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다 잘 자랐더군요. 부모가 제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안전 제일주의였던 옛 모습에서 벗어나 도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배려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입니다. 암웨이 사업에선 나를 버리고 상대방 중심이 되어야 보석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꿈이죠.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시작하는 이와 에메랄드가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까요?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유학을 원하면 길을 열어주고 싶어요. 제가 이루지 못한 한이 있나 봐요.

DIAMOND

이화정&박해준

2018년 8월 1일부 / 경기 수원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화정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박해준 리더는 제조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관계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온화함이요.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아픔을 가진 사람, 상처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게 다양한 모든 사람과 함께 성장하려면 온화하고 인간적인 배려가 꼭 필요합니다.

10년 후의 두 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나은 리더를 배출하며 행복해하겠죠. 골프를 좋아하던 남편은 다이아몬드가 된 후 다시 골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프로까진 아니어도 아마추어에선 수준급 골퍼가 되어 있겠네요. 잃었던 꿈을 되찾게 되어 기쁩니다. 아들의 암웨이 사업이 결실을 맺는 모습도 보고 싶네요.

성취 당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누구인가요?

시어머니입니다. 8남매의 막내며느리인 저를 참 예뻐해주셨죠.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잘 모르셨지만 늘 기도해주시고, 다이아몬드가 됐느냐고 궁금해하셨습니다. 이번 도전 과정에 위독하신 적도 있었는데, 어머님 생전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 이 사업의 가치를 잘 알려주는 글귀 같아요.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니까요.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사람 노릇 등 모든 노릇에는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죠. 그래서 암웨이의 지속적인 자산 소득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성공을 향한 꾸준한 발걸음

너무나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제가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려 했을 때 박해준 리더는 반대했습니다. 그에게 사업이란 자본을 투자하고 모든 걸 올인해야 하는 경쟁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정주부가 잘해낼 수 있을지 믿기 어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제게 암웨이 사업은 심플함 그 자체였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하게 네트워크를 다져나가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졌고, 암웨이 이외에 어떤 길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먼저 성공한 분들의 삶을 봤기에 믿고 버텨냈습니다. 포기하면 희망이 사라지기에 어느 한 순간도 마음에서 암웨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 사업 자체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이었죠. 사업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재정 여건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더디게 가면 어떤가요? 포기하지 않고 오직 목표를 향해 심플하게 나아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꾸준함만으로 잃었던 꿈을 되찾게 해준 암웨이가 너무 고맙습니다.

DIAMOND

임용선&이만형

2018년 8월 1일부 / 대구시

달릴 때는 내가 아닌 앞을 바라보자

상속을 꿈꿀 만큼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서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자는 생각으로 암웨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된 후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 판정을 받은 것이죠. 이대로 죽으면 아이들에게 빚만 남기겠다 싶었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대신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안간힘을 내어 소비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나아가자 꿈꾸던 이상의 경제적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기적처럼 암의 진행도 멈췄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굳은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신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러면 어쩌나 저러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고민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막는 장해물이 됩니다. 해답은 간절함에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발 두 발 나아가면 바라던 이상의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부족한 저 대신 암웨이의 교육 시스템이 아들을 이끌어줬고, 사업은 빚을 해결하는 걸 넘어 재정적 윤택함까지 선물했습니다. 믿으세요. 나아가세요.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임용선 리더는 식당과 서점에서 일했고, 이만형 리더는 지금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전에도 힘든 일을 했습니다. 암웨이에선 모든 일이 나 자신의 일이었고, 그 결과 역시 내게 오는 보상이었기 때문인지 한 순간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소비자 관리입니다. 소비자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지금도 제 앞에 가장 맛있는 사과가 있다면 가족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나눠줄 겁니다.

소비자 관리의 비법이 있나요?

제 자신이 나이도 있고 건강 문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성실하게 상담할 수 있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은 분들과 만나다 보니 직접 만든 찰밥이나 백숙 같은 음식으로 관계를 두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룹마다 다이아몬드를 배출해낸 다음에는 팔공산에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파트너뿐 아니라 누구라도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DIAMOND

조양현

2018년 8월 1일부 / 경기 의왕시

아버지께 물려받은 일관성의 유전자

평생 농사를 지으셨던 아버지께서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자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일관성에 대한 가르침이 그것입니다. 4월 모내기부터 10월 추수까지 6개월 정도가 벼농사 시기인데, 아버지께선 일어나자마자 늘 논을 한 바퀴씩 돌고 오셨습니다. 세면이나 식사는 그다음의 일이었죠.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비가 오던 날, 논을 돌고 오신 아버지께 여쭸습니다. 오늘 같은 날까지 꼭 나가셔야 했느냐고요. "벼는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추수할 때가 되면 우리 논이 옆집보다 잘 자라 있곤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아버지 산소에 다이아몬드 핀을 바칠 생각에 설렙니다. 목표 설정과 끈기, 인간관계 등 사업에 중요한 요소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관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컨디션이나 성과가 좋을 때에는 목표가 하늘을 찌르는데, 장애물 앞에선 확 꺾여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행일치는커녕 어제와 오늘의 말이 달라져서 언언일치조차 불가능해지지 않을까요? 환경은 늘 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하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IT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입의 속성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일이라면 기존 사업 확장에 집중했을 텐데 소득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암웨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사업과 병행하다가 이제는 암웨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특별히 힘들진 않았습니다. 기존 사업의 어려움이 워낙 커서 그랬나 봅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과거의 저는 스스로와 가족밖에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더 넓게 주변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선한 마음에 그치지 않고 기부든 봉사든 선한 행동을 늘려가고 싶습니다.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 꼭 암웨이 안에서가 아니라도 세상의 다양한 어려움을 나서서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일단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싶습니다.

1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세상의 해결사가 되기 전까지는 함께 사업하는 이들에게 먼저 답을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스폰서가 되어야겠죠.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그 여정이 보상이다." 스티브 잡스의 발언이자 애플의 사훈이죠.

DIAMOND

고상은&성영희

2018년 9월 1일부 / 제주 제주시

간절함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꾸준히 성실하게 사업을 해왔지만 늘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봤습니다. 그건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번에도 네트워크 상황이 좋아서 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 해내야만 한다는 마음으로 한 달 한 달 지내다 보니 결국 결과가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의 힘은 그저 간절함뿐이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서게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신까지 도우셨다는 기분이 듭니다. 도전과 성취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것뿐입니다. 간절함으로 시작하길 결심하고, 간절함으로 목표를 매듭짓는 것이 전부입니다. 간절함이 절실하다면 그 마음은 세상을 움직이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신까지 하나가 되어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있나요? 간절하면 뜻은 반드시 통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고상은 리더와 성영희 리더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와 극복 방법이 궁금합니다.

좋은 사업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이 떠나갈 때 마음이 힘들었지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비전이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미래의 청사진을 희망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보다 미래가 좋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이해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사업은 저절로 이루어지니까요. 사람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사업 성장의 크기입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강한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낳는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한 번 태어난 인생에 꿈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억울하잖아요. 그들에게도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함께 잘살고 싶기 때문이겠죠.

DIAMOND

곽영숙&김기현

2018년 9월 1일부 / 대전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곽영숙 리더는 학습지 교사였고, 김기현 리더는 미생물 전공 연구원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 때 힘들었죠.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마음이 아프죠.

상처를 어떻게 이겨냈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스폰서님의 도움, 파트너들의 팀워크, 시스템이 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생각의 변화입니다. 암웨이 전에는 사고의 틀이 고정관념에 막혀 규정지어집니다.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는 열린 사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을 잘하려면 무엇을 명심해야 할까요?

배려와 기다림입니다. 상대방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보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생각해보고 결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난을 경험해봤습니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비교하면 거절에 따른 어려움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아버지입니다. 가족 모두가 사업에 반대했을 때 아버지께서 "나는 암웨이가 뭔지 모른다. 하지만 네가 성공한다면 네 마음을 형과 누나도 이해해줄 것"이라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기 전에 아버지께선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실패의 산 위에서 바라본 성공의 풍경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을 향한 작은 선물입니다. 강하게 거절당했을 때 우리는 커다란 실패라도 한 것처럼 상처받곤 합니다. 하지만 거절은 실패가 아닙니다. 작은 산을 오를 때에도 모든 길이 오르막으로만 구성되진 않습니다. 크고 작은, 높고 낮은 길들을 거쳐 정상에 오릅니다. 성취란 거절과 거절들로 이어진 작은 성공들을 이어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때 스폰서님께선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너라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저희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키웠습니다. 누구라도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실패를 밟고 올라서 성공의 눈부신 풍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DIAMOND

김경덕&송희규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광주시

성공은 변화를 꿈꾸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욕심이 있어야 변화를 꿈꾸고, 삶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성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던 원동력은 결핍과 잘살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알고 생활해온 문화 속에선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암웨이를 알게 된 후 확신했습니다. 여기에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삶을 바꿀 수 있겠다고 말이죠. 세상에는 외적인 이유들 때문에 노력이 배신당하기도 하는데, 암웨이에선 노력한 만큼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꿈꾸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난관은 기꺼이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라면왕'으로 통하는 한 사업가는 "구름이 없는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련이 있어야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스스로 결정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성공을 대신 만들어주진 못합니다. 우선은 변화를 꿈꾸는지 결정부터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감내해야 할 것들을 각오하면 시련은 성공을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어 지나갈 것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경덕 리더는 터널 설계를 했고, 송희규 리더는 지금도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내 마음과 타인의 마음이 다를 때 힘들죠.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주위 사람들이 걱정이라는 명목으로 상처 주는 말들을 할 때도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상처 주는 말들은 지나쳐야 할 초기 과정이라고 각오하고 있었어요. 시각 차이로 파트너가 떠날 때에는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힘들 때 늘 올바른 방향을 잡아주는 스폰서님을 믿고 상처를 추슬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목표와 비전을 찾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가족이요. 아이가 잘못하면 꾸짖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잠시뿐이고 아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암웨이는 가족이 되는 사업입니다. 상대가 미울 때도 있지만 결국은 껴안게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저희는 사업 설명을 할 때 스폰서님의 2세 사업가라고 할 정도로 스폰서님을 부모님처럼 느낍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도 계시지만, 성공의 씨앗을 주신 제2의 부모님이죠.

김경덕 · 송희규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드림마스터 팀. 살아온 환경은 달라도 이 안에서 우리뿐 아니라 아이들의 꿈까지 함께 이루어가자고 파트너들과 지은 팀 이름이에요.

DIAMOND

김경선&유장규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다이아몬드는 변화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결과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읽고 '나는 누구인가'를 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사람의 능력은 다양합니다. 말을 잘하는 이도 있고, 사람을 잘 사귀는 이도 있습니다. 스펙이나 경제력이 높은 이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카리스마를 소유한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웨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될 때 그런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족해 보이는 이가 다이아몬드로 성장하기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 보석으로 피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건 암웨이가 꿈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질 때 우리에겐 신념과 사명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꿈입니다. 꿈이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과 계속 대화하면서 꿈을 더욱 선명하게 닦아가다 보면 저절로 빛을 내게 되고 결과가 찾아옵니다. 우리 자신을 다이아몬드로 깎아가는 과정이 바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파트너들을 만난 시기는 비슷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그들과 만날 자격을 갖출 만큼 변화한 때가 그 즈음이었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인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세요. 다이아몬드는 저절로 다가올 테니까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경선 리더는 학습지 교사였고, 유장규 리더는 10여 년간 회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당장의 삶이 팍팍하다 보니 아이들 미래에 도움을 주기 힘들까 봐 두려웠으니까요.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과거에는 축적의 사업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1차 수입만 알았기 때문에 자산이 쌓일 때까지 인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전에는 사회가 정한 틀에 맞춰 일해 왔다면, 암웨이에선 내 꿈에 맞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님의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삶의 중심이요. 전에는 나 자신 아닌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매체 등 '환경'에 맞추어야 행복한 줄 알았지만, 암웨이를 시작한 후에는 나 또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감사하라!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혼자 잘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파트너와의 만남 자체에 감사할 줄 알게 해주는 것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안에 있다면 감사함을 많이 배우고, 그게 성공의 지름길임을 알게 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조화요. 조화는 함께 잘나서가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퍼스트 펭귄!" 무리의 맨 앞에서 가장 먼저 바다에 뛰어드는 펭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처음이 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퍼스트 펭귄 스폰서가 되어야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DIAMOND

김선희&박성일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긍정하고, 긍정하고, 긍정하자

암웨이 외에도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명이 '긍정긍정'입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도 '박긍정'이고요. 이 정도면 저희가 긍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아주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생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합류했던 죽마고우들이 한꺼번에 떠나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을 잃은 제가 기댈 곳은 긍정의 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 때 오히려 긍정하자고 마음을 먹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긍정긍정'이라고 써놓았습니다. 옷을 맞출 때에도 이니셜 대신 한글로 '긍정긍정'을 새겼습니다. 한 번은 약하다는 생각에, 두 번 '긍정'과 '긍정'을 되풀이했습니다. 언제나 긍정을 외치면서 계속 한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긍정하는 마음 때문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긍정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되뇌며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확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었다고 믿고, 더 큰 긍정으로 내일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선희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박성일 리더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젊은 시절부터 이 사업에 대해 들었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고 부정적이었지만 다이아몬드 스피치를 듣다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풍요 속에 살아가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언제 가장 힘들었나요?

파트너가 떠나갈 때죠. 단짝친구가 한꺼번에 떠났을 때 힘들었습니다. 스폰서님께서는 더 열심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성공을 증명하리란 오기도 생겼고요.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으로, 남자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이 생기니까 더 집중하게 됩니다. 김선희 리더는 타인의 입장을 더 배려하는 성격으로 변화했고요.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긍정의 힘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 꼭 가고 싶어서 해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도 도전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할 삿포로 리더십 세미나도 무척 기대됩니다.

김선희 · 박성일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긍정해야 산다! 긍정으로 미래를 만드는 긍정긍정 팀입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다." 노래방 가서도 우리 팀의 마지막 노래는 언제나 '핑계'입니다.

DIAMOND

김유아&김평중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용인시

변화 속에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살던 대로 살면 편합니다. 하지만 준비된 미래와 그렇지 않은 미래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가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스폰서님을 통해 현실이 아닌 꿈을 생각해보게 되면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든 이유입니다.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현실에서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미래 또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과 기회를 나누겠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고민하고, 변화하고, 결심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3년 반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둘째 아이 임신 중에 암웨이를 알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 생후 7개월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여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려니 아침저녁으로 아이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보상을 생각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 성취로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으리란 기대가 솟습니다. 꿈을 꾸세요. 고민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스스로 변화하세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유아 리더는 중국어 통역사였고, 김평중 리더는 지금도 직장인으로 겸업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부부가 함께 변화해서 사업자로 재탄생해야 하는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생애 처음으로 고민해봤습니다. 스폰서님의 모습을 저희가 제대로 복제해가고 있는지 늘 돌아봤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내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기브.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에서 벗어나 주고 또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노력에 따른 대가가 확실한 사업입니다. 다른 경제 수단에선 운이 나쁘면 노력만큼 보상받지 못하지만, 암웨이에선 정말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에 그 가치가 더 깊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부지런함과 오뚜기 같은 근성일 것 같네요. 거절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암웨이는 거절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업인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된다는 믿음으로 계속 다시 일어났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누구에게도 희망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희망을 품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DIAMOND

김윤영&문현호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수원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윤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문현호 리더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4년에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35세에서 45세까지가 제2의 인생 준비하기 가장 멋진 나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새벽에 7세 큰 딸이 넘어지면서 식탁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나는 아이와 응급실에 다녀와서 한참 울고 난 다음에도 그날의 스케줄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하는 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신뢰. 능력이 뛰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암웨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관계는 당연히 좋아지고, 성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스스로와의 약속 지키기겠죠.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의한 것이 아닌 내부의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스스로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계속 물으면서 동기부여를 해야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자존감 낮았던 사람, 뻔한 인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던 사람이 인생의 고비를 딛고 일어나도록 해준 분이니까요.

김윤영 · 문현호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스스로 변화하며, 각자가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가는 팀이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삶

시간이 지날수록 암웨이의 창업 정신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는 이야기를, 누군가를 도와야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 스스로를 먼저 도와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원본이 깨끗해야 사본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좀 더 멋진 나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보고 용기를 얻은 타인들이 스스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용기를 주는 것뿐입니다. 저는 7년간 주부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 딸이자 엄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자존감은 계속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암웨이는 이름을 되찾게 해주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이제 김윤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까지 건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나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 기회를, 그 감격을 나누고 싶습니다.

DIAMOND

김은순&김항영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은순 리더는 대기업에서 근무했고, 김항영 리더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관계의 중요성을 몰라서 힘들었습니다. 암웨이가 주는 보상이나 플랜 모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의 관계라는 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직업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소득의 지속성이 다릅니다. 다른 일에선 그동안의 노력이 (퇴직 등의 계기로)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지만 여기에선 계속 쌓여갑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스폰서님과 그룹에 대한 믿음 때문이겠죠.

김은순 · 김항영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늘 함께 가는 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죠. 저희 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려, 감사, 긍정입니다. 배려해야 화합할 수 있고, 감사해야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긍정해야 결과를 만들어낼 테니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천만 번의 노력보다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하다." –홀리 첸

10년 후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여행 친구가 더 많이 늘어나 있겠죠. 지금도 1년에 잡혀 있는 여행만 9~10회인데, 10년 후라면 훨씬 더하지 않을까요?

바다는 강물을 가리지 않고 숲은 나무를 가리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사업이란 성장과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과거의 저희는 커다란 나무로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크고 좋은 나무를 찾으려고만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다양한 나무들이 하나가 되어야 진짜 울창한 숲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큰 나무들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잡목과 묘목이 잘 자라도록 시간과 애정을 쏟아야 하는 것이었죠. 더욱 중요한 건 우리는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조건은 모두 다릅니다. 당장은 거목이 아니라 잡목이나 묘목에 해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더 많은 시간과 더 따뜻한 애정으로 그들을 감쌀 수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는 파트너만 귀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심과 애정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꿈은 달라도 누구나 최종 목표는 행복입니다. 저희가 암웨이에서 행복을 얻었듯, 행복의 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행복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파트너님들, 그리고 길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DIAMOND

김은옥&김현성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그릿: 성공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성공의 비법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릿(IQ, 재능, 환경을 뛰어넘는 열정적 끈기의 힘, Grit)〉이라는 책으로 엮었습니다. 성공의 비밀은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매일 흥미진진하거나 크게 대단한 일들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을 부지런히 반복해서 힘을 쌓고, 그 힘을 동력으로 삼아 성공의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웨이 사업은 대단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라 올바른 작은 일을 반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업입니다. 또한 100의 능력을 가진 1인이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1의 능력을 가진 100인이 모여 천, 만, 십만, 백만,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진짜 열정은 소리를 지르고 호흡이 가쁘도록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지루하거나 미약해 보일 수 있는 일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게 진짜 열정입니다. 꾸준한 집념, 지치지 않는 열정의 그릿을 쌓으세요. 그리고 팀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한 방향으로 서로의 그릿을 함께 모아가세요. 그럼 보게 될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던 결과를 말이죠.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은옥 리더는 디자이너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김현성 리더는 외국계 투자회사 임원으로 지금도 근무 중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너스 체계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전문직이라고 해도 은퇴에 대한 고민은 피할 수 없었는데, 암웨이의 자산 소득 개념 덕분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사라졌습니다. 기업 철학과 제품 철학에도 감동했고요.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부부가 모두 본업과 암웨이 사업을 병행하느라 바쁘게 지낸 것이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누구나 비전으로 극복하죠. 비전과 가치가 훨씬 크다면 작은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또 파트너들을 만나면서 계속 새롭게 동기를 부여받은 것도 좋았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환영하지도 않았던 저희에게 이 일을 알려줘서 성공의 씨앗을 뿌려준 분이니까요.

김은옥 · 김현성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올바른 작은 일을 반복해서 기적을 만드는 팀.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새로 쓰여지는 장이 그 전 장보다 항상 나을 것이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

DIAMOND

박선화&강창수

2018년 9월 1일부 / 경북 구미시

스스로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암웨이를 부업으로 시작할 때에는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떠나보고 싶다는 작은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선 엄마처럼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에게 사랑을 주면서 평범하게 나이를 들어가는 그런 삶을 말이죠. 그런데 친정엄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1년간 병원 생활 후에 회복된 엄마는 "내가 뭘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삶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온 것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결과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옷에 나를 맞추려고 하고 있진 않나요? 저는 지금 제게 맞는 옷을 찾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인생에 욕심을 가지는 것, 그건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모든 것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다이아몬드의 무대를 바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선화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강창수 리더는 지금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누구나 그렇듯 파트너들도 인생과 사업의 굴곡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줄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힘들었습니다.

도움의 방법을 찾았나요?

스폰서님이 해주셨던 길을 따랐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옆에서 용기를 주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더군요.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무난하고 평범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암웨이를 통해 해외와 미래까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시야가 넓어지니 아이와 하고 싶은 게 많아지네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다름을 인정할 것.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를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다른 직장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다른 곳에선 일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만 암웨이에선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공을 위해 뛰니다. 네트워크는 한 달 일한 결과물로 받는 월급처럼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쌓은 보상은 훨씬 거대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따뜻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상대를 사업적으로가 아니라 사람으로,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DIAMOND

박지영&허윤석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수원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지영 리더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했고, 허윤석 리더는 현재도 직장인으로 겸업 중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가 소득을 원했지만 암웨이가 수단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초대받아 참가한 미팅장에서 사업의 확신이 섰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나 스스로의 변화가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힘들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도했나요?

변화란 성공자의 레일 위에 나 자신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간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게 문제죠. 저 역시 완전히 변하진 못했을 테고요.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스폰서님이 계셔서 용기 내어 변화할 수 있었고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해줄 수 있고, 꿈을 이루도록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방향성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믿음인 것 같아요. 스폰서와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성공할 수 있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이 사업에서 성공하는 답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갔습니다. 파트너들에 대한 책임감이 컸다고 생각해요.

변화와 행복은 지금도 진행 중

저희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된 지금, 저희 삶이 통째로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암웨이를 만나서 꿈을 꾸고, 작지만 성취도 이루어냈고, 저희들의 그릇 자체도 꽤 커졌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편이 옳겠네요. 암웨이라는 사업으로 꽃길만 걷진 않았습니다. 받지 않았어도 될 거절들, 겪지 않았어도 될 관계의 어긋남, 그 밖에도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여러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부자의 그릇으로 키워냅니다. 암웨이를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암웨이 하나를 감당할 때 삶에 너무나 다양하고 거대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자영업을 할 때에는 열심히 노력하다가도 뒤를 돌아보면 맞는 길인지 두려웠는데, 암웨이에선 돌아보면 볼수록 올바른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10년 후 또래들은 비슷한 걱정거리를 안은 50대를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50대는 다른 모습일 겁니다. 경제적 부자, 시간의 부자, 인간관계의 부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납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손을 잡은 타인들에게까지 축복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DIAMOND

박희린&윤보은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소중한 나의 인생. 그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삶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일단 시작했으면 다이아몬드가 되리라는 믿음을 무조건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힘들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버팀목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스폰서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만으론 부족합니다. 저희는 스폰서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스폰서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따릅니다. 굳은 믿음은 새로운 믿음을 낳습니다. 회사를 믿게 되고, 결국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20대 시절의 저는 과거 5년 전보다 성장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5년 후의 제가 현재보다 성장해 있길 꿈꿉니다. 여러분은 현재에 만족하고 있나요? 내일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가요? 아주 조금씩이라도 분명히 성장해가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다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암웨이라는 최고의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암웨이는 겸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암웨이는 다른 본업과 함께,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리더십까지 함께 키워갈 수 있는 도구입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박희린 리더는 8년간 프로그래머로 일했고, 윤보은 리더는 외국계 기업에서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가족이 믿어주지 않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르는데 편견 때문에 반대하실 때 안타까웠습니다. 예상했던 반대지만 상처는 오더군요.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편견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꿈이죠. 전에는 꿈꾸는 법을 잘 몰랐는데 암웨이 안에서 많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도 가지게 되었고, 꿈을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사람은 듣기보단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말하기보단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면 큰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이는 누구인가요?

아이의 미래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순간은 스폰서님이 떠올랐습니다. 계속 성취하고 성장하는 스폰서님을 보고 도전하게 되었으니까요.

1년 후의 두 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스폰서님의 영향을 받아 도전하고 성취했듯 파트너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 후 그들과 여행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DIAMOND

배정환&최윤희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안산시

꿈을 되새기고 스폰서님께 밀착하라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면 암웨이를 시작한 이유를 다시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희는 암웨이가 직장 생활의 한계를 넘어 자산 소득의 미래를 줄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전업도 빨랐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오히려 절박함이 간절함으로 승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나가기 전에 차 한잔하면서 같이 하루를 계획합니다. 오랜 시간을 사업적으로 같이 걸어오면서 부부의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스폰서님과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밀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든 순간에만 집중하면 더 힘들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럴 때 스폰서님께선 '잘된 사람의 잘되지 않았던' 과거 경험 등을 나누면서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사로잡히는 저희에게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을 시켜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키를 잡아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사업은 파트너보다는 스폰서와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배정환 리더는 IT 프로그래머였고, 최윤희 리더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과의 관계죠. 자녀에게 꿈꿀 수 있는 미래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펼치지 못했던 꿈을 자녀들에게는 꿈꾸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형, 형수, 누나 등 가족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같이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자기 성찰. 끝까지 버텨내고 실패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저희들이 비즈니스를 끌고 올 수 있던 비결입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행동력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몰입해야 합니다.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실력보다 중요합니다. 실력이 안 된다고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을 키우세요.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 핀업까지 오랜 시간 함께하며 끝까지 믿고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빨리 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결국 우리 사업은 사람이 남는 사업이니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꿈의 불을 지펴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한 말입니다. 꿈을 향한 간절함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꿈의 열정에 불을 붙여야죠.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 셋과 파트너들의 자녀 사업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의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DIAMOND

서영&박진기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용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서영 리더는 학원을 운영하며 과외를 했고, 박진기 리더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탑리더님을 통해 인생의 멘토, 롤모델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탑리더님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정말 닮고 싶었어요.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학원 운영 전엔 온라인 쇼핑몰도 했습니다. 쇼핑몰엔 제품만 올리면 자고 있어도 주문이 들어오지만 수입은 불규칙했습니다. 학원은 안정적인 대신 제가 꼭 있어야 했죠.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암웨이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목표를 수정하지 않은 것. 변수가 생긴다고 계획을 바꾸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할 사명처럼 느꼈습니다. 파트너에 대해서도 스폰서님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힘들때마다 기도의 힘이 컸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기에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깝거나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탑리더님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복제의 사업이니까요.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어떤 일이든 체력적인 이유에서건 어떤 변수에 의해서건 내려와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는 평생하는 사업이면서 상속까지 됩니다. 모든 순간이 가치를 지닙니다. 이 문화와 좋은 사람들이 상속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사람

탑리더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잡은 사람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함께해온 이들과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탑리더님은 행동으로 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답은 '사랑'입니다. 스타일과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과거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탑리더님께서는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으면서 많은 사람을 품고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더 낮게 몸을 숙이고, 더 열심히 타인을 섬기며,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탑리더님은 제시해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수많은 질문을, 탑리더님은 '사랑'이라는 하나의 대답으로 풀어내십니다. 사랑은 제 인생의 해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암웨이를 만난 이후의 2년 8개월과 그 이전의 30여 년 인생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까지 모두 사랑으로 수놓으며, 탑리더님의 뒤를 밟아가고 싶습니다.

DIAMOND

안혜진&홍지훈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꿈과 현실적인 간절함의 조화

자유롭게 꿈꾸되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철만 들어서 현실에 매몰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꿈만 꾸면서 현실을 벗어납니다. 양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진짜 꿈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암웨이는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최적화된 사업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아버립니다. 제대로 된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암웨이는 꿈꾼 대로 살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저는 연극하던 사람으로서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던 중 남자친구였던 홍지훈 리더를 통해 사업을 전달받았습니다. 지금은 뮤지컬 극단을 만들었고, 대학로에 극장도 인수해서 운영 중입니다. 극장 이름은 창업자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창업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암웨이가 이렇게 제게는 꿈을 펼치게 하는 수단이라면, 홍지훈 리더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합니다. 꿈과 현실, 그 사이에서 고민하지 마세요. 양자택일 속에서 정답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안혜진 리더는 뮤지컬 배우였고, 홍지훈 리더는 공군 장교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의 성격 때문이죠. 보너스 체계에 끌렸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에 대한 이해겠죠.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면서 남편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인정 아닐까요? 저희 팀은 젊다 보니 각자의 개성이 강합니다. 스폰서님께선 언제나 저희 생각을 듣고 인정해주신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키워내려면 그들을 먼저 인정해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다이아몬드가 되자마자 스폰서님께 연락드렸습니다. 그다음으론 부모님께 전화했고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데, 실제로도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려고 이렇게 이끌어주는 분이 스폰서님 말고 또 계실까 싶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자기방어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접근하라."
–〈프레임〉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연극이나 뮤지컬 배우를 육성하는 기획사도 만들고 싶어요.

DIAMOND

유진화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화성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유진화 리더는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이였고, 남편은 선교사였다가 현재는 직장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암웨이에 너무 몰입하느라 아들과 남편, 친정엄마, 시부모님께 신경을 온전히 쓰지 못할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벽에 들어와서 씻지도 못하고 현관에 쓰러져 잠들면 엄마가 이불을 덮어주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렇게 암웨이가 좋으냐"라고. 저는 대답했죠. "네, 암웨이를 사랑해요."

아픈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암웨이가 남을 돕는 일이라는 확실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옳은 일이라는 신념이죠.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성공의 법칙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출과 후원에만 집중하면 사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만드는 건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더군요.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무책임한 약속 등은 비즈니스와 무관해 보이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암웨이는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는 일입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정직과 신뢰. 제가 가진 유일한 자본이 솔직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과 남편입니다. 남편은 가장 큰 도움을 줬고, 스폰서님은 늘 정신을 깨워주셨어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 마디가 있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10

살아 숨 쉬는 사명으로의 길, 암웨이 사업

자신이 왜 암웨이를 하는지 매일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의 목표를 쓰고, 매일 사업의 이유를 되새기고, 처음 잡았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을 제외하면 제 삶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다니기 전 남편은 선교사였고, 저도 선교사 교육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늘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품었지만 그러한 삶을 살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암웨이를 만났습니다. 제게 암웨이는 경제적 복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를 신앙생활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1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아닌 사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결과를 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암웨이를 시작할 때의 첫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시간과 노력을 쌓아서 파트너들과 봉사 활동을 떠날 겁니다. 빵을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제 꿈은 비즈니스가 있는 선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 없는 풀숲을 헤치고, 두 사람이 가고, 세 사람이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길을 만들어갑시다.

DIAMOND

윤석구&김희정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윤석구 리더는 대형 건설사에 근무했고, 김희정 리더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달 나오는 후원 수당과 상속의 가능성이 좋았습니다. 처음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매월, 평생 나오는 100만 원을 꿈꿨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보상을 내세워도 팀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직장 생활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아무리 큰 기업에 오래 근무해도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자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암웨이에선 한발 한발 천천히 나아가도, 그 모든 발걸음이 제게 쌓입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모든 걸 참아냈습니다. 그때그때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선 인간관계를 쌓을 수 없습니다. 작은 문제들을 희석하면서 희열을 만들어가는 일이 암웨이 사업입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이는 누구인가요?

믿고 함께와준 파트너들, 계획을 세워서 이끌어주신 스폰서님, 그리고 가족을 포함한 우리 자신. 삼박자가 맞았기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 있다〉.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중간이 아닌 결승점을 바라보고 뛰어야

암웨이의 2년~5년 플랜을 들어보셨나요? 5년의 노력으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회원 가입 이후 18년이나 지나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년~5년 플랜을 믿지 않고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채 제 방식대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결단하고 도전해서 다이아몬드에 오기까지는 5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지금처럼 잘 갖추어지기 전에도 책과 음원을 들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다음 단계로 도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압니다.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에메랄드를 거쳐 쉬지 않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단막 단막 끊어진 목표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이아몬드 또는 그 이상의 꿈을 찾아 긴 호흡으로 발걸음을 디뎌야 합니다. 그럼 변화된 삶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수단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께 통로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돕는 삶 속에서 더 큰 리더로 성장해나아가겠습니다.

DIAMOND

이경선&정준

2018년 9월 1일부 / 충남 보령시

시스템을 통과한 꿈과 결핍은 성공이 된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벗어난 타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맞벌이를 하면서 암웨이까지 시작하니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살 터울의 형은 5학년이 된 지금도 동생을 잘 봐줍니다. 아이들을 놔두고 집을 나서야 할 때는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미안하진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혼 초, 가난을 경험해본 저희는 가난이 주는 불편과 비참함을 잘 압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바라본 비전이 옳다면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지켜내세요. 시스템에 완벽하게 조인하세요. 시스템 안에서 철저히 리더로 만들어진다면 자신의 꿈과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암웨이는 당장 보이는 것을 해내는 사업이 아니라 그 뒤의 보이지 않는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자본은 꿈과 결핍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나가면 누구나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경선 리더는 유치원 교사였고, 정준 리더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받은 것 없이 시작했지만 잘살고 싶었습니다. 자본과 리스크 없이 잘 배워서 희망을 키워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작은 씨앗으로 저희에게 왔습니다. 이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경제적인 성장입니다. 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저희가 암웨이라는 도구를 통해 아이들과 발리 리더십 세미나에도 다녀오고 매년 여행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큰 부자는 아니지만 8년 전에 비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섬김이요. 파트너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들과 소통하는 길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꿈이 일깨워졌습니다. 상대를 섬길 때 진심은 통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강력한 시스템과 스폰서님의 오랜 기다림 덕분입니다. 스폰서님께선 늘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기도 합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사업 안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도전하는 많은 분들이 선한 부자가 되도록 돕고 싶어요.

DIAMOND

이경은&민봉기

2018년 9월 1일부 / 경남 김해시

스스로를 찾는 행복의 여정

가보지 않은 길은 모릅니다. 암웨이 사업 역시 도전해보지 않은 이에겐 미지의 길입니다. 그런데 첫발도 떼지 않고 고민합니다. 너무 험난한 길은 아닐까? 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일까? 제가 가본 곳까지의 풍경은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재미있고 풍요로운 길입니다.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복에 차오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설렘과 희망이 여러분을 최종 목적지까지 안내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주변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위해 너무 많은 걸 소유해야 하고, 너무 많은 잡념과 번민이 자신의 진짜 모습과의 대면을 방해합니다. 암웨이에선 삶의 과제와 비즈니스의 과제가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풍요로움도 주지만 꾸준한 자기계발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도록 하는 여정입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살면 우물 속의 고립된 모습밖에 보지 못합니다. 암웨이는 세상 속의 진짜 내 모습을 알려줍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도전하세요. 스스로를 찾아가는 행복의 여행길이 펼쳐집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경은 리더는 독서교육 기관에서 논술을 지도했고, 민봉기 리더는 현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웨이가 직업에 대한 제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해결하고,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개인적 성장까지 가능해야 올바른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전의 와중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생긴 적은 없었나요?

그럴 때는 사회적 사명으로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쳐 생각한 거죠.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꿈이 많아서였는지 나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했는데, 암웨이를 통해 나를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자기 성찰.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이 해내야 합니다. 내 장점이 무엇이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장점을 활용하고 부족함을 채우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성장 욕구요. 늘 성장하고 싶었기에 암웨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성장은 자기 성찰을 통해 시작됩니다. 하지만 물질적 욕심은 별로 없어서 성과는 잘 나누는 편입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기에 스폰서님과 꼭 함께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스폰서님과 남편, 암웨이는 제 삶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세 가지 복입니다.

DIAMOND

이난미&김태헌

2018년 9월 1일부 / 전남 순천시

현재의 도전보다 두려운 건 준비되지 않은 미래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직장생활 한 번 해보지 않고 결혼한 전업주부라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친구 소개로 암웨이의 미팅에 참석했을 때에도 제가 사업을 시작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품 정보가 좋고 친구가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바람 쐰다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유익한 강연을 들어도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 세계에 제가 들어갈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정하지 않은 마음에서도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니 현실 점검이 되고 저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좋아 보였습니다. 항상 노후가 고민이었고 50대 이후를 잘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삶의 모습이 업라인 스폰서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부자들과는 전혀 다른, 선함으로 가득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업라인 스폰서님을 닮아가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쉽지 않았고, 초반에는 성장도 아주 느렸습니다. 그래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도전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었지만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꿈꾸는 많은 이들과 편안하게 소통하는 스폰서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난미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김태헌 리더는 지금도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돕는 사업이라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사람 관계가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 힘들었습니다. 나는 진심을 줬는데,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렇죠.

힘든 마음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결국은 전달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이해했고,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이겨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스스로 당당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성적이고 경험도 없던 탓에 뭐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을 통한 간접경험도 도움이 되었지만 스폰서님의 격려가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못 할 것 같은 저에게, 항상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난미 · 김태헌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조용하지만 꾸준한, 평범하지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임.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기다리고 있는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자."

DIAMOND

이소율&문귀석

2018년 9월 1일부 / 경남 양산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소율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문귀석 리더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힘든 순간은 없었습니다. 늘 즐거워서 오래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데도 스폰서님께서 잘한다고 늘 칭찬해주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정직과 진심. 같은 맥락이겠지만 사람에겐 진심으로 정직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게 암웨이의 본질에도 맞습니다.

다이아몬드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과거에는 개인기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진심을 전하니 사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듯합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친정아버지요. 6남매 가운데 저만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의 임종 이후 늘 아버지의 걱정을 샀는데, 다이아몬드 인정식에서 감동받은 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막내까지 꽃을 피웠으니 6남매 모두 잘살게 되었다고요.

이소율 · 문귀석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주도적인 사람들이 모인 팀. 각각 똑바로 선 내가 서로 '함께'가 되는 팀.

1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파트너들이 모두 파운더스 플래티늄 이상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그들과 함께 여행 스케줄을 잡으며 행복해하고 있겠죠?

성장을 함께 하는 진짜 리더의 길

처음에는 미팅에 나가지 않고 '동'네에 '남'아서 '아'줌마들의 주문만 받는 속칭 '동남아 암웨이' 사업자로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달인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람 사귀는 데 자신이 있어서였나 봅니다. 문귀석 리더에게 사업을 설명한 후 한발 더 나아갔을 때에도 9시부터 5시 반까지 직장인 스타일로 사업에 임했습니다. 계속 사람들과 친해지는데 성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 그릇이 작은 탓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리고,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보니 처음 생각이 옳았습니다. 핵심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받쳐 세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친해지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사업적으로 독려와 응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친분과 성장을 연결하는 것이 진짜 비즈니스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에 이렇게 도전했고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파트너들까지 성장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니까요. 이제 더 힘 있게 파트너의 손을 잡고 끌어주는 리더로 저부터 거듭나겠습니다.

DIAMOND

이승은&김도연

2018년 9월 1일부 / 대구시

결과가 아름다워야 진정한 비즈니스

다이아몬드가 되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 암웨이를 시작했을 때 부모님께 드렸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5년 후에는 결과를 낼 것'이란 약속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암웨이는 사업입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년 뒤 나는 어떤 결과를 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까. 1년 뒤의 내 모습을 그려봐야 합니다. 미래의 나, 더 나아진 나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쪼개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3년 뒤, 5년 뒤, 10년 뒤의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시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결과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흘러가서 사라져버릴 과정으로 바뀔 테고, 오늘의 고난보다 내일의 달콤한 열매가 더 크게 다가올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 가장 실망할 이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론적으론 되는데, 나는 안 될 이유가 있을까요? 끈기 있게, 고집 있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결과는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승은 리더는 치과 상담실장이었고, 김도연 리더는 지금도 자영업을 운영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항상 도전할 때마다 성취가 잘 안 되어서 마음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들을 생각하고 책임감 있게 계속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암웨이에서는 아이의 장래나 다양한 관점에서 더 나은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부모가 되었다는 생각에 기쁩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함께. 이 사업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함께 해야 결과가 나옵니다. 밥도, 대화도, 일도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이 더 즐겁습니다.

다른 직업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보상. 다른 일은 일을 멈추는 순간 수입이 끊깁니다. 하지만 암웨이는 네트워크를 만들면 안정적인 수입뿐 아니라 여행 프로그램등의 기적 같은 보상까지 따라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목표가 있으면 긍정적인 궁리를 하고, 목표가 없으면 부정적인 고민을 한다." 탑리더님께서 강연 중 하신 말씀입니다.

1년 후의 두 분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 이맘때처럼 나와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이끌어주신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들과 함께 드림 빌딩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DIAMOND

이우간&이병철

2018년 9월 1일부 / 충남 예산군

첫사랑의 설렘을 영원히

첫사랑을 떠올려보세요. 그 설렘이 기억나나요? 많은 사람들이 암웨이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거나 사람이 없다는 등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환경을 핑계로 댑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가슴 뛰는 이유를 품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슴 설레는 초심을 지켜내지 못할 때 끝이 옵니다. 암웨이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나 중거리로 생각하고 뛰다가 그만둬선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암웨이는 물을 끓이는 일입니다. 100도가 채 되기도 전에 80도, 99도에서 불을 꺼버려선 안 됩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은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첫사랑의 설렘을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10년 후면 탑리더님의 나이가 됩니다. 그때에 저희도 열정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탑리더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유도 바깥에서 찾지 마세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품은 인내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첫사랑의 설렘을 지켜나가길 기도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이우간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이병철 리더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약간의 추가 소득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꿈이 커졌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인 줄 몰랐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노력하고 공부하는 저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닿았습니다. 아이 셋이 모두 잘 자라서 각자의 길을 알아서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것.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기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사이에 생각이 다를 때에는 스폰서가 이해해야 합니다. 더 많은 비전을 본 사람이니까요.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파트너들이죠.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쁩니다. 시골에서도 결과를 낼 수 있고, 지지부진하게 왔던 사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우간 · 이병철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잔잔하지만 마음속에 열정을 품은 팀. 작은 시골 마을의 아줌마들이지만 다들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품고 있거든요.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휩쓸려갈 수도 있어요.

DIAMOND

이운한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전업주부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제 자신이 만들어졌어요. 자신이 채워지니 타인에 대한 원망이나 섭섭함이 사라지더군요.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섬김과 인내. 제 성취의 원동력이기도 해요. 제가 가장 잘 잘하는 게 오래 참는 것이니까요.

다이아몬드가 되어 가장 먼저 떠오른 분은 누구인가요?

암웨이를 시작한 해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요.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늘 듭니다. 다이아몬드의 영광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나 잘되고 있어"라는 이야기와 함께요.

늘 마음에 품고 있는 한마디가 있나요?

"벌어서 남 주자." 탑리더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입에 풀칠하려고 노력만 하다 끝나는 삶도 많잖아요. 삶의 모든 숙제를 끝내고 남에게 아낌없이 주는 샘이 되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꿈은 무엇인가요?

리치 디보스 회장님의 유고를 폭스 뉴스에서 20분간 다뤘습니다. 기부가 전업이었던 기업인이 떠났다고요. 제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최고의 성공은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

남편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공직자였고, 아이들은 착실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이었지만 그 안에 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한 시어머니의 며느리이자 깐깐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엄마가 있었을 뿐이었죠. 가정에 순복하고 내조에 전념하며, 가끔 골프를 치는 여유가 삶의 전부였습니다. 타인의 눈엔 보기 좋은 삶이지만, 제 주변으로는 온통 높은 벽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저였기에 암웨이에서의 성공을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암웨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북이처럼 나아가다 보니 마음고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폰서는 부모와 같아서 힘들어하는 파트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가장 힘드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스폰서님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이곳에 도착했네요. 다이아몬드 인정식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남편은 여러 번이나 '존경하는 아내'라며 스피치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줌마가 이렇게 한 명의 리더로 성장해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꿈 넘어 꿈을 꾸고, 꿈을 나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니다.

DIAMOND

이을호&손예리

2018년 9월 1일부 / 경북 경주시

알아보지 못했던, 그러나 삶을 바꿔준 선물 상자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도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밝기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를 만난 이후 저희 삶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게 온 암웨이는 선물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스폰서님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비로소 상자를 조금씩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100%의 가치가 아니라 1%의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한 거죠.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살다 보니 저희 가족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쉽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가슴에 품은 꿈과 희망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꿈의 진실함은 서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면 할수록 나보다 파트너들의 간절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함께하며 더 큰 꿈을 이루어가는, 시스템 안에서 저희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손예리 리더는 유치원 선생님이었고, 이을호 리더는 지금도 회사원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셋째 임신 중에 유치원에 입사하려고 지원하는 분을 봤습니다. 제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플랜B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미래의 확실한 대비책을 가지고 오신 스폰서님을 만났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선. 부모님께선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그걸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뭔가를 못해주시는 부모님께 아쉬움을 품기도 했습니다. 에메랄드가 된 후 그분들께도 그분들의 인생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분들께서도 힘드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기만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내가 다 해야지." 꿈이 덜 간절한 사람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꿈이 더 간절하다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해야 해요. 내가 바뀌면 그들도 간절함을 품고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감사한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늘 노력했어요. 인생에서 당연한 건 없고 감사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누구인가요?

아이들이요. 아홉 살 딸의 인형 머리카락이 다 잘려 있었습니다. 제가 잘 보살피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놀랐는데, 당당한 모습의 엄마처럼 만들려고 잘랐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핀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더군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DIAMOND

임은주&박세영

2018년 9월 1일부 / 대전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임은주 리더와 박세영 리더는 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을 실험해봤습니다. 대형 마트를 돌며 가격도 비교해봤고요. 충분히 되는 사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인 시아버님께서 연금과 미래에 대한 준비를 워낙 강조하셨던 것도 사업 결심의 배경이 되었을 듯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남편과 주변 사람들 모두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은 욕구가 컸기 때문에 반대가 누그러지길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힘들지만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박세영 리더님이 반대를 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영대학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강연을 듣고, '아마존이냐 이베이냐 킥스타터냐'를 놓고 주제 발표도 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암웨이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예전에도 아이의 공부는 시켰겠지만 유학을 보내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들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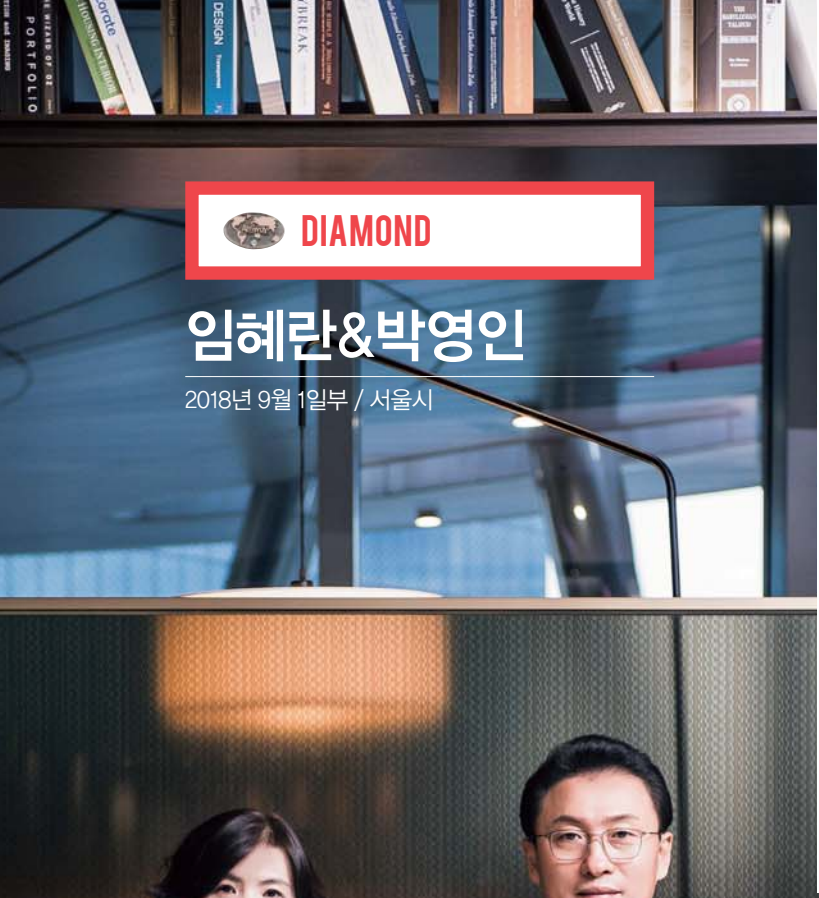
팀워크죠. 암웨이는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지금 꿈꾸는 것은 미래의 현실이 된다."

주부에서 사업가로, 파트너에서 스폰서로

너무 서둘러 포기하지 마세요. 암웨이 사업은 멋지고 대단한 기회의 사업입니다. 꿈만 있다면 평범한 주부들도 멋진 사업가로 변화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다른 성공처럼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면, 포기하고 싶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시작해서 1~2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성공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고 부족한 것 많은 주부였습니다. 남편의 반대, 수익이 빨리 발생하지 않는 것, 그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긴장과 시선들을 마주하며 포기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팅에서 '성공과 포기'는 동전 앞·뒷면처럼 늘 함께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포기의 마음을 성공의 마음으로 뒤집을 방법, 그것은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쉬워진다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시스템 중에 미팅 참석을 최우선으로 한 것은 최고의 행동이었습니다. 미팅 참석을 우선 순위에 두고 나 자신에게 훈련하고 변화될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간 성공자들의 강의를 들으며 희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작은 꿈이 큰 꿈으로 자라고 계획과 실천의 의지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돈도 시간도 능력도 없던 주부였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를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반드시 됩니다. You Can Do It!



DIAMOND

임혜란&박영인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원칙은 성공과 핑계를 가르는 기준

꼭 암웨이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경제적 도구에서 성공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인내와 성실, 원칙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건 이 세 가지 조건을 지켜나갈 때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웨이에서 특히 중요한 건 원칙입니다. 암웨이가 아닌 다른 경제적 도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는 상황에 맞춰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암웨이 비즈니스를 한다면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상황에 맞춰 살아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원칙에 따라 상황들을 필터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다 보면 이루 셀 수도 없이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풍타낭타 흔들린다면 너무나 힘듭니다. 비즈니스의 끝에 있는 종착점은 둘 중 하나입니다. 성공 아니면 핑계인 것이죠. 성공과 핑계는 절대로 겹치지 않습니다. 성공이냐 핑계냐가 나뉘는 갈림길에 섰을 때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원칙입니다. 다 함께 꾸준히 원칙을 지켜나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에서 만나길 희망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임혜란 리더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고, 박영인 리더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희망이죠. 나의 노력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에 끌렸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다른 일들에 비해 시간당 결과가 빨리 나온다는 점도 희망의 이유였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자기 계발! 평범한 주부에서 사업가로 변하기까지 사고와 행동의 많은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질 것. 인간관계는 단순합니다. 하나를 받을 때 둘을 준다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관계는 자연스레 만들어집니다. 이야기 하나를 할 때 둘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매사에 양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지금쯤은 도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결정 시기였습니다. 60주년 행사에 대한 동경도 컸고요. 이번 시기에는 반드시 매듭을 짓겠다고, 어떤 상황에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공룡 기업도 변화와 혁신하지 않으면 금방 삼켜질 수 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후원 수당과 같은 수입, 자유로운 삶, 가족 중심의 삶. 어느 하나를 고르기 어렵네요. 암웨이 사업은 다른 도구보다 연금과 같은 수익구조를 구축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습니다. 자본 투자를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전하면서 쉽고 빠른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DIAMOND

장기성&신정화

2018년 9월 1일부 / 부산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장기성 리더는 시간강사였고, 신정화 리더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암웨이를 하면서 흔들릴 때에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냈나요?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미팅에 참석해서 마음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잘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이죠. 진심을 다하는 사랑, 누구를 만나도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거절당하는 순간이 많지만 상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거절당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주려는 마음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거절의 상처도 없습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오롯이 내 사업이라는 사실이겠죠. 교수가 되었어도 언젠가는 퇴직하게 됩니다. 암웨이에선 평생 무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65세 이후에는 차이가 날 겁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희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가 따로 없이 두 사람 다 주사업자로 스폰서님께서 역할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자란 1%를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희 성취의 8할은 스폰서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주 · 부사업자의 구분이 없어 힘들 때 같이 힘들 수 있는데, 그때마다 스폰서님께서 중심에 서주셨습니다. 또 걱정 어린 마음으로 저희 성취를 끝까지 믿어주신 양가 부모님도 생각납니다.

큰 꿈을 향해가는 무모한 도전의 한 정거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모한 도전에 나서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도 그들 가운데 속할지 모릅니다. 체육학 박사인 장기성 리더는 실험실에 갇힌 상태로는 암웨이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신정화 리더가 미팅장에 나서면 장기성 리더는 집에서 아기를 봐줬습니다. 저희는 장기성 리더의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학교를 때려치우고 아기를 돌보는 아들을 바라보는, 시부모님의 눈빛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성공으로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말로 믿으면 불가능처럼 보이던 일도 가능해집니다. 절절한 간절함은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흐릿한 마음으로 도전하지 마세요. 가슴에 품은 간절함으로 도전할 때 성취가 따라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없이 도전했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미리 볼 순 없지만 믿어야 합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내리라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는,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동기와 구체적인 목표가 함께해야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계획은 섬세하게, 꿈은 거대하게!

DIAMOND

정나영&정원규

2018년 9월 1일부 / 경남 김해시

도전에 간절함을 담아 성취를 쓰다

처음 암웨이를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공부하고 심사숙고했습니다. 무조건 10년은 간다는 마음으로 출발했기에 빠르진 않아도 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쌓아왔습니다. 자영 사업을 오래한 정원규 리더는 신중함이 장점입니다. 언제나 앞뒤를 꼼꼼히 재고,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암웨이에선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결단력이 더 중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성격이 암웨이에선 오히려 가장 부족한 부분이 되었던 듯합니다. 저희는 4번의 도전 끝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이번 도전의 환경은 오히려 전보다 나빴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나 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파트너들의 성장에 대한 간절함, 두 딸과 아들에게 더 이상 헛공약을 할 수 없다는 간절함이 저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성취로 제대로 된 도전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일단 결정하고 진심을 담아 도전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죽어도 해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정나영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정원규 리더는 지금도 자영 사업을 겸업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사업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혼자선 불가능하고, 팀원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들어할 때, 손을 들고 포기할 때, 자신이 없어서 함께 못 가겠다고 떨어져나갈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경험을 몇 번 이겨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스폰서님과 시스템이 마음을 잡아줬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가족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예전에는 공부나 사회적 통념에 따라 가족에게 바라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 구성원들이 진짜 원하고 가고자 하는 길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강요보다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정직. 편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편법으로 잠시는 성장할 수 있어도 정직하게 나가지 않는 팀은 결국 도태되더군요.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영화 〈안시성〉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깊은 비전을 봤으니까요. 희망, 건강, 도전이 함축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DIAMOND

정수철

2018년 9월 1일부 / 강원 춘천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춤을 사랑하는 비보이였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비보이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부상으로 27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윤 추구보다 성공의 기회를 나눠주는 데 열중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과거의 직업이 너무 화려해서인지 치약을 들고 다가가자 사람 관계가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살아온 시간은 짧고 앞으로 만날 사람은 많을 테니 당당히 나아가자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굉장히 다혈질이었는데 이제는 화가 안 납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스폰서님의 스폰서십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셨고, 뒤에선 채찍질하며 앞에선 끌어주셨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남들이 너를 비웃고 있지 않다면 네 꿈은 충분히 큰 것이 아니다." 큰 꿈과 그만큼의 자신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래퍼 스윙스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네요.

스폰서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한계를 뛰어넘어

비보이로 한국 대표까지 했으니 춤으론 나름 인정받은 셈이죠. 다른 일도 뭐든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진 했는데, 암웨이 사업은 유독 어렵더군요. 그래도 각오랍시고 플래티늄에 도전하겠다고 스폰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폰서님께선 저를 플래티늄에 보낼 생각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실망에 젖어 며칠을 보내던 중 스폰서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도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춤에선 프로였을지 몰라도 암웨이에선 막 발걸음을 뗀 문외한이었습니다. 반면 스폰서님은 이 분야의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폰서님의 말씀은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가슴이 뛰어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년간 정말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암웨이 사업은 스폰서님으로 시작해서 스폰서님으로 완성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만듭니다. 하지만 스폰서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자신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DIAMOND

정혜진&서동혁

2018년 9월 1일부 / 충북 청주시

주고 또 주는 사랑으로 키워가는 행복

암웨이에서 사랑에 대해 배워갑니다. 예전에 알던 사랑은 남녀 관계의 애정이었고, 아이를 낳고는 가족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암웨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파트너를,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꿈을 이루려고 시작한 사업에서 다른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니,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상대에게 마음을 준 만큼 마음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는, 퍼주기만 하겠다는 심정으로 다가갈 때 파트너에 대한 사랑은 완성됩니다.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들의 꿈을 가만히 바라보면 됩니다.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 상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들의 꿈이 보입니다. 그 꿈이 내 꿈으로 바뀌면서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꽃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꽃으로 인해 내가 좋아지길 바라지 마세요. 나로 인해 꽃이 좋아져야 합니다. 암웨이 사업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파트너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커다란 행복이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정혜진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서동혁 리더는 건설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추가 수입 때문이었지만 정말 결단하게 된 것은 "딸은 엄마의 뒷모습을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미팅에서 들으면서였습니다. 제 뒷모습이 딸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8년이 흘렀는데 다른 아이들보다 꿈과 목표를 확실히 하면서 자라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계속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꿈을 이야기하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아닌 아이들이나 가정의 꿈밖에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고, 이루고,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게는 특별한 장점이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다가 이루면 다음 목표가 보이니까 다시 노력하길 반복했을 뿐입니다. 비즈니스보다 사람의 정을 우선시한 것도 원동력이라면 원동력일까요?

다이아몬드가 되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이죠. 끝까지 저를 믿고 놓지 않고 함께해준 분이니까요. 파트너들만 생각하며 진행했지만 길을 안내해준 스폰서님이 안 계시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하늘은 태만하게 보냈던 오늘 하루를 만회하기 위해 두 번째 오늘을 허락하지 않는다." –토머스 제퍼슨

DIAMOND

조미선&손병주

2018년 9월 1일부 / 경남 김해시

확신으로 쓰는 희망의 인생 2막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스스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세요. 암웨이는 생필품의 브랜드 체인지로 인생까지 브랜드 체인지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려울 것 없습니다. 먼저 사업을 경험한 스폰서님과 적극적으로 상담하세요. 크고 빠르게 성취하며 스폰서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스폰서님의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역시 우리의 경험과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파트너들도 만날 테니까요. 부족함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스폰서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쩌면 암웨이는 스폰서님이 아니라 파트너님들이 우리를 키워주는 사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다는 긍정과 확신으로 도전하세요. 그럼 남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때 여유로운 인생 2막에 돌입한 우리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조미선 리더는 공시족(공무원시험준비생)이었고, 손병주 리더는 직장인으로 겸업 중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평생 사업과 절대평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 결과를 낼 수 있는 평생의 사업이잖아요.

사업에서 가장 힘든 건 무엇이었나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요. 나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스스로를 비웠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니까 신뢰가 쌓이고 마음도 움직이게 되더군요.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희망의 지속성이죠. 전에는 단편적이고 막연했다면, 지금은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희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간절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한 번뿐인 삶의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현실에 끌려 다니며 사는 겁니다. 암웨이는 주도적으로 살게 해주는 도구이고, 간절한 꿈이 추진 동력입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양가 부모님이요. 반대하시던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친정 부모님께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저를 더 노력하게 만들었어요.

DIAMOND

조정범&김용미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구리시

기회의 싹을 내린 6,465원

2년 전, 15년을 알고 지낸 이웃에게 신규 회원 가입 프로모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별 마음 없이 ABO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6,465원이 갑자기 입금되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겠거니 하고 돈을 돌려주려고 연락드렸다가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스폰서님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고, 사람을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암웨이는 알아갈수록 놀랍습니다.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막하게 기다리기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야 큰 기회가 오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핀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이게 진짜 기회라는 사실을 점점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짜인 교육 프로그램에서 우리는 변화를 체감합니다. 예전의 우리는 캠핑을 다니면서 여유를 즐긴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진짜 여유를 찾지 못합니다. 어쩌다 찾은 캠핑장의 풍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여유가 뿌리내려야 진짜 여유입니다. 준비하세요. 변화하세요. 그리고 기회의 싹을 틔우시길 기원합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김용미 리더는 방문 판매업에 종사했고, 조정범 리더는 지금도 식자재 유통 컨설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짜 변화가 가능한 곳,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는 곳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빠른 성취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2년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빠르게 도전하는 만큼 느슨해질까 봐 쉬지 않고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여유로움이죠. 재정적인 여유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간 가족끼리 대화할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족의 심리적인 여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사랑과 인내. 세상이 모두 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상이 있나요?

여행 프로그램이 추진 동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와이 리더십 세미나를 목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스폰서님. 엄마 이후 저희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이니까요.

조정범 · 김용미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극강의 서민들. 절망의 끝까지 갔다가 희망의 씨앗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유통 쪽에 계시던 분이 많은데, 유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한 사람도 많아요.

DIAMOND

지윤숙&박과길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화성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지윤숙 리더는 자영업을 했고, 박과길 리더는 지금도 직장인으로 겸업 중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암웨이가 시간의 적금을 드는 일임은 누구나 압니다. 힘들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못하고 있다고 자책하며 두려워하기보단 믿고 이겨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IMF 세대인 저희는 남편이 현재를 책임지고 있을 때, 저는 노후준비로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도 정년이 있더군요. 암웨이를 만나 더 이상 대안을 고민하지 않았고, 아이들은 열심히 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함께할 또 다른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섬김입니다. 암웨이는 낮아지면서 세우는 일입니다. 스스로 낮아짐으로써 상대를 세울 때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다른 일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보상입니다. 아무리 큰 회사의 보상도 개인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암웨이는 가족은 물론 파트너도 함께 보상받게 됩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하루 5cm 를기어가는 애벌레가 하루 10km 이상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기어가는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 날아가야 한다는 것과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데기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버텨낼 때 다가오는 최고의 보상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끊기는 수입 때문에 대부분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누구나 열심히 사는데, 오늘에만 집중하다 보니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나이를 먹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도 내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미래는 늘 불안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를 몰랐기 때문이죠. 몰라서 모르는 그 세계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암웨이라고 저절로 미래가 준비되진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와 지불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땅을 사서 파고, 바닥을 다지고, 철근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그다음에야 건물의 진짜 윤곽이 드러납니다. 저는 단군신화 속 호랑이가 마늘을 먹을 때마다 손 하나 발 하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갔다면 사람 되기를 포기했을까 궁금합니다. 결과가 미리 보였으면 호랑이도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뿌리내리는 시간을 버텨내세요. 그럼 알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보상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DIAMOND

진선자&권성택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시흥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진선자 리더는 디자이너였고, 권성택 리더는 지금도 직장인으로 겸업 중입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제 자신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결혼 이후 성장의 기회를 갖기 쉽지 않았을 때 지금의 업라인 스폰서님으로부터 〈놓치고 쉽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권유받았고 꿈에 대한 가치와 기대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꿈만 꾸던 이상들을 현실로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암웨이는 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신뢰. 이 사업도 신뢰에 기초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 신뢰니까요.

과거의 직장 생활과 암웨이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직장에선 주어진 일을 해내야 하지만, 암웨이 사업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일반 직장에선 내가 아닌 회사의 방향이 우선이지만 여기에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성취를 가능하게 해준, 가장 고마운 한 명은 누구인가요?

창업자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더 늦지 않게 성취하려던 이유도 창업자를 뵙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암웨이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난 9월 창업자 리치 디보스의 비보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당신의 책임이다." –빌 게이츠

10년 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세 사업가들에게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 가치와 비전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미래의 멋진 삶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미팅장은 변화로 가는 가치의 전람회

비즈니스 속에서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업 초기 제게는 리더에게 필요한 마인드가 부족했습니다. 스스로가 먼저 리더로 바로서지 못했는데 파트너들을 리더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변화를 꿈꿨지만 사업 초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 간단히 변화할 수 있다면 누구나 바뀌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암웨이의 문화, 구체적으로는 미팅 속에서 나 자신을 찾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와이(Why,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자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팅에 집중하길 권합니다. 확고한 이유 위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리더는 파트너들의 변화까지 이끌게 됩니다. 와이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의 단점만 바라보며 가라앉지 않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저의 가장 큰 변화는 파트너들의 장점을 발굴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와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가치가 담겨 있을까요? 미팅을 통해 가치를 찾아갈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DIAMOND

최명신

2018년 9월 1일부 / 서울시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색채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관계를 평생 지속하게 해주는 사업이어서 암웨이가 좋았습니다. 저희 집은 6녀 1남의 큰 가족인데, 결혼과 직업 때문에 여러 형제가 해외로 나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웨이는 가족 모두가 애정을 더욱 갖도록 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에메랄드에서 다이아몬드로 오기까지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바라고 기대하는 점이 달라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었는데, 스폰서님의 변함없는 믿음과 조언, 시스템을 통한 학습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당신이 옳다. 모든 사람이 옳다. 다른 것일 뿐 모든 사람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요.

이번 성취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변화겠죠. 다이아몬드는 100미터 달리기에서 숨을 참고 뛰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변화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크게 변하면서 도전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당신이 잘못할 때에도 내가 당신의 편이 되어줄게." 업라인 스폰서님의 말씀입니다.

가깝거나 먼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주세요.

2025년 정도? 늦어도 2030년에는 온 가족이 한국에서 모일 거예요. 언니들도 모두 다이아몬드가 되어 가족이 함께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을 함께 하며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따뜻한 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니까.

변화 없이 이루어지는 발전은 없다

암웨이는 많은 변화를 선물합니다. 제게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은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세계에는 저를 포함해서 개성이 뚜렷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개 그렇듯 좋고 싫음과 옳고 그름이 명확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그런 성격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상대에게 잘못이 있으면 지적하고 고치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타인을 돕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네 말이 다 옳은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기운이 없어진다"라더군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힘을 주고 기다리는 게 먼저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스폰서님과 더 많이 상담하고, 감정 조절이나 인간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습니다. 과거의 저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바뀌어가고 발전할 수 있는 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암웨이는 사람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건강이나 세상의 흐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줍니다. 지속적인 공부에서 저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언젠가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발전된 제 자신과 조우하고 싶습니다.

DIAMOND

최은희&박현욱

2018년 9월 1일부 / 울산시

결승점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의 끝에 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남들보다 느린 성취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다행스럽게도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잡아냈다는 뜻일 것입니다. 전에도 저희는 늘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가 답은 아니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돌아보면 외골수 성향이어서 스폰서님이나 시스템의 조언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진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발만 빠르게 굴린다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진 못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곳,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봐야 합니다. 목표 의식은 방향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다이아몬드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매달 이루어야 할 작은 목표들을 설정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 최선을 다했습니다. 봄을 목표로 달렸는데 9월 1일부 다이아몬드가 되었으니 약간의 차질은 있었네요. 목표 의식이 정확하다면 약간의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최은희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박현욱 리더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절한 희망이 삶을 바꾼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암웨이를 소개받았을 때, 20대 어려운 시기에 감명 깊게 읽었던 〈피그말리온 효과〉가 떠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스폰서님의 지속적인 후원이었지만요.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뭔가요?

삶이 풍요로워졌어요. 처음엔 사업을 위해서 오만했던 태도를 바꾸려고 했는데, 습관이 되니 진심으로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이 되고, 결혼 전 꿈꾸던 희망이 다시 나타나면서 삶 전체가 풍요롭게 바뀌었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긍정과 끈기. 긍정은 타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이고, 끈기는 스스로 변화하는 자세입니다.

최은희 · 박현욱 팀을 한 단어로 표현해주세요.

끈기와 자립의 팀. 파트너들 모두 끈기가 있어서 마침내 이루어낼 팀입니다.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무신불립." 〈논어〉의 공자님 말씀이죠. 매사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그려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시골로 돌아올 거예요. 스피커가 설치된 정원에서 음악을 듣고 요리하며 평화롭게 살다가, 유학 중인 딸을 만나 해외에서 원하는 만큼 지내다 올 수도 있겠고요.

DIAMOND

한지연&구민영

2018년 9월 1일부 / 경기 수원시

시련과 고통 사이에서 성공의 싹을 틔우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경제적인 뒷받침이 자유로운 삶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알기에, 확실한 경제 수단을 애타게 찾았지만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참석한 사업 설명회에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 일 없이 비즈니스를 키워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시련과 고통은 반드시 따릅니다. 힘들 때 자신을 믿지 못한다면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도전한다면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게 아니라 키워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도랑을 건너면서 몸이 젖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파른 언덕이 가로막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도랑의 물은 우리의 땀을 식혀줄 것이고, 높은 언덕은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과정까지 즐겨야 합니다. 그렇게 웃음으로 이겨내다 보면 정말 꿈과 목표를 이루어 함박웃음을 터뜨릴 순간이 옵니다. 그 굽이굽이 과정에서 100%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결심하게 도와주신 스폰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QUESTIONS & ANSWERS

암웨이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나요?

한지연 리더는 전업주부였고, 구민영 리더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나요?

암웨이는 스스로와의 싸움입니다. 고비를 넘을 때마다 평범한 사람의 한계를 느낄 때 힘들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순 없는 것이 아닌지 두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원래 왜 하려고 했지?"하는 질문을 자꾸 던졌습니다. 또 업라인 스폰서님께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암웨이를 통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말도 별로 없고, 어울림을 안 좋아하고, 낯가리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람과의 인연이 너무 좋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에서 명심해야 할 하나의 단어가 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진심을 줄 것.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는 진심이 있어야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최근 마음에 와 닿은 한마디가 있나요?

"암웨이는 믿음에 대한 보상이다."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2021년에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집을 암웨이 교육장이자 퀸룸, 파트너들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센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암웨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뭔가요?

희망이 없는 삶에 희망이 되어주는 사업이니까요. 희망을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AMWAY KOREA

RECOGNITION

Congratulations

2018 NEW PIN

FOUNDERS EMERALD ____ 157

EMERALD ____ 158

FOUNDERS SAPPHIRE ____ 166

SAPPHIRE ____ 166

FOUNDERS PLATINUM ____ 166

RUBY ____ 169

PLATINUM ____ 170

FOUNDERS EMERALD

09

2018년
9월 1일부

권미야&문성준
경북 칠곡군

스폰서님의 관심과 파트너님의 응원으로 이 핀을 달성할 수 있었고 더 큰 꿈을 함께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정숙&김룡걸
경기 시흥시

파운더스 에메랄드 성취 후 매일 감사의 마음이 넘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도전하고 고! 다이아몬드 하겠습니다.

남봉옥&이강원
충남 천안시

벽돌을 쌓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니 안정된 노후,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함께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박민수&손지선
경남 김해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가 되면 발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항상 정직하게 발로 뛰는 암웨이를 하겠습니다.

박용현&권노은
경기 안산시

성장에 도움을 주신 스폰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이아몬드를 다시 도전하며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으로 반드시 성취해내겠습니다.

원영숙&신성우
대구시

여기까지 함께 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이아몬드를 향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파트너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윤은혜
경기 시흥시

삶을 바꿔주는 암웨이를 소개해 주시고 3년 후, 5년 후의 계획을 세우고 이뤄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합니다.

이교정&최교원
경북 예천군

이 핀을 성취하면서 진정 파트너를 도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훈&윤혜영
경기 용인시

스폰서님와 파트너님 간의 변치 않는 우정으로 이 핀을 성취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다이아몬드에 도전합니다.

이선미
광주시

암웨이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이 안에서 꿈을 꾸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인내와 성실함으로 이루어냈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최규용&김수정
충남 공주시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이 하나였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두바이 리더십 세미나와 다이아몬드 성취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한상숙
경기 용인시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다이아몬드 성취로 성장하는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

EMERALD

03
2018년
3월 1일부

신세영&박종하
대전시

성공자를 만들어내는 시스템과
큰 울타리가 되어주신 스폰서님,
사랑하는 파트너님들의 팀워크로
가능했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안광호&박세현
경기 수원시

암웨이는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고 끝납니다.
나의 성취보다 파트너의 성장을
위해 더 준비된 리더가 될 것입니다.

04
2018년
4월 1일부

김숙희&허재구
부산시

파트너들과 함께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속도보다
방향을 잘 잡고 사람이 먼저임을
잊지 않는 리더로 성장하겠습니다.

안선희
광주시

신뢰를 바탕으로 방향을 잡아주신
스폰서님이 계셔서 핀을 성취했네요.
받았던 보상만큼 파트너들과도
앞으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조경미&이경용
대구시

오늘도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그게 바로 파트너들의 성장인
걸 압니다. 다이아몬드로
〈어취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5
2018년
5월 1일부

김희선
경기 성남시

같은 꿈을 향해 가족이 함께
전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스폰서님들, 파트너들과 2019년
다이아몬드 완성해내겠습니다.

방수연&박근영
충남 천안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는 이 일이
멋진 것 같고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다이아몬드에도 곧 도전합니다.

윤미화&최원남
경기 고양시

파트너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창업자분들의 정신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고 항상 도전합니다.

정선희&장인성
경기 광명시

명확한 목표 결정과 지속적인
반복이 중요했습니다. 스폰서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파트너들과의
찰떡궁합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조현주&임구수
경기 용인시

소비자로 오랫동안 받아온 감동을
시스템 안에서 배우면서 제 변화에
집중하다보니 에메랄드라는 값진
핀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최영란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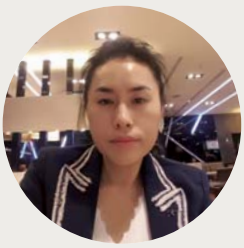
시스템 안에서 성공자의 마인드를
배우며 꿈을 꾸니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어요. 또 한 계단 높은
꿈을 꾸고 도전합니다.

06

2018년
6월 1일부

김소영
부산시

행복의 기준을 알려준 나의 사랑 암웨이.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더 큰 도전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키우겠습니다.



윤순희&배성훈
부산시

파트너들께서 본인의 사업처럼 함께 진행했기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이정아&이종광
부산시

언제나 용기와 응원을 주시는 스폰서님과 배움을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또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임영욱&민치영
서울시

암웨이 사업이 자유와 희망, 인생을 선물하는 사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장금희
대전시

시스템을 이해하고 제품 전문가가 되어 믿음의 결과로 핀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늦추지 않고 행복한 여정을 하며 Let's go Diamond!

지명혜&유한철
경기 하남시

한결같은 믿음을 보내주시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들에게 감사합니다. 주어진 기회의 선물을 함께 나누도록 도전하겠습니다.

최성숙&변경일
경기 남양주시

잘하진 못했지만, 성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실과 신뢰가 최선이라는 마음으로 동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홍지나
서울시

이 도전을 나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믿음, 그 위대한 힘 안에서 담대히 도전하겠습니다.

07

2018년
7월 1일부

강진수&김경오
부산시

앞서 보여주시는 스폰서님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기에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고귀한
경기 이천시

스폰서님의 사랑과 최고 시스템 안에서 성취하게 되어 기쁩니다. 손잡은 파트너분들과 동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EMERALD

김담혜
대구시

이 핀은 제 개인이 아닌 함께하는 팀에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다이아몬드에 도전해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김명희
경남 김해시

스폰서님과 파트너의 소중함,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계속 도전해서 성취하겠습니다.

김문경&문석윤
전북 전주시

가족으로부터 전달받은 암웨이가 희망이 되고, 가난과 이별하는 에메랄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이아몬드 핀에 도전합니다.

김선희&박승빈
경기 용인시

'나'가 아닌 '우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 감사합니다. 팀워크로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김소영&김성덕
경남 창원시

이 핀을 성취하고 나니 책임감과 감사가 흐릅니다. 파트너분들과 겸손하게 배우고 경험해서 즐겁고 신나는 암웨이를 하겠습니다.

김수연&강영철
제주 제주시

이 핀을 성취할 수 있게 도와주신 파트너님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 성취로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

김진희&오석환
경기 성남시

암웨이를 통해 재정적인 안정과 많은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돕고 그들의 가정과 영혼을 살리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노희정&권오성
서울시

꿈을 이루는 매일이 모여 이 핀을 성취했습니다. 모든 파트너들 사랑하고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신윤미&박영준
경기 남양주시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있기에 더 간절했던 도전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성공을 믿는 마음이 컸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득주&손기협
경북 경주시

시스템과 스폰서님이 있는 한 '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젠 파트너들의 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행복합니다.

이승은&강람술
경남 창원시

멋진 시스템을 통해 성장했고, 멋진 수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희망을 알려주신 스폰서님 감사드립니다.

이원진
경기 남양주시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변하며 성취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들과 동반 성장하는 모습으로 다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정윤미&최한옥
경남 창원시

친구, 시간, 돈 부자가 된다는 말에 암웨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고! 다이아몬드.

하경희
대전시

이 핀을 성취했다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 행복하게 만드는 리더가 되어 새로운 핀에 도전하겠습니다.

하은영
경남 김해시

꿈만 같습니다. 파트너들과 스폰서님 사랑합니다. 이 멋진 일을 이루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08
2018년
8월 1일부

강경숙&백송현
경기 화성시

새로운 동기부여와 출발을 의미하는 성취입니다. 초심에서 파트너님들과 동반 성장해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겠습니다.

고혜란&이상풍
대전시

이 핀을 성취하니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잘 해야겠다는 다짐도 들고, 먼저 솔선수범하며 함께 발로 뛰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금경단&김홍재
부산시

40년지기 친구와 함께 이뤄낸 성과라 더 뜻깊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신 스폰서님과 함께해준 파트너들 사랑합니다.

김혜란&이근용
경북 포항시

리더님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감동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과 순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보영&조윤형
경기 고양시

함께 이룬 성취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파트너분들과 꿈을 공유하면서 다이아몬드에 도전합니다.

박정은&이종석
경기 수원시

이 사업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 열심을 다하는 부모, 도리를 하는 자식이 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박지연&이응수
경기 용인시

혼자 힘이 아닌 팀워크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파트너들의 도전과 목표를 위해 이 사업의 완주를 꿈꾸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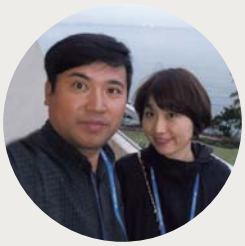
안지은&이민우
경기 용인시

지금은 우리 가정의 희망이 되어준 암웨이에 감사합니다. 우리 팀과 함께 성장하는 올바른 네트워크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EMERALD

안지현&이지수
인천시

암웨이는 제게 '경제의 방주'입니다. 이제 파트너들의 방주를 하나하나 튼튼히 만들 차례라 생각하고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뛸 것입니다.



양정희&조영식
경북 포항시

암웨이를 만나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다른 이의 삶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꿈이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위진아&최병식
경기 남양주시

스폰서님들과 시스템과 팀워크 덕분에 전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파트너들을 돕고 경제의 복음을 전하는 희망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윤경미&정순오
대구시

돈보다 더 값진, 정신적 여유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파트너들도 경제적·정신적으로 자립하도록 헌신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성미&윤태근
울산시

보상은 감동이고 스폰서님과 파트너를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파트너들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영&황보순
경기 용인시

스폰서님의 섬기는 리더십과 평범한 주부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의리로 뭉쳐진 파트너님들의 응원으로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미애
울산시

플랜의 이해와 여행이라는 보상 덕분에 성장했습니다. 가치를 공유하며 다이아몬드로 다시 성장하겠습니다.

최유경
서울시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는 일이기에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배우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허진호&김애임
서울시

암웨이의 자산 소득은 사람들을 섬기고 끊임없이 흘려보냄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겠습니다.

황선자
경기 안양시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이 되는지를 배우게 된 도전이었습니다. 좋은 팀과 함께이기에 용기내었습니다.

09
2018년
9월 1일부

권혜경&오세호
경남 양산시

"열정은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믿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파트너들의 보석 핀 유지를 위해 더 도전할 것입니다.

김경희
울산시

파트너님들과 함께 한 성취여서 더욱 기쁩니다. 모범을 보이시는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과 꿈을 향해 달리겠습니다.

김명신&정필환
경기 광주시

이번 성취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혜로운사람이 되어, 생각대로가 아닌 생각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김미선&김재호
경기 남양주시

파트너들과 팀워크로 같이 뛴 결과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고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나갈 올 한 해가 기대되고 설렙니다.

김미정&조용준
전북 전주시

암웨이 사업이 혼자가 팀을 이루어 함께 하는 사업인데, 파트너들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 핀이라 더 감사하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희&송은주
서울시

스폰서님 그리고 리더님들의 기도로 성취한 이 핀. 고난은 기적을 만들고 축복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김윤정
서울시

암웨이에는 자아, 꿈, 가족, 미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모두에게 진정한 기회로 돌아가도록 청지기 마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김은정
세종 자치시

암웨이 속에서 30·40대를 보내고 있음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스폰서님, 파트너님들께 신의를 지키는 정직한 리더가 되겠습니다.

김정금&서재성
서울시

감사한 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 내 꿈을 통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이곳이 있어 행복합니다.

김지현&김효섭
경기 수원시

성공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누가 간절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김진의&서정원
경남 김해시

매일 도전했지만 늘 설렜고 행복했던 건 함께였기때문입니다. 이제 파트너의 보석 핀을 상상하고 도와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김현미
대전시

스폰서님과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한 성취이기에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약속을 지키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김현옥&김기성
부산시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들이 있었기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도전의 축복과 함께 성장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김현정&유대열
부산시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가치 때문에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도전할 때 그 에너지로 멋진 팀을 만들수 있었습니다.

EMERALD

김희숙&박상희
인천시

먼저 성취하신 리더님들의 성공을 믿으며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께 감사합니다.

박지우&황현승
서울시

암웨이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꿈을 꾸고 이루도록 해주는 멋진 도구입니다. 희망이 되는 이 기회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경숙&조우재
부산시

우수한 제품과 훌륭한 시스템으로 인해 이 핀을 성취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변 모든 분들과 행복한 암웨이를 함께하겠습니다.

신금균&이영민
경기 성남시

'누구나의 기회'로 시작해 '우리가 해냈다'가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전이 미래로 나아가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심연화&오지훈
경기 광주시

암웨이는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손 내밀어주었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파트너들을 돕고 꿈이 이뤄지는 날까지 달릴 것입니다.

심정운&윤종암
경기 남양주시

암웨이 사업을 통해 열정과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복순&김도환
강원 동해시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성공의 비결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더 행복해지고 더 성공하겠습니다.

유규영
경기 화성시

도전이라는 것을 통해 저와 파트너님들의 많은 성장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2019년도 함께 꼭 두바이로 향하겠습니다.

유재화&한승록
강원 강릉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시스템과 회사, 제품과 나 자신을 믿으며 다이아몬드 핀도 성취하겠습니다.

유정희&김병주
부산시

도전과 목표 의식 그리고 신뢰를 더해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와 비전을 알리고 더 큰 핀 다이아몬드에 도전하겠습니다.

이석영&서일공
경남 김해시

이젠 파트너님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뛰겠습니다. 암웨이 비즈니스가 가진 원윈의 가치를 보여주고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신화
경기 성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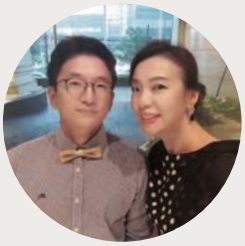
노력만큼 결과를 꼭 얻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하기 전에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비로소 암웨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정하&조민준
경남 진주시

스폰서님의 헌신과 파트너들과의 팀워크로 함께하는 사업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팀워크로 더욱 성장하겠습니다.

장소영&김봉철
경기 화성시

믿어주신 스폰서님들과 함께해주신 파트너님들 감사합니다. 2019년 파트너들의 성장을 위해 더욱 섬기고 도전하겠습니다.



정경아&박정호
경기 용인시

함께한 파트너님들, 스폰서님 그리고 응원해주신 팀 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고 이젠 고! 다이아몬드입니다.

조혜진
경기 용인시

40·50대의 가을이 단풍처럼 아름답길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이제 따뜻한 난로가 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에 도전합니다.

주정주
서울시

창업자 마인드를 그대로 지닌 스폰서가 되어서 파트너들과 함께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채동기
경기 수원시

스폰서님을 믿고 시작한 암웨이. 믿음에 보답 받은 것 같아서 기쁩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매년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최민경
경기 남양주시

방향을 모를 때 방향을 제시해준 스폰서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어준 파트너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최혜진&이은규
경기 용인시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은 모범이라고 스폰서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가겠습니다.

탁세미나&이승준
경기 이천시

암웨이에 확신이 들 때 에메랄드가 마음에 박혔습니다. 파트너들과 함께 이뤘기에 이들 또한 가난과 이별하게 돕겠습니다.

허경순&김동기
경기 용인시

이번 성취는 수많은 도전에 강한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늘 긍정의 믿음과 선택으로 반드시 정상에서 더불어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현두례
광주시

헌신과 봉사, 나눔과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는 법을 스폰서님들께 배웠습니다.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FOUNDERS SAPPHIRE

09 2018년 9월 1일부

공현옥&류춘석 광주시
김병을&구정숙 대구시
김승희&안형원 경기 용인시
노경주&정성용 전북 전주시
박구은 서울시
박선주&신철기 경기 화성시
변정원 경남 창원시
양혜란 대구시
유미화&백승철 대전시
윤정이&이형주 광주시
이광국&김향순 경기 수원시
이상애&유진건 충북 청주시
이수희&황경하 서울시
장선숙&임희택 서울시
전명배&김연희 경남 창원시
정다운 경기 파주시
조선화&강신욱 경북 경주시
채미현&모근옥 광주시
최한욱 경남 김해시
하명화 강원 원주시
홍기연&이재성 인천시

SAPPHIRE

03 2018년 3월 1일부

고미선&김홍철 충북 청주시
김계형 서울시
김기현&이서연 충남 천안시
전은희&권병주 경남 창원시
정유순&배정훈 경북 경주시
최인자 서울시
최진아 대전시

04 2018년 4월 1일부

고가연 서울시
권문희&김종확 경남 김해시
문정희&장세한 경기 시흥시
문종열 경남 창원시
조요한&김현경 경기 평택시

05 2018년 5월 1일부

김명자&최광성 경기 광주시
김옥기&김정일 서울시
류원영&박홍식 울산시
박희숙 대구시
신승희&강민우 광주시
우경수&구혜영 서울시
이선영&김훈 전북 전주시
이종영 충북 청주시
조명숙&양선모 경기 고양시
한경 전남 목포시

06 2018년 6월 1일부

김영은 경기 부천시
박안나&오한귀 광주시
박은지&김기일 경북 경산시
오혜련 서울시
장윤주 광주시
조세진&신동우 경기 고양시
조영철 인천시

07 2018년 7월 1일부

김나영 경기 안양시
김보현&김성태 서울시
서미선&정해원 울산시
유은희&김형일 경기 부천시
이영주 경기 수원시
이정림&장지용 경남 창원시
이정미&송호현 경남 창원시
장희선&전승현 경북 구미시
정인숙&이유완 울산시
정혜순&조재원 전북 전주시
최주현&최선희 경기 시흥시

08 2018년 8월 1일부

김경애 경기 고양시
김순호&이남준 경기 안양시
김주하 전북 전주시
김진숙&오동진 세종 자치시
나부경&최성웅 부산시
박명은&이근 경기 구리시
신미경 경기 남양주시
유연상 경기 남양주시
이은경 경기 의왕시
이지윤 대구시
정서연 경남 진주시
정선임 대구시
차은실&최인환 경남 진주시
최문영 광주시
최주희 경남 창원시
황미정 인천시

09 2018년 9월 1일부

권성수&최희정 충북 청주시
김민선&남기원 충북 청주시
김윤숙&조철흠 부산시
나선정&이경섭 대구시
문한영 서울시
박세진&송강석 경기 수원시
안현아&정연관 경기 용인시
오경미&이영일 부산시
오미정&최병준 대구시
유나영&정현명 경기 평택시
이동우&서향미 경남 창원시
이명숙 경기 남양주시
이민선&정승진 광주시
이보경 서울시
이윤경 대구시
이지희&길형주 경기 남양주시
최유화 경기 수원시
하윤자&정순재 대구시
하은진&이상현 경남 김해시
허윤서&이재열 울산시

FOUNDERS PLATINUM

09 2018년 9월 1일부

LI SHUAI 서울시
LIXUECHENG&**이미영** 서울시
SHEN JINGGUAN 경기 수원시
가춘&서익수 충남 천안시
강경준&조현근 경기 양주시
강규진 경기 김포시
강민정&유진호 경북 포항시
강오현&유영선 경기 용인시
강은정 부산시
강정미&강대규 경기 수원시
강지영&서상린 경기 성남시
강지원&함동수 경기 하남시
강청림 경기 고양시
강치원&송명희 부산시
강혜정 경기 고양시
강효석&하미경 경기 화성시
강효숙 대구시
고귀영&이원표 서울시
고동진 경기 수원시
고민선 울산시
고영동 세종 자치시
고유미&이경수 대전시
고창민 경기 부천시
고혜영&김택곤 서울시
공경원&양원찬 경남 김해시
공정식&최진희 경남 김해시
곽승호&김현정 부산시
곽인영&김순득 대구시
곽지은 충남 서천군
구남용 서울시
구미정&이봉수 경기 광주시
구정이 경기 평택시
국미경 광주시
권경옥&김남호 경기 남양주시
권기출 경기 남양주시
권노은 경기 안산시
권미경&김호완 경북 안동시
권미영 대전시
권아영 전남 영암군
권자은&윤준식 서울시
권현주&김효문 대구시
길난주 충북 제천시
길지현&송영인 세종 자치시
김건하&김동혁 대구시
김경아 경기 용인시
김경애 강원 원주시
김경원 부산시

김경은 부산시
김금옥&정진환 경기 성남시
김난영 경남 창원시
김다미 부산시
김대겸&박시연 경기 화성시
김대호&박주연 울산시
김덕희&조영식 광주시
김도헌 경기 화성시
김동영 경기 의왕시
김동주&황금옥 경기 시흥시
김동춘 울산시
김두영&김철현 울산시
김막례&박병환 전북 군산시
김명님&문종화 광주시
김명애&이윤수 광주시
김문정&정현한 대구시
김미석 경기 수원시
김미숙&윤대성 경남 양산시
김미영&김윤환 경남 사천시
김미영&장승환 경기 수원시
김미정&안기창 서울시
김미정&최문현 서울시
김미화&송정섭 부산시
김민경&조남중 경남 거제시
김민선&강운용 경북 경주시
김민숙 서울시
김방실&조성만 서울시
김병식&오현송 전남 나주시
김보미&김경서 서울시
김봉림&이미홍 서울시
김봉화&홍지운 제주 제주시
김선경 서울시
김선덕&정상진 전북 전주시
김선주&박진성 경기 용인시
김성하&최종상 경기 군포시
김성희 전남 나주시
김소라&허재영 경기 용인시
김소영&변형순 경기 화성시
김수현&김상범 대전시
김순옥&최용석 경기 부천시
김연주&김철 대전시
김염 경기 성남시
김영 경기 성남시
김영란&김광년 경남 양산시
김영옥 울산시
김영임 경기 용인시
김영주&이대규 대구시
김영창 경기 화성시
김영화&김현철 인천시
김영화&조대용 광주시
김예영 인천시
김용섭 강원 원주시
김유경 서울시
김윤희&김희철 충북 청주시
김은실&박근성 충남 서천군
김은주&이근복 서울시
김은희 울산시
김은희&김성열 경기 화성시
김인옥 대전시
김정미&김용직 경기 용인시
김정수 경기 구리시
김정숙 서울시
김정숙&천여덕 충남 천안시
김정순&안신영 경기 남양주시
김정은&윤호민 울산시
김정화 대전시
김정희&곽종섭 경기 파주시
김정희&이석희 충북 충주시
김종관 경북 포항시
김종열&김홍안 경기 수원시
김종일 경기 광주시
김주원 경기 성남시
김준원 경기 하남시
김지민&최민혁 서울시
김지숙&조문빈 대전시
김지영&박인산 부산시
김지혜&정인식 경기 파주시
김지혜&진창현 충남 공주시
김진 서울시
김진숙&차두환 서울시
김쭈&채홍신 경기 수원시
김창미&석진무 대구시
김춘영 서울시
김태완&정향순 서울시
김태욱&신승윤 충북 청주시
김태환 제주 제주시
김태희&이종옹 대구시
김해림&이장용 경기 구리시
김향미 강원 원주시
김현경&김경민 부산시
김현연&김태성 경북 안동시
김현정&김중광 대전시
김현정&이경재 광주시
김현정&황종순 강원 원주시
김현중 경남 김해시
김혜숙&이은택 세종 자치시
김혜영 전북 익산시
김혜진&이태호 강원 속초시
김화영&황인태 부산시
김화진&이충근 경기 안산시
김효경&이준혜 울산시
김효은&서상운 경기 남양주시
김희숙 대구시
나경윤 인천시
남궁영미&김현범 경기 남양주시
남기탁 부산시
남송열&하정임 대구시
남영숙&박도현 경남 창원시
노덕일 경기 양주시
노은화&박준호 광주시
노진하&우성훈 서울시
류기복&이경미 부산시
문경혜&하인태 전북 전주시
문병권 경남 진주시
문윤미&이승훈 경기 평택시
문윤영 부산시
문지희&박홍현 경기 김포시
문희철 경기 남양주시
민지영 경기 김포시
박경훈&윤정희 광주시
박금대&신혜은 부산시
박다현&황영돈 대구시
박동월 경남 김해시
박명선 경남 창원시
박미정 부산시
박병창 경북 안동시
박보라 경기 용인시
박사라 경남 김해시
박상용 충남 천안시
박상원&조화임 부산시
박상희&이동준 서울시
박선근 경기 수원시
박선옥&조영인 경기 수원시
박성숙 경남 창원시
박성희 인천시
박세명 울산시
박소영&김기성 충북 청주시
박승균 경기 수원시
박연수&김국형 경기 용인시
박연아&이종신 경기 수원시
박영주 서울시
박옥진 경기 성남시
박원민&김희경 경기 하남시
박윤숙&조용석 세종 자치시
박윤희&배상돈 충남 천안시
박은경&김창범 전남 나주시
박은정&정영도 경남 사천시
박점순 강원 원주시
박정아 인천시
박정은&송준석 세종 자치시
박정화&김원철 인천시
박주미&이정한 경기 고양시
박지영 인천시
박지현&김승혁 경기 성남시
박진수 전남 순천시
박현정 광주시
박희선&오준석 부산시
박희정&신현종 서울시
박희제 경북 영덕군
배경민 대구시
배경옥 대구시
배문선 대구시
배수현&이정현 인천시
배은희 경기 화성시
배주은 부산시
배지영 대전시
백지형 부산시
백현희&이원철 경남 사천시
사민희&임욱빈 충남 아산시
서명수 서울시
서미연&이탁재 서울시
서상완&오가은 울산시
서영섭 충남 계룡시
서영숙 경기 수원시
서윤미 대전시
서은진 서울시
서정화 대구시
서지안&이재민 경남 진주시
서찬석&김춘화 경기 부천시
성민경&엄호일 경기 성남시
성영옥&류병환 경기 성남시
성평용&김미원 경기 수원시
성현정&김석원 울산시
성효창 인천시
손영숙 부산시
손정아 충남 천안시
손정아 울산시
손지민 경기 양주시
송미숙 서울시
송석종&공은정 광주시
송성현&강나리 제주 제주시
송수민 대구시
송영순&최대한 경기 광명시
송주연 경남 진주시
신기찬 울산시
신미경&조춘식 경남 거제시

신복인&강성화 경기 오산시
신성아 충남 천안시
신숙정&김필훈 대구시
신승훈 경남 창원시
신용선&홍순복 경남 창원시
신윤주&윤종원 서울시
신은정&박신호 경기 남양주시
신주홍 대구시
신지연&박세용 경북 칠곡군
신진숙&정훈재 경남 창원시
신하늬&강유선 서울시
신혜경 경기 고양시
심석연&주세언 경기 수원시
심시점 경남 김해시
심유리 울산시
심윤경 서울시
심태완 서울시
안말여 강원 동해시
안미경&강경현 경북 포항시
안아령&강해천 대구시
안정아&정해성 경기 군포시
안정현 경기 수원시
안현정&심규석 경기 고양시
양춘자&이후석 경기 광주시
양태연&이후암 경기 안양시
어은정&이근성 전남 나주시
엄경란&장은철 부산시
엄세연&김태윤 경기 용인시
엄순옥&강신혁 경기 의왕시
엄영희&문임생 울산시
여주연&이광수 경기 구리시
여진희 부산시
연관순 경기 화성시
오미경&황인찬 경남 창원시
오봉철 경기 시흥시
오영남&엄송미 경기 광주시
오영숙&윤성운 대전시
오영자&안교민 경기 시흥시
오용필 서울시
오주환&라경희 경기 광주시
오채린&김종석 광주시
오태림 경기 파주시
오현지 부산시
오희진 경기 안성시
왕세령&이동영 광주시
우창하 서울시
유성란&김태호 부산시
유용열&최동순 경기 여주시
유원애&최성호 대전시
유은영&임채식 대전시
유정&양승철 경남 통영시
유지선&정민호 경기 용인시
유행진&이인성 서울시
유혜경&김대규 충남 홍성군
윤길남 서울시
윤성숙&강상구 전북 전주시
윤수진&장동훈 경기 평택시
윤현정&김현기 부산시
이경문&김우상 경기 용인시
이경미&이창욱 세종 자치시
이경민&전주호 인천시
이경숙&이용필 충북 청주시
이경애 경남 창원시
이경화 경기 오산시
이경화&탁세원 경남 통영시
이광선 경기 하남시
이기순&최부락 경기 용인시
이기원 충북 청주시
이미애 인천시
이미영&양형태 광주시
이미옥&정광섭 경남 진주시
이미정&이선영 경남 김해시
이백현&조두림 경기 용인시
이병구&김유림 전북 남원시
이상숙 서울시
이상준 울산시
이상호 강원 춘천시
이서영 부산시
이서현 대전시
이선미&신승훈 부산시
이선미&이종수 경남 거제시
이성화 대구시
이소영 경기 남양주시
이소영&이상빈 부산시
이소영&장주환 울산시
이순예&문인평 경기 수원시
이순정 대구시
이승미&구자원 대구시
이승택&권효순 서울시
이승희&최연웅 울산시
이신영&이주환 인천시
이애란 서울시
이양희 경북 경산시
이연숙 울산시
이연희 경기 동두천시
이영미 경남 밀양시
이영순&박병용 전남 순천시
이영주 경기 수원시
이영희 경북 포항시
이영희 경기 수원시
이예은 경기 남양주시
이옥희 충남 천안시
이유림&안상엽 경기 수원시
이은섭 전북 무주군
이은영 울산 울주군
이은영&이충희 충북 청주시
이은영&전용석 경기 남양주시
이은정&손병성 경기 안산시
이은희 대전시
이은희&여운대 경기 군포시
이은희&유정우 전북 전주시
이의현 인천시
이인자&장재훈 경기 이천시
이점규 경기 부천시
이정순&표기환 경기 남양주시
이정인 경기 성남시
이정화&오현석 경기 군포시
이정화&임태훈 경기 화성시
이정희 대구시
이정희&문병철 경남 의령군
이종선 경기 화성시
이종섭 전북 전주시
이주희 충북 청주시
이주희&윤영언 서울시
이준삼 대구시
이지선&오경규 대전시
이지현 부산시
이지현&김동현 대전시
이지혜 서울시
이지혜&김상진 경기 용인시
이진화&윤민 서울시
이창현 강원 강릉시
이채목&전우섭 울산시
이채아 강원 강릉시
이철봉 서울시
이행영&김종구 경기 용인시
이현주 경기 화성시
이현주 서울시
이혜정 경기 용인시
이혜진 서울시
이화영&정윤자 충남 천안시
이화정&김긍락 경북 포항시
임동석&정미경 경기 안양시
임미라 경기 용인시
임미숙&김성홍 전남 순천시
임복이 인천시
임성택&제갈진 부산시
임수영&이춘성 충남 보령시
임수진&양태규 대전시
임순영&조홍철 인천시
임승주 서울시
임윤숙&백석현 서울시
임은영 대구시
임자연&김홍근 경북 상주시
임진무&이효림 서울시
임해은&주해성 경기 용인시
장미경&서재선 부산시
장미화&김승희 서울시
장유미&김태현 경남 진주시
장은경 대전시
장정은&나용균 경기 수원시
장지윤&박성식 대전시
전경숙&양정필 충남 천안시
전명&이대현 경기 화성시
전선화 경기 안양시
전세숙&김중헌 경기 성남시
전수영&최중규 경기 용인시
전영미&김효수 경기 용인시
전은경&정태성 경북 포항시
전은영&강정수 경남 진주시
전은옥&홍용수 부산시
전현경&서승관 대전시
전현선 서울시
전현아&강성수 전남 무안군
전혜경 경기 성남시
정경희&김민성 울산시
정광명 경북 구미시
정명숙 서울시
정문순 경남 진주시
정문희&김범준 서울시
정미덕 전남 나주시
정백금 경북 안동시
정보영&유정현 충북 영동군
정복선 강원 평창군
정선미 광주시
정시훈&서운겸 경남 창원시
정애라 서울시
정영옥 서울시
정은선&김광태 대구시
정인숙&이창섭 대구시
정정옥&박철서 경북 칠곡군
정찬우 경남 창원시
정춘자&이병화 서울시
정현경&김민석 경북 구미시
정현미&김대일 울산시
정현아&이상진 경남 창원시

정호정 인천시
정희선 부산시
조기화 대전시
조선경 경남 통영시
조신자 대전시
조영선 경기 수원시
조영옥&양세옥 서울시
조윤아 서울시
조은숙&박병진 경기 의정부시
조은진&장이욱 전남 나주시
조창환 충북 청주시
주명규 서울시
주혜영 경기 성남시
진경예&이치호 대전시
진연&이용길 경기 광주시
진연이 제주 제주시
진현옥&유승우 부산시
진훈희&백승민 경기 수원시
차륭&김주희 인천시
차민기&임미영 세종 자치시
차애경 부산시
채순애 대전시
최근민 서울시
최길림 경기 하남시
최명순 서울시
최문영&최일훈 경남 창원시
최미 서울시
최미숙&이상윤 서울시
최보람 경남 거제시
최선경&김태우 충북 청주시
최선자 서울시
최애란&장태영 부산시
최양희 광주시
최영숙 울산시
최영옥&박순원 부산시
최영인&이진민 대전시
최옥주&기시범 인천시
최용주&신숙희 대구시
최은실 강원 원주시
최은주 대전시
최은진 경기 김포시
최지영&이종기 서울시
최진벽&이소영 경북 포항시
최진우 울산시
최창호 부산시
최춘희&이상덕 울산시
최향주&박재균 대구시
최형순&김종우 전남 영광군
추귀숙&최기영 울산시
추단영&박성욱 경남 양산시
탁기문 경기 구리시
하영희&이철민 전북 전주시
하지현&권철순 경북 구미시
한기수 서울시
한미혜 대구시
한삼영&박철한 경남 창원시
한선미&김영식 충북 청주시
한소연 대전시
한송월&박진우 경북 칠곡군
한수엽 대전시
한여성 대전시
한정민 경기 시흥시
한종필&김상숙 충남 아산시
한현옥 인천시
한혜진&박성훈 전남 여수시
허나정 경남 김해시
허세영&김수엽 대구시
허지선&이상빈 경기 용인시
허진하&이동률 경남 창원시
홍석만 전남 순천시
홍성만 전북 전주시
홍순주&김희순 경기 고양시
홍승희&조원혁 경기 수원시
홍영주&김효정 경남 김해시
홍은미&서석민 경기 안양시
홍창현&강승묘 부산시
황남선 경남 진주시
황보유미&조창현 경기 구리시
황양호&김미애 전북 임실군
황인희&송재호 경남 창원시
황정수&이병우 서울시

RUBY

10 2017년 10월 1일부

김선주&권문오 경남 밀양시
서미희&최윤일 전남 순천시
윤미선&김선기 경기 안양시
이정영 서울시
정유선&이재웅 충북 청주시
홍승연&김영삼 경기 남양주시
황정례 인천시

11 2017년 11월 1일부

XU GUANHONG 서울시
강희순&김한승 경기 남양주시
박미정 경남 사천시
차국남 서울시

12 2017년 12월 1일부

홍정환&문수현 부산시

01 2018년 1월 1일부

CUI WENJING 경기 안산시
고지미&강성철 경기 안산시
김양희&배진식 경남 양산시
박세정 경기 용인시

02 2018년 2월 1일부

김진희&김현삼 경남 통영시
심부종 경북 구미시
양춘매 경기 수원시
윤라미&김진승 대전시
정용길 서울시
최정 세종 자치시
한은영&양성호 제주 제주시

03 2018년 3월 1일부

강정미&오구석 대구시
구현주&안성일 인천시
김진현&박미선 경남 창원시
심재선&김태진 울산시
윤혜경 경기 의왕시
이연화&조종래 부산시
임정희 경기 화성시
조영란&정일근 서울시
태성금&배성렬 충남 천안시

04 2018년 4월 1일부

권혜영 강원 원주시
김수진&류봉균 경기 부천시
김현숙&유진 경기 성남시
문한규&안종필 충남 서산시
서수경&고영익 광주시
성낙예 충북 청주시
손명옥 대전시
신경화&강인수 대전시
안미현 광주시
이윤희&홍성형 서울시
이현정 경기 용인시
장설미&박주채 광주시
최미선 경남 진주시
한아름&이경호 경기 오산시
한지애 부산시

05 2018년 5월 1일부

김민주&황경선 경기 김포시
김백만 전북 전주시
김현화 경북 구미시
박순정 전남 목포시
서민숙&김선희 인천시
송정화 경기 남양주시
이강주 서울시
장소례&이기정 경기 안양시
정은주 경기 고양시
정혜숙 광주시
진경 전북 익산시
차민경&신종규 경기 고양시
현채원 충북 청주시

06 2018년 6월 1일부

고지영 경기 고양시
김도훈 경기 군포시
김정숙 울산시
오혜나 경기 용인시
유선영 서울시
이나림 경기 용인시
이현정&하상일 광주시
정은영&임인호 광주시

07 2018년 7월 1일부

고명희&최준호 부산시
곽준영&이상희 대구시

PLATINUM

김미옥&이연석 전북 정읍시
김희정&이용익 경기 남양주시
문재환 경기 구리시
박은진&이준호 서울시
양성수 경남 창원시
오지혜 울산시
유선이&한덕규 대전시
장은진&김학경 경기 파주시
한수진 서울시

08 2018년 8월 1일부

고은아 전북 전주시
김현수 경남 김해시
박인걸&이봉연 경기 화성시

09 2018년 9월 1일부

강수미&김광록 광주시
공현숙&김영삼 광주시
김미선 경기 오산시
김미숙&박종필 충남 천안시
김성임&김경호 경기 용인시
김인정 서울시
김해경&손경락 경기 수원시
나성은 전남 화순군
나운서 전북 전주시
박지훈&진주영 인천시
박창섭&이단실 대구시
송연자&권호철 서울시
여미영 대구시
유영주&박용 대전시
윤상원&이준성 세종 자치시
윤희복&전용준 대전시
이소라&이성주 부산시
이은혜 세종 자치시
전선아&최종열 서울시
전설희&이동국 서울시
정성희&최병갑 전북 전주시
정현미 광주시
조월숙 경남 김해시
조현진&김환재 대구시
주수빈&차창식 경남 창원시
최낙미 경기 의왕시
한종천 대전시
한희선&소진욱 서울시
현진희&곽봉수 경남 양산시

10 2017년 10월 1일부

김근호 서울시
김미정 전남 순천시
김연정&오종철 경기 고양시
김은희 광주시
김주현 경기 김포시
노흥숙 울산시
도선명 대구시
박보민 경기 화성시
박진주 경기 성남시
배성희&진한주 전남 광양시
백승원&신갑숙 경남 진주시
백육례 전북 정읍시
서승권 경기 의왕시
서진희&이경호 경남 양산시
심현정 전남 화순군
안주희 경기 성남시
오윤석 경기 의정부시
오희정 부산시
윤소영 전북 완주군
윤정은 경남 창원시
이수영 경기 남양주시
이수영 충남 천안시
이순미&이원달 서울시
이향숙 부산시
정수인 서울시
정우진&강용식 대전시
조선미 경남 창원시
조진경 경기 안양시
최미영 전남 순천시
최상아 대구시
최성실 경남 김해시
최지영&박용순 경기 남양주시
한혜진 경남 창원시

11 2017년 11월 1일부

강성희 대전시
강현숙&이성훈 인천시
고경자 전북 전주시
김경임&최상일 경남 진주시
김남수 경남 밀양시
김동련 경기 성남시
김미라&박준혁 서울시
김미선 경남 거창군
김민정 경기 남양주시
김보경 전북 군산시
김선정&배우영 제주 제주시
김소영&한상평 서울시
김아람&조성훈 경기 광주시
김외생&황정규 대구시
김월천&현승창 대구시
김윤화&김정환 경기 용인시
김은령&박시흥 부산시
김정희 경남 의령군
김지양 인천시
노준미 인천시
박미희 경남 양산시
박선영 경기 남양주시
박현정&이동주 서울시
박혜진 서울시
신채성 광주시
안유진 경남 창원시
양미진&김정현 경기 광명시
여혜영 세종 자치시
이두열 경남 창원시
이영미 경남 김해시
이윤지 경남 양산시
이정은 충남 천안시
이현정 경기 수원시
이혜경 경남 양산시
이호진 경기 고양시
전영희 경남 진주시
정인조 경기 용인시
정원주&조대형 인천시
지금순&김재홍 충북 청주시
최기화 경기 수원시
최원화&유형근 경북 구미시
최정희 대전시
한승재&서혜원 서울시
한주희 충남 아산시
허은숙&한상기 경기 의정부시
허종덕 경남 김해시
허지영 제주 제주시
홍선진 제주 제주시

12 2017년 12월 1일부

TIAN MEIXIANG 서울시
강경은 서울시
강지은 부산시
고미희&조원철 부산시
곽소영 대구시
구보나 경북 상주시
김문자&김인수 대전시
김미영&정윤식 울산시
김민수 서울시
김수아 충남 서산시
김숙희&김경룡 전남 무안군
김순남 경기 하남시
김영배 서울시
김영진 경남 사천시
김정대&박보슬 경북 안동시
김지선 경기 용인시
김향미 전남 완도군
김향옥&박영철 경기 시흥시
김현아&김홍철 대전시
김현주&박혁순 경북 포항시
나하민 서울시
박인혜 서울시
박혜원 서울시
배선옥 부산시
배수진 부산시
변혜림&안택수 경남 사천시
손지영 경기 포천시
송미숙 서울시
송상미 서울시
송은주 서울시
송하희 대전시
송현주 경기 성남시
심유택 인천시
오은란 서울시
옥다연 경남 거제시
유영희 서울시
유현중 세종 자치시
윤주일 경기 성남시
이귀선&진경태 경기 용인시
이상범&임희경 광주시
이선애 경기 안산시
이선화 인천시
이월선 대전시
이유라 경기 수원시
이정주&김현희 서울시
이지연 서울시
이채빈 울산시
이화선&하태성 경남 창원시
임혜경 서울시
장서연&서춘수 부산시
전경옥 부산시
정명순 경남 통영시
정사미&이동주 경기 과천시
정현철 경남 창원시
조수예 부산시
조순애 경기 남양주시
조윤해 대구시
조정순&남종현 대전시

조정화 전북 전주시
조주실&백정훈 전북 정읍시
최봉수 서울시
최성중 울산시
최승아&조유택 대전시
최윤영 울산시
하지연 경기 성남시
한미옥 인천시
한임선&배민준 부산시
허아름 전남 순천시
홍기정 울산시
황명화 부산시

01 2018년 1월 1일부

강문희&곽도근 대전시
강상숙&김종열 경기 화성시
강효순&강남출 제주 서귀포시
김경남&박석환 전남 여수시
김규리 전북 전주시
김기홍 서울시
김미경 서울시
김세희 전남 목포시
김소윤 광주시
김소희&손태익 부산시
김영심 충북 청주시
김영심 경기 안양시
김옥이 부산시
김형숙 전남 광양시
노진선 경기 부천시
노희선&정준영 경기 화성시
문우선&최두석 서울시
문지연 인천시
박상규 전남 광양시
박성미 서울시
박성연 경기 성남시
박은주 경기 성남시
박혜자 경기 용인시
배자선 서울시
배정열&박종준 울산시
손영희 부산시
안정민 서울시
양혜자 전남 목포시
오수정 경기 부천시
유현정 경기 이천시
이강로 전북 익산시
이성근 부산시
이연서&김선덕 경남 양산시
이은영 경기 의왕시
이태희 서울시
이현미 대전시
장미경 대구시
정인숙 서울시
정혜련 대구시
조재민 제주 제주시
차향민 서울시
천정미 충북 청주시
최윤영 경기 의왕시
최인덕&문경범 경남 창원시
한영숙 경기 수원시
허진 광주시
홍석영 세종 자치시
황은영 경기 광주시
황재희 강원 원주시
황지영 경기 수원시

02 2018년 2월 1일부

강경구&정찬미 대전시
강경돌 경남 창원시
강문옥 경남 창원시
강춘자 경기 성남시
김동숙 전남 화순군
김순혜 경북 경주시
김영화 서울시
김은경 경북 포항시
김은실&임남희 경기 용인시
김은정&김주은 대구시
김이화&김종묵 부산시
김정애 서울시
김천숙&최인석 울산시
나지연&최준규 대전시
노영석 대구시
민정화 경기 군포시
박성혜&이태규 서울시
박정미&장병섭 경북 포항시
박진화 경북 구미시
박진희&박균철 전북 전주시
박찬욱&한아름 강원 춘천시
박혜윤 경남 거제시
백수경 경북 경주시
백청 경기 남양주시
변지혜&김재현 부산시
사니코로스마리&서병구 충남 아산시
서은지&백운기 충남 천안시
신인자 경기 용인시
심지은&손훈희 경기 화성시
양지현&이종국 경북 구미시
염기남&김진하 경기 안성시
오효진&안교철 부산시
윤정화&김종수 서울시
이경민&장일호 경남 창원시
이미라 경기 안산시
이선종 경기 광명시
이선화&김기태 서울시
이성희 울산시
이순이 경북 포항시
이윤희&이경노 경기 안양시
이은유 경남 창원시
이향 서울시
이향순 서울시
임재희 충북 청주시
전영선&서용호 대구시
전형주 서울시
정대홍 경남 진주시
정미진&김도영 부산시
정수연 경기 남양주시
정영미 경남 김해시
정영미 경기 안성시
정채목 부산시
조서희 광주시
조성수&김현미 경북 경주시
조영희 경기 고양시
지상희 인천시
지아름 경기 김포시
채미효&배승욱 경남 김해시
최성옥 부산시
최영임&김영웅 강원 춘천시
최은현 서울시
최지은&김우석 광주시
최혜령 경기 여주시
최혜리 경기 안양시
최혜정 서울시
한영진&윤선용 서울시
황선희 서울시

03 2018년 3월 1일부

강미경 인천시
강민영 대전시
강성옥 경북 구미시
강진형 경기 파주시
고은진 경남 진주시
곽현빈 경남 통영시
권연경 경남 김해시
권오웅 대구시
김경도 서울시
김경섭&박미라 부산시
김경은 광주시
김대근 부산시
김미영 대구시
김미정&민영식 경남 김해시
김민주&이민열 경남 진주시
김보미 서울시
김분정 경기 수원시
김상민 경기 광주시
김상오 서울시
김상오&안소영 대전시
김선주&박영후 경기 수원시
김소영 경남 진주시
김소희&주성완 서울시
김아란 경북 경주시
김연희&김창겸 경기 용인시
김용운 경기 수원시
김윤성 서울시
김장철 경기 용인시
김정림 경기 파주시
김정숙 전남 여수시
김지현 서울시
김진경 경남 창원시
김진녀 경남 김해시
김진희 경북 경주시
김태령 경기 수원시
김하솔 경남 창원시
김현진 경기 이천시
김현화 제주 제주시
김형진 경기 성남시
김혜지 인천시
김홍근 울산시
남궁곤 경기 용인시
남명주&박희수 경기 수원시
노시환 경기 김포시
노은숙 경남 창원시
노현숙 서울시
노형훈&김연수 광주시
도하림 서울시
류연지&허남건 부산시
문쌍민 부산시
문진희 대전시
박랑희 광주시
박선정&박보성 부산시
박성일&박미연 경기 안산시
박성황 경기 양주시
박은미 경북 구미시
박정민&김영진 부산시
박준하 서울시

박현미&이춘경 대전시
박현숙 경기 의왕시
박형준 전북 전주시
방경연 충남 천안시
방인수 경북 구미시
백미현 대전시
백인순 광주시
빈희정 부산시
손유진 부산시
송정미&곽준우 경기 성남시
송진영&최응관 대구시
신상호 서울시
신자은 대구시
신정현&박흥진 경기 남양주시
신필수 경남 창원시
신현숙 경기 평택시
안승화 서울시
안연희&하강혁 경남 창원시
안해영&김영성 부산시
오세미&이인괄 서울시
오인희 인천시
왕혜현&신용훈 서울시
유경 서울시
유경희 부산시
유재우 경기 고양시
윤미영 경남 창원시
윤보경 경기 부천시
윤숙연&이석규 경기 남양주시
윤혜정 대구시
이경숙 경남 창원시
이동신 부산시
이미진 부산시
이반지 경남 창원시
이성령 대구시
이윤옥 대구시
이정희 경북 포항시
이지현 충북 제천시
이태준 대구시
이혁주 울산시
이현자&최경훈 경기 남양주시
이홍주 충북 청주시
이효종 충북 청주시
임영아 경기 고양시
임진경 경남 창원시
장명희 경기 용인시
장병기 서울시
장진영&김종선 경기 수원시
정미진&주광훈 경남 진주시
정승용 서울시
정이숙&진영석 경남 진주시
정준영 대구시
정준철 서울시
정현수&안승호 충남 천안시
조선재 부산시
조수업 충북 영동군
조아라&이승훈 경기 구리시
조연희 부산시
조유나 경기 성남시
조은일&석기호 경기 용인시
조일종 경남 김해시
조지현 경북 포항시
채성기 경기 수원시
최보경 경남 김해시
최영미&김영희 충남 아산시
최윤정&석재웅 경기 김포시
탁정연 서울시
한권희 경기 용인시
한상경&허필 경기 용인시
한임경&김정호 경기 고양시
허상희 경남 창원시
허연자 대전시
홍미경&최병진 경기 수원시
홍민정&장현석 서울시
홍지숙&이진철 경기 오산시
홍지혜 서울시

04 2018년 4월 1일부

강두현 서울시
고권 서울시
구상문&이지연 경남 창원시
구은경&이계민 경기 평택시
권연주 경남 창원시
김대홍 전남 목포시
김미영 충남 서산시
김민정 서울시
김선준 경기 부천시
김성기 서울시
김세영 경기 안양시
김애자 경기 성남시
김유진 광주시
김정화 서울시
김제현 경기 수원시
김진복 충남 금산군
김진희 부산시
김희수&남규녕 경기 남양주시
마혜순 부산시
민병진 경기 수원시
박성열 강원 원주시
박성영 경남 창원시
박승미 서울시
박윤옥 경기 평택시
박은영 경남 창원시
박희순 경기 부천시
변현조 부산시
서연주 서울시
소유순 부산시
손정화 서울시
안병인 대전시
양지연 전북 전주시
오나영 세종 자치시
오양희 경기 화성시
오은혜 전북 임실군
유영심 전북 정읍시
유지윤&김진원 인천시
윤경 제주 제주시
이경선&배기영 경기 화성시
이미영 경기 부천시
이상림 경기 하남시
이수민 대구시
이자연 경기 용인시
이현숙 서울시
임경화 경북 안동시
임동선 경기 시흥시
임옥경 경기 부천시
임정연 서울시
임혜연 경기 수원시
장미선 경남 거제시
전해영 대구시
정미애 울산시
정수열 경기 고양시
정오순&박동학 서울시
정윤진 광주시
정치선 광주시
조명옥 경남 김해시
조이연 경기 수원시
최경자 전남 화순군
최동식 서울시
최수영&민병준 전북 전주시
최윤정 경남 창원시
최진희 서울시
하민정 서울시
하세은 경기 용인시
허대규 경기 용인시
허정민 부산시
황경희 서울시
황숙희 경기 남양주시

05 2018년 5월 1일부

강보선&윤태용 강원 원주시
강선영 경기 성남시
고민수&박의순 경기 용인시
곽명선 경남 거제시
권길례 경기 의정부시
권선경 인천 강화군
김남숙 경기 안양시
김대원 울산시
김미정 부산시
김미정 경기 광주시
김민정 서울시
김순자 충남 천안시
김순하 경기 용인시
김영민 부산시
김옥주&유경수 인천시
김은선 경기 평택시
김은주&김갑철 전북 군산시
김인선&이재준 경기 광명시
김정이 경기 용인시
김주영 경기 화성시
김지숙 대구시
김진수&윤사랑 경기 수원시
김태이 부산시
나경민 인천시
남경숙 충남 보령시
노갑현 강원 동해시
민선영&양현진 경기 수원시
박경숙 경기 성남시
박봉덕 인천시
박수란&김남길 경기 성남시
박영숙 인천시
배경옥 경남 창원시
배수정&박종완 충남 금산군
백희정&성종현 대구시
사공경순&박노환 대구시
서경희&허균 광주시
서남숙&남정국 경기 부천시
서은경&윤충한 충남 아산시
서태주 경남 창원시
석서영 세종 자치시
소원대 부산시
손광익 대구시
송대식&박만배 전북 익산시
송민주 충남 천안시
신영호&김연경 인천시
심은정 경기 안양시
양지해 대전시

여은아 서울시
오정수&김미라 경기 안산시
오정숙 경남 함안군
우경숙 서울시
유상록 서울시
윤미현 대전시
윤민선 충남 보령시
이미애 서울시
이상민 인천시
이소정&손정석 서울시
이승철 서울시
이외선 울산시
이원탁&최경숙 경남 거제시
이은정 경기 안산시
이정희&황용운 서울
이종숙 대구시
이종은 서울시
이진영 충북 충주시
이진영 충북 청주시
임경숙 대구시
임성희 경기 구리시
임정선 경기 광명시
장은향 경남 김해시
정난향 경기 남양주시
정옥순 울산시
정창대&박윤진 서울시
조명호&김향이 대구시
조현숙 서울시
최관모 충북 제천시
최문재 전북 전주시
최상민 대구시
최수안 인천시
최승혜 부산시
최옥란 경남 창원시
최재원&이미선 경기 성남시
최지현 대전시
표민혜&김재환 경기 성남시
한요셉 경기 수원시
한혜진 경기 부천시
허명철 서울시
허선화 경기 용인시
허양원 경남 통영시
홍미상 경기 안성시
홍윤정&최윤규 대구시
황선미 경남 창원시
황숙란 울산시
황윤미 충남 천안시
황태연&장윤영 경기 고양시

06 2018년 6월 1일부

강경진 경북 구미시
곽은정 서울시
김덕우&최영희 부산시
김동옥 부산시
김미나&이종필 경남 김해시
김미연 충북 청주시
김성도&김도영 부산시
김성희 경남 거제시
김숙희 경남 창원시
김연화 경기 안산시
김윤미&이용준 서울시
김윤정 경북 영덕군
김은진 경기 화성시
김잔디 경기 화성시
김종란&장계한 전남 광양시
김종연 경남 창원시
김주연 부산시
김주연 서울시
김진미&이종일 경기 고양시
김창순 경기 수원시
김판순 서울시
나형권 충남 서산시
문성현 경기 군포시
민경화&이석환 충남 천안시
민성은 광주시
민해진 충북 옥천군
박신영 부산시
박은수 경남 하동군
박혜신 경기 남양주시
배성애 경북 구미시
백나현&이승현 대구시
백수현 서울시
선은선&김대형 서울시
손승완 서울시
손인경&최충호 경기 용인시
송경숙 경기 수원시
송명순 대전시
신은섭 경기 안산시
신종한&이경옥 경기 성남시
염세미 세종 자치시
염승환 서울시
오인옥 전남 순천시
용문장 경남 거제시
유달임 경남 김해시
이보경 부산시
이순영 경기 안산시
이승희&김준량 경기 평택시
이영신 경기 화성시
이은경 인천시
이은신 경기 수원시
이은영 경남 진주시
이장우 인천시
이재형 부산시
이지수 경기 남양주시
이지혜 인천시
이태경 대전시
이행준&이제흥 경기 성남시
이현경 인천시
이현지 제주 서귀포시
이화진 부산시
임인숙 전북 전주시
장인희 대구시
정경아 경기 광명시
정연심&강상원 경기 군포시
정유주 부산시
조채연 경남 김해시
조해경 서울시
주정민&이재진 대구시
주태옥 경기 성남시
지미혜 경기 하남시
진유&김용석 경기 광명시
최대기 경기 안산시
최영옥 인천시
최윤순 전북 익산시
최의정&천현 경기 의정부시
추지경&김선희 서울시
홍지원 서울시
홍진표 부산시
황성실 경남 창원시
황은숙 충남 천안시
황의진 광주시

07 2018년 7월 1일부

강정선&박순기 서울시
강혜경 대구시
김명주 경기 용인시
김민정 경남 창원시
김성근 경기 가평군
김소연 경기 용인시
김소진 경남 창원시
김수정 경기 수원시
김용욱 경기 구리시
김은숙&이준 대구시
김은주 인천시
김주영&안재은 인천시
김철희&방동원 서울시
김해랑 충남 서천군
김해선&박인석 경남 김해시
김현우&정현채 경북 경주시
김희정 경북 포항시
남희라&정해석 경북 구미시
민선영 대전시
박권순 충남 서천군
박세정 대전시
박은미&정현강 충북 청주시
박정윤 경기 김포시
박종순 경기 화성시
박진현 부산시
박희선 경기 광주시
반정숙&최승동 경기 안산시
방윤자 경기 남양주시
배영혜 대구시
백명희 인천시
백일선 서울시
소정연 서울시
손도병 경기 평택시
송미선 서울시
신나라 서울시
신진화&배등섭 부산시
염현서 대전시
오경선 울산시
왕용경&류동석 서울시
우성희&강동훈 경북 영천시
우영미 경기 부천시
유보선 광주시
이강희 경남 밀양시
이려 인천시
이명임 부산시
이분영 대구시
이승은 경기 고양시
이영순 경북 구미시
이영혜&이대용 대전시
이준희 충남 홍성군
이향미&송길범 전북 군산시
이헌금 서울시
이현주&류자운 경남 김해시
이효진 서울시
이희은&정원진 인천시
임경수 경남 창원시
임정현 서울시
임혜원&이용완 경기 용인시
임효지 경남 창원시
장미라 경남 밀양시
장예음 강원 횡성군

장혜련 전남 광양시
장효정 경기 고양시
전순남&김용호 인천시
정백화 경북 안동시
정상훈&정유진 대전시
정서연&박기영 대구시
정선영 충북 청주시
정신영&김준하 서울시
정지영 인천시
조경식 서울시
조지은 대구시
조해정&권도현 경기 남양주시
주지은 경북 포항시
진정애 강원 동해시
진혜영&천승욱 경기 안양시
최경진&박아름 경기 수원시
최길성 대구시
최동일 경기 고양시
최소미 서울시
최수진 경북 구미시
최영민 서울시
최지원 경기 용인시
추문성&박성희 광주시
추승연 경북 포항시
편도담 경기 남양주시
하인숙&류승현 제주 제주시
허나연 서울시
허성운 서울시
허현정&남정현 경기 안양시
황미남&소대섭 경북 구미시
황인선 전북 군산시

08 2018년 8월 1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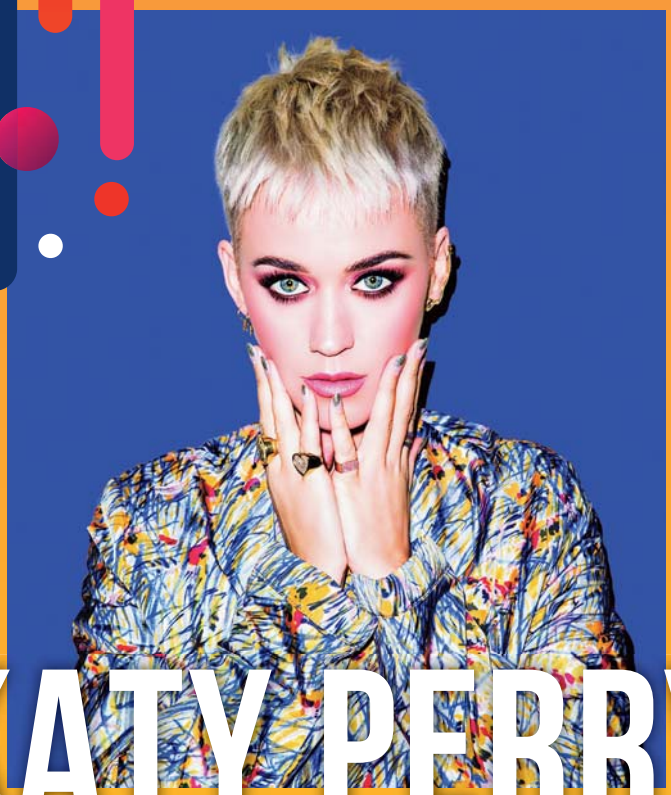
강순미&진홍열 강원 원주시
고명실 경남 진주시
고은정&박인근 서울시
공현상&민정하 경남 창원시
곽미숙 대구시
국인혜 경북 영덕군
권미경&정주영 서울시
권은혜 서울시
권진희&강백규 경기 용인시
권현아 경기 하남시
김강설 서울시
김교명 경기 수원시
김명화 서울시
김미영 충남 천안시
김미정 전북 정읍시
김민규 경북 구미시
김빛나 서울시
김성희 경기 구리시
김연정&김국년 경기 화성시
김영민 경북 칠곡군
김영선 서울시
김영숙 세종 자치시
김영희 울산시
김옥순&김경호 전북 김제시
김은영 경남 창원시
김은영 충북 청주시
김은정 광주시
김은희&원강희 부산시
김은희&이성원 경기 용인시
김정숙 경기 시흥시
김정현 대전시
김준&김은주 경기 부천시
김지숙 경기 군포시
김평옥&이숙희 경기 부천시
김해련 광주시
김현희 전북 전주시
김혜숙&박세훈 경남 양산시
김혜정 경기 하남시
김효석 부산시
김효정 대구시
김희정 대구시
남현우 경기 용인시
노석자 인천시
류인숙 경남 양산시
문성인 대전시
문지예 경기 부천시
박민석 서울시
박시영 부산시
박영애 경기 김포시
박은영&윤성태 경기 의정부시
박지영 광주시
박혜리&송상훈 서울시
박홍숙 부산시
박희준 경기 평택시
백기천 경남 양산시
백남순 인천시
백성례&김종찬 경남 김해시
서병갑&신현지 경남 창원시
서희진 경남 거제시
선옥연 경기 남양주시
성슬희 경기 남양주시
송미현 경기 부천시
신옥경 경기 고양시
신호경 대전시
심하영 인천시
안규식&강덕희 서울시
안철규 경기 평택시
양두영 광주시
양윤주 서울시
오명주 서울시
오성희&권지성 대전시
오승익 제주 제주시
오은성&이현주 부산시
우지연 경기 하남시
유은희 대전시
유정화 대구시
윤재철 경남 창원시
윤정식 충북 청주시
윤정애 인천시
은희 대구시
이동완 대전시
이미순 경남 양산시
이서미 울산시
이선미 부산시
이세영 경남 창원시
이연옥 대전시
이은성 경기 화성시
이재희 대구시
이정분 울산시
이희자 서울시
임석 서울시
임은희 대전시
장무석 서울시
장우성 대구시
정금용 경기 화성시
정미진 경북 영천시
정수미 경기 용인시
정연주 경기 화성시
정혜미 서울시
조미정 전남 순천시
조성현 서울시
조숙희 서울시
조연희 울산시
조진 경기 안양시
조혜숙 부산시
주수현 경기 남양주시
지원희 경남 양산시
진순자 부산시
진정아 경기 용인시
차민정 대구시
차아정 서울시
최숙희 전북 전주시
최옥교 인천시
최용석 경북 경산시
최윤선 서울시
최은정 서울시
최진옥 서울시
하현순 경기 수원시
홍지혜 경남 거제시
황영미 경기 수원시
황현아 대전시
황효순 서울시

09 2018년 9월 1일부

강신욱 경기 파주시
강지혜&이호형 경북 경주시
강춘자 서울시
고은영 충남 천안시
공미정 서울시
공진솔 경기 김포시
곽미희 충북 청주시
구진숙 경기 수원시
권계령 부산시
김경덕 경북 칠곡군
김경태 대전시
김경화 경기 수원시
김광식&정경순 충남 예산군
김기현&추명순 부산시
김나영 부산시
김덕교 대구시
김도현 경북 안동시
김명주 경기 군포시
김미경 부산시
김미경&김완식 충북 보은군
김미선&송귀근 전남 담양군
김미숙 전북 완주군
김민영&전병구 대구시
김보성&우청식 대전시
김복순 경기 광명시
김부기 대구시
김상기 경기 남양주시
김샛별 경기 성남시
김세진&한명훈 경기 광주시
김수진 부산시
김순정 전남 순천시
김신애 경기 김포시
김영란 경기 김포시
김영옥 서울시
김영임 서울시
김용자 경기 수원시
김은경 경기 남양주시

김은미&전환규 경남 진주시
김임순&김성훈 대구시
김정아 경기 의왕시
김정옥&문용완 서울시
김정원 경기 고양시
김정종 대구시
김정희&윤충효 부산시
김진섭&권수영 대구시
김태신&옥창훈 경기 성남시
김태진 서울시
김현정 경남 거제시
김현주 경기 파주시
김형주&강찬호 부산시
김혜경 충남 천안시
김혜라 경기 수원시
김혜란 대구시
김혜연 경기 용인시
김혜자 서울시
김효정 경기 광주시
김희영&김학성 경기 용인시
나윤영 경기 수원시
노지은 충남 천안시
류경희&박성오 경남 창원시
류성혜 경남 김해시
모현숙 광주시
문지원 부산시
박나래&강은성 충남 천안시
박노정&정은화 부산시
박명희 대구시
박미경 부산시
박미진 광주시
박서영 경기 오산시
박석규 서울시
박설희&김진현 경남 양산시
박수정 전북 전주시
박순녀 서울시
박신영 강원 춘천시
배수현 경기 고양시
변상미 서울시
봉선화 경기 구리시
서미자 경남 진주시
서선희 전남 순천시
서애랑 광주시
서영민 경기 화성시
서효현&최아름 부산시
설승만 대구시
성기명 충북 청주시
손순득 대전시
송미진 경기 화성시
신경희&윤명훈 광주시
신아름&안효로 충북 청주시
신원길 부산시
심병수 대전시
심은영&홍욱 서울시
안려나&신동출 인천시
안은미 인천시
양선미 경기 남양주시
양은경 충북 청주시
양은영 부산시
양하나 제주 제주시
엄영신 울산시
오종현 서울시
오필란&김광명 부산시
오현자 전북 전주시
우수정 대구시
원초연 충북 청주시
유경집 대전시
유미&이경열 경기 성남시
유은영 경기 성남시
유제능&배경숙 경기 고양시
유지영 서울시
유하나 대전시
윤내충 서울시
윤상한 서울시
윤여창 서울시
윤정례 경기 수원시
은희정&이성기 충남 천안시
이강호 대전시
이경민 울산시
이경원 서울시
이금진 강원 원주시
이동원 서울시
이미간 서울시
이미경 경기 수원시
이미옥&황송남 서울시
이민성 강원 춘천시
이보배 경기 수원시
이상호 충북 청주시
이선화 서울시
이선희 세종 자치시
이성희 경기 부천시
이실근 울산시
이옥순 서울시
이율효 부산시
이은실 충북 충주시
이은주 경기 화성시
이인숙 광주시
이인우&노은진 부산시
이자연 부산시
이정숙 서울시
이주리 경기 안산시
이주은 충북 청주시
이찬재 대구시
이채희 서울시
이한결 서울시
이해성 서울시
이현숙 경기 수원시
이형헌 경기 수원시
이화 경남 창원시
임미영 경기 시흥시
임석원 서울시
임선미 충북 청주시
임애경 경기 화성시
임영주 울산시
임현주 대전시
장숙경 부산시
장지영 부산시
장지정 경기 성남시
정경미 전북 전주시
정경은&김삼수 경기 안산시
정경화 경남 통영시
정귀임 전남 화순군
정세나 경남 거제시
정수희 부산시
정순덕&신재인 강원 속초시
정태영 경북 경주시
정혜원&김영진 충남 당진시
조기연&배정대 인천시
조민지 제주 제주시
조윤미 서울시
조인희 제주 제주시
조정용 경기 남양주시
조희정 서울시
주란&문대민 서울시
천정민 경북 경주시
최경숙 인천시
최다영 서울시
최서윤&박희수 경기 용인시
최영숙&최원민 경기 이천시
최인경&오승준 서울시
최정일 경기 성남시
하철민 인천시
하혜경 부산시
한경희&홍성서 경기 용인시
한비아 서울시
한영자 경기 광주시
한제희 서울시
한필녀 서울시
함영숙 인천시
현한샘 대전시
홍사찬&김순옥 경기 화성시

RISE 2019 DUBAI



KATY PERRY

케이티 페리,
RISE 2019 두바이에 출현하다

'라이즈 2019 두바이(Rise 2019 Dubai)'에서 ABO들을 위한 대형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바로 21세기 팝 음악사의 가장 중요한 팝가수 중 하나인 케이티 페리(Katy Perry)의 공연입니다.
3집 〈틴에이지 드림 (Teenage Dream)〉의 성공으로 전 세계의 신드롬이 된 케이티 페리는 이 앨범으로 빌보드
앨범차트 1위뿐 아니라, 'Teenage dream' 'E.T.' 등 총 다섯 곡이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앨범에서 5곡 이상이 싱글 1위에 오른 것은 마이클 잭슨 이후 20여 년만에 처음입니다.
트위터 팔로워 수가 무려 1억 689만여 명(2018년 11월 기준)을 넘는 최고 SNS 스타인 케이티 페리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유니셰프 명예대사로 임명되기도 했고,
여성 인권 향상과 HIV와 에이즈 보유 청소년 인권 지지 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 시대 최고의 스타인 케이티 페리가 2019년 12월 '라이즈 2019 두바이'에서 선보일 공연.
ABO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케이티 페리
영상 보러가기

AMWAY'S GOT TALENT

'라이즈 2019 두바이'에서 펼치는 또 하나의 이벤트

AMWAY'S GOT TALENT IN DUBAI

'갓 탤런트(Got Talent)'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일반인들이 자신들의 노래와 춤 등 예술적인 재능을 발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최초 영국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풀 시리즈로 기획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갓 탤런트' 시리즈.
이제 한국암웨이만의 '암웨이스 갓 탤런트'가 '라이즈 2019 두바이'와 함께 합니다. 지역 예선과 최종 결선을 거친 끼와 재능이
가득한 ABO들이 '라이즈 2019 두바이'와 함께 그 재능을 폭발시킵니다. 기대하세요. 숨겨진 ABO들의 재능을!

GUEST PERFORMER

KATY PERRY

MIXOLOGIST - BRUNO VANZAN

COMING SOON

AMWAY GUEST · SPEAKER

DECEMBER 2019

RISE 2019 DUBAI

APAC LEADERSHIP SEMINAR

Amway

RISE

Anything is possibl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2018 ACHIEVE

VPS 번호: 1803 / ABO 가격: 5,000원

291836K